

독일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2
- 주요인사 / 4
- 외교관계 / 8
- 주한주재 국기관 / 9
- 한국과의 주요이슈 / 10

II. 경제

- 경제정책 / 11
- 최신 경제 동향 및 전망 / 12
- 주요 산업 동향 / 14
- 정보조사 자료원 / 16

III. 경제무역통계

- 거시경제 통계 / 19
- 무역통계 / 19
- 투자통계 / 22

IV. 출장가이드

기후 / 23
시차.근무시간 / 24
도량형 / 24
출입국.비자 / 25
환율.환전 / 25
물가정보 / 27
교통.통신 / 30
호텔.식당 / 34
관공서 관행 / 38
공휴일 / 38
여행시 유의사항 / 39
유용한 연락처 / 41
관광명소 / 42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46
수입규제제도 / 47
관세제도 / 50
주요인증제도 / 52
지적재산권 / 55
소비자보호제도 / 60
교역관련 국가기관 / 63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6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65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66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68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70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71
운송 / 75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78
유형별 분쟁사례 / 79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79

우리기업 투자동향 / 81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82

투자인센티브 / 85

타당성조사 / 87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88

입지선정 / 91

공장 설립 / 95

투자관련 정부기관 / 97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98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99

조세제도 / 101

외환관리 / 103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103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독일연방공화국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현지어명 : Bundesrepublik Deutschland)
위치	서부 유럽
면적	357,022km ² (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기후	온대성, 연평균 섭씨 7-10도 수준
수도	베를린 (Berlin)
인구	8,244만 명 (2005년 말 기준) 2004년도 대비 0.1% 감소
주요도시	Berlin (340만 명), Hamburg (174만 명), Muenchen (124만 명)
민족(인종)	게르만족
언어	독일어
종교	개신교 (33.2%), 카톨릭 (32.8%), 기타 (34%)
건국일(통일기념일)	1871. 10. 3일 (비스마르크 재상에 의해 독일 제2제국 탄생)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내각 명단
국가원수 (실권자)	대통령 Koehler (국가원수) - 취임일 : 2004. 7. 1 (임기 : 5년) 수상 Angela Merkel (실권자) - 취임일 : 2005. 11. 22 (임기 : 4년)

나. 경제지표2005년

GDP	22,455 (억Euro)
실질경제성장률	0.9%
1인당 GDP	27,230 (Euro)
실업률	11.0%
물가상승률	2.0%
화폐단위	Euro (EUR)
총설비투자	3,846.7 (억Euro)
국내총소비	21,353.3 (억Euro)
교역규모	9,016.9(수출), 7,896.2(수입) (상품 및 서비스포함, 억Euro)
주요 교역품	- 수출 : 자동차, 기계, 전자 및 전기, 화학제품, 철도차량 - 수입 : 원유, 천연가스, 자동차, 전자 및 전기, 화학원료

자료원: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독일 연방 통계청](#)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

나. 국가조직

1) 연방대통령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나, 제한적 상징적 권한보유/임기는 5년(1회 연임 가능)이며 연방하원의원과 각 주 의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총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2)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15명의 장관들로 구성되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원수는 연방 대통령(Federal President)이며, 실권자는 연방 수상(Chancellor)이다.

연방수상은 대통령의 제청으로 의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방각료는 수상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정부 즉 각 연방주의 수상(Ministerpraesident)은 연방의 주 의회가, 각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은 기초 지자체의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3) 사법부

연방법원은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형사 및 민사법원(4급심), 노동법원(3급심), 행정법원(3급심), 사회보장법원(3급심), 세무재정법원(2급심)이다. 기타 연방 헌법재판소(2개의 판사회) 및 16개 각 주 별로 헌법재판소들이 있다.

독일의 재판제도는 분권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세법, 상법 및 노동법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각각의 최고급심들이 있다. 이 최고급심들에 대한 상고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행할 수 있으나 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없다. 최고급 심의를 초과, 연방 헌법 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으나 당해 법률이 기본법에 저촉돼 있는 것을 이유로 할 경우로 국한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다른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나 각각의 최고급 심의 판결들은 다른 최고급심들을 구속하지 못한다. 각각의 최고급심의 동일 계열의 하급심에는 높은 권위의 지침을 제공하나 장래에 관하여 당해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법률의 문제에 관한 각각의 상고에 따라 관할 최고급심은 관련 법규에 관한 이전의 해석을 확인할 것인가, 더욱 발전시킬 것인가 또는 변경시킬 것인가 하는 새롭게 결정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판례가 구속력을 가진다는 원칙은 없으며, 이는 앵글로 색슨의 전통을 가지는 각국의 법률 제도와는 다르다.

4) 의회

독일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되는 양원제이다.

□ 연방하원

연방하원(Bundestag)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소선거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 형태에 의해 직선 336석, 비례대표 336석 등 총 672명으로 구성된다. 하원의 주요임무는 헌법 제정, 수상선출, 행정부 감시감독, 법안 제정 등이며, 세제 및 주 통치 문제에 관한 법안은 연방하원(Bundesrat)의 동의가 필요하다.

□ 연방상원

연방상원(Bundesrat)은 직접선거가 아닌 각주정부의 전권대표로 구성되며 각 주정부는 당연직인 주 수상을 포함한 주 대표를 연방상원에 파견하는데 각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가지며 인구 200만 이상의 주는 4개 의석 600만 이상의 주는 5개 의석, 700만 이상의 주는 6석을 배분하여 현재 69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원의 주요 임무는 입안 및 주요 법안에 대한 동의이다. 그 외 Bundestag에서 가결된 법안이 Bundesrat에서 부결될 경우는 양원의 대표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정치제도

1) 기본법

독일의 헌법에 해당되는 기본법은 1948년 5월 8일 서독지역의 주 의회와 제헌의회에서 채택되어, 1949년 5월 23일 공식 선포되었으며,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전 독일 지역에 효력을 갖게 되었다. 기본법에는 독일 국가질서의 근간으로 공화주의, 민주주의, 연방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의 5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독일의 기본법은 이러한 5대 원칙 및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의 기본적 권리 등 근간을 유지한 채 1990년대 이후 환경보전, 남녀평등, 장애인 보호가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유럽 조항 등이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연방주의
 - 독일연방공화국은 연방뿐만 아니라 연방주도 국가적 독립성을 갖는 연방국가
- 민주주의, 의원내각제
 - 기본법 제 20 조 2 항- 간접민주주의, 의회는 입법행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실행에도 참여
-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 기본법은 재산의 사회적 귀속성 및 사회화의 목적을 위한 토지, 자원, 생산수단 등의 공유화 명시

2)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

(선거 제도)

독일의 연방하원은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 원칙에 의거한 선거로 구성된다. 18세 이상으로 3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한 독일인은 모두 선거권을 가진다. 연방하원 선거 시 모든 유권자는 2종류의 기표를 하는데, 이중 제 1표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게, 제 2투표

는 정당에 대한 투표이다. 각 정당 별 하원의석의 분배는 정당지지율 (제2투표)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정당지지율 5% 이상인 정당만 의회진출이 가능하다. 현재 연방 하원의원수는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299명, 각 주 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299명, 그리고 추가 의석규정으로 선출된 5명 등 60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 제도)

□ 연방하원(Bundestag)

독일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로우나 정당의 내부조직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합치되어야 하며 자금원과 그 사용처는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합헌적이어야 한다. 독일에서 정당의 주요재원은 당원의 당비 및 기부금, 국가보조금이다. 또한 정당의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며, 정당기부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5% 규제조항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현재 기독교민주연맹(CDU), 기독교사회연맹(CSU), 독일사회민주당(SPD), 동맹90/녹색당(Gruenen), 자유민주당(FDP), 민주사회주의당/좌당(PDS/Linke) 등의 주요 정당만이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공화당(Republikaner), 독일국민연합(DVU) 등 소수정당이 원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2005년 9월 18일 제 16대 의회 선거 이후 현재 614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각 정당 별 연방하원의원의 의석분포는 아래와 같다.

- 기민당/기사당(CDU/CSU): 226 석
- 사민당(SPD): 222 석
-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Grüne): 51 석
- 자민당(FDP): 61 석
- 민사당/좌당(PDS/Linke): 54 석

□ 연방상원 (Bundesrat)

선출은 직접선거가 아닌 각 주정부의 대표로 구성, 각 주정부는 당연직인 주 수상을 포함한 주 대표를 연방상원에 파견한다. 각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가지며 인구 200만 명 이상의 주는 4개의 의석, 600만 이상의 주는 5개의 의석, 700만 이상의 주는 6석 배분 (현재 69명으로 구성)된다. 주요권한은 법률 제정권을 연방하원과 공유, 법률안 제출권, 연방정부 제출법안에 대한 심의권, 하원의결 법률안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이 있다.

(자료원: 독일 연방정부 발간 자료 및 홈페이지)

3. 주요 인사

가. 국가 원수

1) 연방 대통령: Horst Koehler

- 1943년 2월 22일생
- 기민당(CDU) 소속
- 튀빙엔대학에서 경제학 전공

- 1977년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 1981년 기민당 당원으로 가입
- 연방재무부 차관 (1990-1993)
- 독일저축은행연합 의장 (1993-1998)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의장 (1998-2000)
- 국제통화기금(IMF) 전무이사, 의장 (2000-2004)
- 2004년 7월부터 독일 연방 대통령 (2006년에도 지속)

나. 연방 각료

1) 연방총리(수상): Angela Merkel (독일 최초 여성총리)

- 1954년 7월 17일생
- 기민당(CDU) 소속
-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물리학 전공
- 1990년 기민당 당원으로 가입
- 1990년 이래 연방하원 의원
- 연방 여성, 청소년부 장관 (1991-1994)
- 연방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장관 (1994-1998)
- 2000년부터 기민당 당수
- 기민당/기사당(CDU/CSU) 연방하원 원내 의장 (2000-2005)
- 2005년 11월부터 연방총리(수상)

2) 연방 노동, 사회부장관: Franz Muentefering

- 부총리 (부수상)
- 1940년 1월 16일생
- 1966년 사민당 당원으로 가입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동, 보건, 사회부장관 (1992-1995)
- 연방 교통, 건축, 주택부장관 (1998-1999)
- 사민당(SPD) 당수 (2004-2005)
- 2005년 11월부터 연방 노동, 사회부장관 겸 부총리

3) 외무부장관: Frank-Walter Steinmeier

- 1956년 1월 5일생
- 사민당(SPD) 소속
- 기센(Giessen) 대학에서 법학 및 정치학 전공
- 연방수상실 Chef (1999-2005)
- 2005년 11월부터 연방 외무부장관겸 부수상

4) 내무부장관: Wolfgang Schaueble

- 1942년 9월 18일생
- 기민당(CDU) 소속
- 법학전공, 변호사 자격 취득 (1966-1970)
- CDU 연방하원 원내 부의장 (2002-2005)
- 2005년 11월부터 연방 내무부장관

5) 법무부장관: Brigitte Zypries

- 1953년 11월 16일생 (여)
- 사민당 (SPD) 소속
- 법학전공, 변호사 자격 취득
- 니더작센주 여성·노동·사회부 및 연방내무부 사무차관 역임 (1997-2002)
- 2002년 10월부터 연방 법무부장관

6) 재무부장관: Peer Steinbrueck

- 1947년 1월 10일생
- 사민당 (SPD) 소속
- 쾰(Kiel) 대학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학 전공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지사 (2002-2005)
- 2005년 11월부터 연방 재무부장관

7) 경제 기술부장관: Michael Glos

- 1944년 12월 14일생
- 기사당(CSU) 소속
- 1976년 이후 연방하원 의원
- 2005년 11월부터 연방 경제 기술부장관

8)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장관: Horst Seehofer

- 1949년 7월 4일생
- 뮌헨 행정 및 경제 아카데미에서 행정학 전공
- 1980년 이래 연방하원 의원
- 기민당/기사당 연립 원내 부의장 (1998-2004)
- 2005년 11월부터 연방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장관

9) 국방부장관: Franz Josef Jung

- 1949년 3월 5일생
- 기민당 (CDU) 소속
- 마인츠대학에서 법학 전공
- 2003년부터 헤센주 CDU 원내의원 의장
- 2005년 11월부터 연방 국방부장관

10)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장관: Ursula von der Leyen

- 1958년 10월 8일생 (여)
- 기민당(CDU) 소속
- 한노버 의대에서 의학 전공
- 니더작센주 사회·여성·가족·건강부장관 (2003-2005)
- 2005년 11월부터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장관

11) 보건부장관: Ulla Schmidt

- 1949년 6월 13일생 (여)
- 사민당 (SPD) 소속
- 아헨대학에서 심리학/교육학 전공
- SPD 원내의원(1990-)
- 2002년 10월부터 연방 보건복지부장관
- 2005년 11월부터 연방 보건부장관 연임

12) 교통 주택 도시개발부장관: Wolfgang Tiefensee

- 1955년 생
- 사민당 (SPD) 소속
- 1995년 사민당 당원으로 가입
- 라이프치히 시장 (1998-2002)
- 2005년 4월 라이프치히 시장으로 재선
- 2005년 11월부터 연방 교통 주택 도시개발부장관

13) 환경 자연보전 핵안전부장관: Sigmar Gabriel

- 1959년 9월 12일생
- 사민당 (SPD) 소속
- 1977년 사민당 당원으로 가입
- 니더작센주 주총리 (1999-2003)
- 2005년 10월부터 연방하원 의원
- 2005년 11월부터 연방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장관

14) 교육 및 연구부장관: Annette Schavan

- 1955년 6월 10생 (여)
- 기민당(CDU) 소속
- 바덴-뷔템베르그주 문화 청소년 스포츠부장관 (1995-2005)
- 2005년 11월부터 연방 교육 및 연구부장관

15) 경제 협력부장관: Heidemarie Wieczorek-Zeul

- 1942년 11월 21일생 (여)
- 사민당 (SPD) 소속
- 1987년부터 연방하원 의원 및 SPD 원내 유럽정치부문 대변인
- SPD 의장 대변인
- 1998년 10월부터 연방 경제협력부장관

16) 연방수상 사무처장/ 특수임무부장관: Thomas de Maizière

- 1954년 1월 21일생 (남)
- 기민당(CDU) 소속

- 뮌스터/프라이브르크에서 법학/역사학 전공
-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 주 수상청장 (1994-1998)
- 작센주 법무부 장관 (2002-2004)
- 2005년 9월 이후 연방수상 사무처장 및 특수 임무부장관

(자료원: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4. 외교관계

독일은 아래의 대외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다.

- 유럽통합과 NATO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양안의 협력체제의 강화
-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위상 제고 추진
- 인권 존중 정신에 따라 평화 및 화해를 위한 역할 구축
- 러시아, 동구권 국가 및 아.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

통일과 더불어 독일은 대외정책 수행상 제약 요소가 해소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크게 향상되었는바 경제분야에 이어 정치, 안보분야에서도 유럽의 핵심국가로 부상하였으며 구주통합 추진과 구주방위 및 대동구권 정책수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EU, G7 등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외교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독일은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대서양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개혁 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구동구권 군소국가에 대하여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는 등 동.서 양면정책을 취하고 있다. 외교노선은 EU(European Union),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를 축으로 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구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우호협력 관계도 증진하고 있다. 통일 이후 구 유고와 소말리아 내전에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중.동구 국가들의 EU, WEU, NATO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기능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중.동구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독일의 정치.외교적 역할 강화는 EU 핵심 국가인 불란서 및 영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의 정치, 경제 협력이 긴밀하여 양국 합동군도 창설, 향후 유럽통합군의 주축을 겨냥하는 등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일본, 중국,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중국의 인권문제, 동남아 국가의 경제회복 지원, 서남아 지역의 핵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 체제 참가 및 ASEM, APEC, ARF 등 다자협력체를 통해 독일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특히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문제가 독일과의 관계에서 중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외교 목표의 하나는 UN(United Nations)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2003년 1월부터 유엔 비상임 이사국인 독일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온갖 외교전을 펼친 끝에 어느 정도 지지세력을 잠정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패권주의에 공동전선을 펴온 프랑스와 러시아의 지지를 확신하고 있다.

(자료원: 독일 외무부 홈페이지)

5. 주한주재국기관

- 주한 독일대사관
 -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08-5
 - Tel : 748-4114, Fax : 748-4171
 - 홈페이지: www.seoul.diplo.de

- 부산 명예영사관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 가 83-5
 - Tel : (051) 441-4112, Fax : (051) 441-4113

- 한독 상공회의소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2 신원플라자 B/D 8 층
 - Tel : 3780-4600, Fax: 3780-4637
 - 홈페이지: www.kgccj.com

- 독일 대외무역 진흥청 (BfAI) 서울사무소
 -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2 Tel : 3780-4600, Fax : 3780-4637

- 함부르크 항만청 (Port of Hamburg) 한국대표부
 - Tel : 581-1569, Fax: 3474-0988

- 바이에른주 주정부 한국대표부 (State of Bavaria - Korea Office)
 - 서울 중구 을지로 2 가 6 번지 내외빌딩 12 층
 - Tel : 775-7436,7437, Fax : 778-1269

- 브레멘주 (Bremen) 한국 사무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
 - Tel : 527-4480~1, Fax : 527-4482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Nordrhein-Westfalen) 한국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비즈니스센터 1409 호
 - Tel : 3473-1805~6, Fax : 3473-1807

- Messe Frankfurt Korea
 -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7 층
 - Tel : 775-2280, Fax : 776-5113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정무 관련 이슈

양국 외무부간 협의 채널로, 제1차 한독 정책협의회(81.10.21)가 본에서 개최된 이래 양국 수도에서 매년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또한 2002년 이래 민간 차원에서 양국간 교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정기적으로 한독 포럼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의 한독 협회와 독일의 동아시아협회(OAV)가 주관하여 개최한다.

- 2002년 6월 Rau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창설
- 2003년 6월 베를린에서 제2차 포럼 개최
- 2004년 10월 제주도에서 제3차 포럼 개최
- 2005년 6월 함부르크에서 제4차 포럼 개최

나. 과학기술협력 관련 이슈

한국 정부는 정부차원의 협력 창구 구축을 위해 2002년 11월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BMBF)와 한·독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협의하였으며, 2003년 제1차 위원회가 본에서 개최되었다.

- 2003년 12월 본에서 제1차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
 - 주요의제: 항공우주, 핵융합, 나노기술, 환경기술 분야 협력, 이공계 대학교육협력 등
- 2004년 10월 서울에서 제2차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
 - 주요의제: 연료전지, 신약개발, 나노기술, 환경분야 협력, 2005년 한국의 해 행사 지원 등

다. 문화교류 관련 이슈

1970년 8월 16일 체결된 한·독 문화협정에 근거하여 양국간 문화관계 협력 강화 및 양국민간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독 문화공동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75년 3월 본에서 제1차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 이래 매 2~3년마다 양국 수도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으며 2004년 9월 제9차 회의가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한·독 양국은 제9차 한·독 문화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이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되고 2005년 베를린 아·태주간행사에서 포커스국가로 초청된 것을 계기로 2005년을 “한국의 해”로 정하고 다각적인 문화, 경제교류 행사를 개최기로 합의했으며 2005년 다양한 문화 및 경제 행사가 개최되었다.

라. 경제 통상 관련 이슈

독일은 한국의 6대 수출대상국 (유럽 중 1위)이며 최근 수출호조로 한국의 수출에서 독일 비중이 증가 추세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선박, 영상기기, 평면디스플레이 등이다.

독일은 한국의 5대 수입국 (유럽 중 1위)이었으나 금년 들어 호주에 뒤져 6위수입국을 기록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기계, 화학원료 등이다.

2005년 아태주간행사(Asia-Pazifik Woche)에서 한국이 포커스국가로 선정되었다. 아태주간 행사는 베를린에서 격년으로 아태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경제 및 문화 소개 행사이다. 2005년 9월 이 행사에 한국이 포커스국가로 초청되었다.

이외에도 2005년은 ‘한국의 해’ 로 4월 아국 산자부장관은 30여 개의 중소기업 소위 ‘테크노 캐러반’ 을 이끌고 베를린을 방문하여, 한·독 중소기업간의 활발한 기술수출입, 합작투자, OEM, 전략적 제휴, 제품수출, 공동연구개발 등 관련 상거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독 양국은 향후 테크노 캐러반과 같은 행사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간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매년 ‘테크노 캐러반’ 과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노력하자는 아국 산자부와 독일 경제노동부간 협의가 있었다.

(자료원: 주독 한국대사관, 무역관 자체 조사)

II . 경제

7. 경제정책

2005년 11월에 출범한 독일 대연정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을 재정적자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는 대연정 정부는 2006년 경제정책을 재정적자 감축과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연정 합의사항에 의하면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대부분을 세수확대와 각종 보조금 및 사회보험혜택 삭감을 통해 단행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조세 및 재정정책으로 2007년부터 마스트리트 기준정부 부채 한계선인 3%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연정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변경내용 및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 및 재정정책

- ①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 16%에서 19%로 인상, 식료품, 책, 신문에 대한 부가세는 현 상태 유지 (7%)
- ② 보험세 16%에서 19%로 증가
- ③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42%에서 3% 추가 인상(독신: 연간수입 25만유로 이상, 기혼: 50만 유로 이상)
- ④ 연금 2007년부터 19.5%에서 19.9%로 인상, 고소득자는 10.50%.

- ⑤ 주식, 토지에 관한 세금 20% 부과
- ⑥ 공기업 민영화
- ⑦ 자택지원금 삭제
- ⑧ 기업세 개혁: 중소기업에 대한 감가상각액 20%에서 30%로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혜택
- ⑨ 행정절차 간소화
- ⑩ 양육비, 수리비에 대한 세금 공제 등

2007년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인상으로 정부의 추가 세수는 2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의 3분의 2를 재정적자를 충당하는데 3분의 1을 사회보장금 분담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부가세인상은 물가상승을 불러오며 이는 또한 금리상승과 투자부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과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경우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 노동정책

대연정의 노동정책은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임금부대비율을 장기적으로 41%에서 40%이하로 낮추며, 실업보험금을 2%p 감축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가능하도록 했으며 실업급여(Hartz IV) 개혁제도가 개선돼 이에 대한 추가 예산이 38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가세 인상과 2006년 6월부터 실업자에게 자영업 시 지급되는 보조금 삭제는 저소득층을 어렵게 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임금부대비율을 낮춰 빈부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www.bundesfinanzministerium.de), Handelsblatt, FAZ, Money Magazin, www.gruene-bundestag.de)

* 참고: 2006년 8월 31일 기준, 독일 정부 작년 말 출범 후 현재 경제 정책 기조 유지하고 있음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성장

독일의 6대 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2006년 춘계 보고서(독일 연방정부의 지시 하에 발표되는 독일 6대 연구소의 경제전망 공동보고서는 춘계와 추계, 매년 2회 발표되며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전망 보고서임)에 의하면 설비투자 증가와 계속되는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2006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1.8%로 전망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2006년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가 특히 제조 및 상업분야에 성장세를 불러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7년에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 감소로 2007년 경제성장률은 1.2%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유가상승으로 증가했던 인플레이션은 다소 안정세를 보여 2006년 인플레이션이 1.6%로 전망되고 있다. 2007년에는 부가세 인상을 주원인으로 하여 인플레이션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나. 민간소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을 주원인으로 하여 민간소비가 여전히 미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부가세 3%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2006년에 앞당겨 소비하려는 추세이다. 앞당겨지는 소비규모는 3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경기회복이 원동력이 되어 2006년 민간소비가 0.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소득에 대한 국민 저축비율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2006년으로 앞당겨진 소비로 인해 2007년 민간 소비는 2006년 대비 0.1% 감소하여 소비위축이 내수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 설비투자

이자율이 낮고 주가가 높은데다 또한 국내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내수시장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 위주 업체의 수익률 증가로 인한 국내 투자 활성화도 설비투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2006년 설비투자 성장률이 5.5%, 2007년에는 5.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수출 다음으로 독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07년 부가세 인상으로 특히 가계에서의 건설투자가 2006년으로 앞당겨지는 추세이다. 2006년 건설투자 성장률은 1.2%, 2007년은 0.9%로 전망된다.

라. 수출동향

3년 연속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온 수출 시장은 독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달러대비 유로환율 하락 그리고 유럽 내 경기상승으로 2006년에는 8.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과 북미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수출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도 수출이 독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의 경우 2006년에 7.4% 성장률을, 2007년에는 6.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마. 고용시장

경기회복으로 인해 고용시장 또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6년 1분기 11.4%였던 실업률은 2006년 평균 10.6%, 2007년 10.2%일 것으로 예측된다. 2006년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28만 명 감소한 458만 명일 전망이고 2007년에는 444만 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16% 기업이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수출 붐을 맞고 있는 의약, 기계분야에서 채용을 늘릴 전망이어서 고용시장 역시 수출업체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2005	2006*	2007*
GDP 증가율(%)	0.9	1.8	1.2
민간소비 증가율(%)	-0.7	0.4	-0.1
설비투자 증가율(%)	4.0	5.5	5.3
건설투자 증가율(%)	-3.4	1.2	0.9
수출 증가율(%)	6.3	8.2	6.6
수입 증가율(%)	5.3	7.4	6.2
경상수지(10억유로)	92.2	98.2	110.5
인플레이션 증가율(%)	2.0	1.6	2.5

자료원 : 독일 6대 연구소 춘계 보고서, 독일상공회의소 (DIHK)

주 : 2006년, 2007년은 전망치

9. 주요 산업 동향

가. 자동차산업

독일 주요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산업은 생산과 수출에 있어 2006년 다시금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상반기 승용차 수출은 전년도 동기대비 4%가 성장했으며 승용차 생산은 동기대비 2%의 증가율을 보였다. 6톤 이상의 화물차 생산의 경우 동기대비 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6년에도 독일 및 유럽 자동차시장은 거의 포화상태로 뚜렷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에는 유럽에서 독일차량메이커 중 BMW와 아우디가 시장점유율과 신규 인가량 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독일자동차시장은 2007년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인상으로 차량을 미리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 매출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한 증가폭이 매우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화학산업

2006 년 상반기 화학산업 생산은 전년도 동기대비 3.5% 성장했다. 순정(純正)화학제품 및 특수화학제품 생산이 전년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유기 원료 생산은 전년도 동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소비재인 세척 및 신체위생용품의 생산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화학제품의 가격은 2006 년 상반기에 전년도 동기대비 3%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동기대비 6% 상승했다. 또한 2006 년 한 해 동안의 화학분야 생산은 전년대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산업은 이렇게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높은 해외수요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상승이 가격에 반영돼 수익률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다. 기계산업

독일 기계산업은 예외적으로 3 년째 연속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기록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독일기계산업의 이러한 성장세는 내수의 현저한 증가뿐 아니라 주요 수출국인 EU 국가의 수요증가와 러시아, 인도, 중앙아시아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인도, 중앙아시아에서는 경쟁심화와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06 년 1 월에서 5 월까지의 기계 및 설비 생산은 전년도 동기대비 8% 성장했다. 또한 왕성한 수요로 인해 2006 년 한 해 기계산업분야의 생산이 전년대비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 년 동분야 매출액은 전년대비 4.4% 증가해 1,440 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라. 정보통신산업

신기기와 신기술의 대량생산시장 진출이 독일 정보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Smart-phone, RFID, 평면 TV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정보산업이 독일의 정보통신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2006 년 3.4% 성장하여 705 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잠재 전망된다. 통신산업의 경우 1.2%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5 년에 전년 대비 2.2% 증가한 정보통신분야 하드웨어와 시스템의 무역은 2006 년 한 해 동안 다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 년 4 월까지의 하드웨어 수출은 전년도 동기대비 6% 증가했으며 통신분야 최종기기와 시스템은 동기대비 10% 상승했다.

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수입이 현저히 성장하여 전년도 동기대비 수입 증가율이 88%에 달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수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데 성장률이 무려 113%를 기록했다.

마. 전기, 전자산업

2006 년 1 월에서 5 월까지 독일 전기, 전자산업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대비 6% 증가했다. 2006 년 5 월 한달 동안의 수주량은 전년도 동월대비 16% 증가했는데 1 월에서 5 월까지 총 수주량은 전년도 동기대비 12%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기전자분야의 수출은 2006 년 1 월에서 5 월까지 전년도 동기대비 11% 성장하여 470 억 유로의 신기록을 세웠다.

2006 년에는 2000 년 이래 처음으로 내수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2006 년의 전체 성장률은 여전히 해외시장에서의 큰 강세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2006 년 전기, 전자산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7 년에는 이런 성장률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 전자분야는 품목에 따라 큰 성장률 차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계속되어 2004 년에는 가격평균 2%, 2005 년에는 3% 하락했다.

바. 약품산업

독일의 약품산업은 경기에 좌우되기보다는 각각의 기업에 따라 매출액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독일 주요 약품회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혁신제품 및 신제품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여서 전체적으로 독일 약품산업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2006 년 제약 생산은 2005 년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독일산업협회 (BDI), FAZ)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독일 경제부 사이트

경제정책, 주요 산업별 정보, 무역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주/시	기관명	사이트명
Berlin (연방경제부)	Wirtschaftsministeriu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ww.bmwi.de
Bonn (연방경제부)	Wirtschaftsministeriu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ww.bmwi.bund.de
Baden- Württemberg	Wirtschaftsministerium Baden- Württemberg	www.wm.baden-wuerttemberg.de
Bayern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Wirtschaft, Verkehr	www.invest-in-bavaria.de
Brandenburg	Ministerium für Wirtschaft des Landes Brandenburg	www.wirtschaft.brandenburg. de/sixcms/list.php
Hamburg	Behörde für Wirtschaft und Arbeit des Bundeslandes Hamburg	www.hamburg.de
Hessen	Wirtschaftsministeriu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ww.hessen.de/wirtschaft

Mecklenburg-Vorpommern	Wirtschaftsministerium Mecklenburg-Vorpommern	www.MVnet.de/inmv/land-mv/wm
Niedersachsen	Niedersächsisches Ministerium für Wirtschaft, Technologie und Verkehr	www.mw.niedersachsen.de/home/
Nordrhein-Westfalen	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Arbeit Nordrhein-Westfalen	www.mwa.nrw.de
Rheinland-Pfalz	Ministerium für Wirtschaft, Verkehr, Landwirtschaft und Weinbau des Landes Rheinland-Pfalz	www.mwvlw.rlp.de/start/index.asp
Saarland	Ministerium für Wirtschaft des Saarlandes	www.saarland.de www.saarland.de/wirtschaft_zwischenseite.html
Sachsen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Arbeit	www.smwa.sachsen.de
Sachsen-Anhalt	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des Landes Sachsen-Anhalt	www.mw.sachsen-anhalt.de
Schleswig-Holstein	Ministerium für Wirtschaft, Technologie und Verkehr des Landes Schleswig-Holstein	www.schleswig-holstein.de www.schleswig-holstein.de/landsh/landesreg/min_wirtschaft/wirtschaft.html
Thüringen	Thüringer Ministerium für Wirtschaft, Technologie und Arbeit	www.th-online.de

나. 주요 산업협회

산업분야별 관련자료 및 시장동향 자료제공

기관명	사이트명
독일 산업협회(독일 산업별 조합의 중앙기관)	www.bdi-online.de
전자산업협회	www.zvei.org
정보통신협회	www.bitkom.org
기계산업협회	www.vdma.de
자동차산업협회	www.vda.de
우주항공산업협회	www.bdli.de
화학산업협회	www.chemische-industrie.de
제약산업협회	www.bpi.de/
건설협회	www.bauindustrie.de
태양에너지 산업협회	www.solarindustrie.com
섬유산업협회	www.gesamttextil.de

다. 언론기관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산업동향, 기업현황, 상품정보, 경제정책 정보 등을 제공

- Handelsblatt(경제신문/일간지) : <http://www.handelsblatt.com>
- Financial Times Deutschland(경제신문/일간지) : www.ftd.de
- Süddeutsche Zeitung(일간지) : www.sueddeutsche.de
- Frankfurt Allgemeine Zeitung(일간지) : <http://www.faz.net>
- Die Welt(일간지) : www.welt.de
- Wirtschaftswoche (경제주간지) : www.wiwo.de

라. 독일 경제 연구소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무역동향, 경기동향, 주요 경제이슈 정보 제공

-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 www.diw-berlin.de
- Institute für Wirtschaftsforschung (Ifo) : www.ifo.de
- RWI Essen : www.rwi-essen.de
- Hamburg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HWWA) : www.hwwa.de
- Institute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IWH) : www.iwh-halle.de
- Institute für Weltwirtschaft in Kiel (IfW) : www.uni-kiel.de/ifw
- Institute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IW) : www.iwkoeln.de

마. 기타 자료원

- Deutsche Bundesbank (독일 연방중앙은행) : www.bundesbank.de
 - 독일경제동향, 주요경제지표 및 통계, 환율동향, 투자통계 등 정보제공
-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 (연방상공회의소) : <http://www.dihk.de/>
 - 경기동향 및 전망, 경제지표, 세무회계 및 재무, 수출지원제도, 수출보험, 관세, 세미나 등 광범위한 정보제공
-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연방통계청) : www.destatis.de
 - 주제분류별 각종통계 검색가능
- Invest in Germany (독일 투자청) : www.invest-in-germany.de
 - 독일 산업입지 정보, 각종 투자정보 외에도 최신 산업동향 정보제공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주요지표	2002	2003	2004	2005	2006*
GDP(십억유로)	2,145.02 (1.5)	2,163.4 (0.86)	2,215.65 (2.4)	2,245.50 (1.34)	2,302.70 (2.50)
1인당 GDP(유로)	26,006	26,217	26,856	27,230	-
경제성장률(%)	0.2	-0.1	1.6	0.9	1.4-1.9
인플레이션(%)	1.6	1.1	1.6	2.0	2.1
실업률(%)	5.8	10.5	10.2	11.0	10.5
수출(백만 유로)	651,320 (2.0)	664,455 (2.0)	731,544 (10.1)	782,752 (7.0)	832,065 (6.3)
수입(백만 유로)	518,532 (-4.5)	534,534 (3.1)	575,448 (7.7)	618,606 (7.5)	655,723 (6.0)
재정수지(GDP 대비, %)	-3.6	-3.9	-3.7	-3.5	-3.1
무역수지(GDP 대비, %)	2.2	2.1	3.8	4.0	4.2
환율(\$/EURO)	0.945	1.132	1.2439	1,2441	1,296
예금이자율(%)	2.21	1.24	1.00	1.02	-

자료원: RWI 경제연구소, 연방통계청, HWWI, Deutsche Bundesbank, EUI

주: 2006년도 수치는 잠정치임

12. 무역통계

獨, 무역수지

(단위: 백만 유로)

연도	수입	증감율(%)	수출	증감율(%)	무역수지
1990	293,215	+13.2	348,117	+6.2	+54,902
1991	329,228	+12.3	340,425	-2.2	+11,197
1992	325,972	-1.0	343,089	+0.8	+17,117
1993	289,644	-11.1	321,289	-6.4	+31,645
1994	315,444	+8.9	353,084	+9.9	+37,640
1995	339,617	+7.7	383,232	+8.5	+43,615
1996	352,995	+3.9	403,337	+5.3	+50,382
1997	394,794	+11.8	454,342	+12.6	+59,548
1998	423,452	+7.3	488,371	+7.5	+64,919
1999	444,797	+5.0	510,008	+4.4	+65,211
2000	538,311	+21.0	597,440	+17.1	+59,129
2001	542,774	+0.8	638,268	+6.8	+95,494
2002	518,532	-4.5	651,320	+2.0	+132,788
2003	534,534	+3.1	664,455	+2.0	+129,921
2004	575,448	+7.7	731,544	+10.1	+156,096
2005	625,632	+8.7	786,186	+7.5	+160,554
2006(1-6)	354,064	+19.0	431,507	+12.9	+77,443

자료원: 연방통계청

獨, 2005년 교역 대상국 별 수출입

(단위: 백만 유로)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수출국가	수출액
1.	프랑스	54,627.2	프랑스	79,871.1
2.	네덜란드	53,371.5	미국	69,310.9
3.	미국	41,342.2	영국	61,681.2
4.	중국	39,890.6	이탈리아	54,373.5
5.	영국	39,413.7	네덜란드	47,798.9
6.	이탈리아	35,588.9	벨기에	43,926.5
7.	벨기에	31,107.3	오스트리아	42,532.7
8.	오스트리아	25,291.8	스페인	40,394.6
9.	스위스	23,283.3	스위스	29,578.8
10.	러시아	21,621.0	폴란드	21,908.9
11.	일본	21,434.7	중국	21,280.0
12.	스페인	17,984.9	체코	18,841.5
13.	체코	17,646.5	러시아	17,281.5
14.	폴란드	16,092.5	스웨덴	17,237.9
15.	아이랜드	15,431.4	헝가리	13,581.2
16.	노르웨이	14,999.1	일본	13,330.3
17.	헝가리	14,332.2	터키	12,803.4
18.	스웨덴	11,307.6	덴마크	12,324.5
19.	덴마크	9,570.4	핀란드	8,227.9
20.	한국	9,051.4	포르투갈	7,423.9
21.	터키	8,259.6	한국	7,095.2

자료원: 연방통계청(업데이트 2006년 8월)

참고: 현재 2005년 통계가 최신 통계임.

2005년, 독일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품목	2005	비중(%)
1.	차량	177,334	22.56
	- 자동차, 자동차부품	150,865	19.19
	- 기타 차량	26,469	3.37
2.	기계	110,946	14.11
3.	화학제품	102,830	13.08
4.	철강, 철제품	41,079	5.23
5.	전기기기	38,911	4.95
6.	TV, 방송기기, 통신기기, 전자부품	36,835	4.68
7.	의료, 측량, 제어, 광학기기, 시계	32,960	4.19
8.	식료품	27,412	3.49
9.	고무, 플라스틱제품	25,082	3.19
10.	메탈	24,411	3.10

자료원: 연방통계청(업데이트 시기: 2006년 8월)

참고: 현재 2005년 통계가 최신 통계임.

2005년, 독일 주요 교역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품목	2005	비중(%)
1.	차량	88,725	14.18
	- 자동차, 자동차부품	63,905	10.21
	- 기타 차량	24,820	3.97
2.	화학제품	70,461	11.26
3.	석유, 가스	51,759	8.27
4.	기계	42,072	6.72
5.	TV, 방송기기, 통신기기, 전자부품	39,733	6.35
6.	철강, 철제품	37,505	6.00
7.	사무기계, 데이터처리기계 및 장치	28,821	4.60
8.	식료품	28,136	4.50
9.	전기기기	25,144	4.00
10.	의료, 측량, 제어, 광학기기, 시계	17,167	2.70

자료원: 연방통계청

참고: 현재 2005년 통계가 최신 통계임.

한독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유로, %)

	2003	2004	2005	2006(1-3)*
독일의 총 수출액	664,395	731,482	780,236	213,201
대한 수출액	5,462	6,232	6,732	1,888
비중(%)	0.82	0.85	0.86	0.89
독일의 총 수입액	534,489	575,403	622,193	174,260
한국으로부터 수입액	5,163	7,083	8,289	2,010
비중(%)	0.97	1.23	1.33	1.15
무역수지	299	-851	-1,567	-122

자료원: World Trade Atlas/EUROSTAT

참고: 현재 2006년 1분기 통계가 최신 통계임

독일의 대韓 주요 수입 상품

(단위: 백만 유로)

순위	품목 (HS Code)	2005	비중(%)	2006(1-3)	비중(%)
1.	전기기와 그 부분품 (85)	4,344.609	52.42	1,113.454	55.39
2.	기계 (84)	1,564.728	18.88	351.681	17.49
3.	차량 (87)	964.676	11.64	215.543	10.72
4.	선박 (89)	332.262	4.01	20.731	1.03
5.	광학제품 (90)	129.224	1.56	61.284	3.05
6.	고무제품 (40)	115.172	1.39	31.023	1.54
7.	플라스틱제품 (39)	95.211	1.15	26.831	1.34
8.	귀금속제품 (71)	77.175	0.93	16.518	0.82
9.	니트류 (61)	69.585	0.85	23.871	1.19
10.	유기화학제품 (29)	60.995	0.74	16.840	0.84

자료원: World Trade Atlas/EUROSTAT

참고: 현재 2006년 1분기 통계가 최신 통계임

독일의 대韓 주요 수출 상품

(단위: 백만 유로)

순위	품목 (HS CODE)	2005	비중(%)	2006(1-3)	비중(%)
1.	기계류(84)	1,906.894	28.33	522.432	27.67
2.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85)	1,092.029	16.22	253.671	13.44
3.	자동차 및 그 부분품(87)	920.779	13.68	320.277	16.96
4.	광학제품(90)	664.347	9.87	180.979	9.59
5.	유기화학제품(29)	369.685	5.49	116.099	6.15
6.	플라스틱제품(39)	216.306	3.21	65.924	3.49
7.	화학제품(38)	154.629	2.30	47.895	2.54
8.	금속제품(71)	173.452	2.44	14.271	0.76
9.	철강제품(73)	123.053	1.83	38.344	2.03
10.	의약품(30)	103.524	1.54	31.377	1.66

자료원: World Trade Atlas/EUROSTAT

참고: 현재 2006년 1분기 통계가 최신 통계임

13. 투자통계

- 독일의 대한투자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45% 증가한 102건 7억 5백만 달러의 투자 성약을 달성 (신고기준)
- 독일은 네덜란드에 이은 유럽 2위의 대한 투자국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일본, 네덜란드, 말레이시아에 이은 5위의 대한 투자국임.
- 주요투자사례
 - 알리안츠생명(8.1억불), 외환은행(6.3억불), 쌍용제지
 - (2.5억불), 한국BASF(5억불), 티센크롭-동양엘리베이터(1.8억불)
- 2005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 Siemens의 다산네트워크스 투자, DEKA Bank 부동산 개발투자, Deutsche Bank 부동산 개발투자, Schott사의 그린필드 투자

우리나라의 대독일 투자유치현황

(단위: US\$백만, 건수)

2003		2004		2005		2006(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8	370	95	487	102	705	46	332

자료원: Invest Korea, 산업자원부 (업데이트 시기 2006년 8월)

* 참고: 2006년 8월 31일 기준 현재 2006년 상반기 통계가 최신 통계임.

우리나라의 대독일 투자진출현황

(단위: US\$백만, 건수)

2003		2004		2005		2006(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	28	17	206	17	40	14	26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신고기준(업데이트시기 2006년 8월)

* 참고: 2006년 8월 31일 기준 현재 2006년 상반기 통계가 최신 통계임.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특성

서유럽의 해양성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형이다. 서부는 전반적으로 북해의 영향을 받아 해양성 기후를 보여 높은 위도에 비해 온난습윤하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면 대륙성으로 바뀐다. 따라서 동부에서도 대륙성 기후를 보여 강수량도 적다. 기온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7-10도 수준이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저지대는 섭씨 1.5도, 남쪽의 산악지대는 영하 6도이며 여름철 평균기온은 섭씨 16-20도 사이이다. 따라서 한국에 비해 겨울에는 덜 춥고 여름에는 덜 덥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비와 안개가 많으며 여름철에는 건조하다. 평균적으로는 한국에 비해 햇볕이 적어 여름철 휴가는 햇볕이 많은 곳을 선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독일 평균기온은 다소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독일 평균기온

(단위: °C)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9	-1,1	3,6	9,2	12,7	16,3	18,0	16,5	15,0	11,2	4,2	0,6
2006년	-2,6	-0,4	1,5	7,4	12,1	16,7	21,9					

자료원: DWD(독일기상청)

나. 출장 시 추천복장

사계절이 한국과 비슷하므로 한국 기준으로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겨울에는 우기여서 비가 거의 매일 오므로 외투와 우산을 준비해야 하며 여름에도 8월 중순 이후에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므로 긴 팔(점퍼 등)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8시간으로 한국이 24:00시일 때 독일은 16:00이다.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토요일까지는 썸머타임을 실시하여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으로 줄어든다.

나. 근무시간

일반직장의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은 08:00-17:00가 많으나, 직장이나 개인에 따라서 좀더 일찍 시작하고 빨리 끝나는 경우도 많다. 금요일에는 평일보다 1-2시간 빨리 종료하는 것이 보통이다.

관공서는 08:00-12:00까지만 대민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요일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은행 개점시간은 08:30-13:00, 14:30-16:00이나 은행에 따라서는 화요일, 목요일오후 18:00까지 개점하는 곳도 있다.

상점들의 개폐점 시간은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일반상점은 2003.6.1일부터 평일과 토요일 모두 08:00-20:00로 변경되었다. (기존 토요일 개점시간 08:00-16:00) 그러나 작은 상점은 폐점 시간보다 1-2시간 앞당겨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 단, 대도시의 중앙역이나 공항 내의 슈퍼마켓, 상점, 그리고 주유소 간이 매장은 개폐점 시간에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통 23시까지 영업을 하며 대형 유통점의 경우에도 점점 개점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제과점 역시 신선한 빵 제공을 위해 일요일 오전 영업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3. 도량형

가. 도량형

거리는 미터법, 무게는 kg을 사용하고 있다.

나. 전기규격

일반 가정 및 사무실은 230V, 50Hz를 사용하고 있다.

다. 시간 표시법

정오 이후의 시각은 일반적으로 13시, 14시, 15시 등으로 표현한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4. 출입국/비자

가. 비자

2005년 1월 발효된 상호 비자면제협정에 의하여 3개월 미만 관광목적으로 체류 시 비자가 면제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혹은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체류 시에는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 발급 업무는 독일 현지 외국인 청에서 담당한다. 별도의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하여 비자 취득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비자발급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주재원들의 경우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독일 내 취업 시는 비자 외에 노동 허가증 (Arbeitserlaubnis)이 필요하며 부임 후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자 발급 시 구비서류

- 국내 신청시: 비자신청서, 호적등본, 여권, 사진 2 매
- 독일내 신청시: 거주신고서 사본, 체류허가신청서, 여권, 사진 2 매(성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외국인청에 출두 신청)

2) 비자발급처

- 독일에서 비자 신청 시 : 각 거주지역의 외국인청
- 한국내에서 신청할 시 : 주한 독일 대사관
 - 주 소 :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08-5
 - 전 화 : 02-748-4114, 팩스 : 02-748-4161
 - 휴 일 : 토, 일요일, 독일 및 한국 공휴일
 - 업무시간 : 월-목 09:00-12:00, 금 08:30-11:30
 - 소요일수 : 6-8 주
 - 소요비용 : 30,000 원 (환율변동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나. 출입국 절차

출입국시 특별한 절차는 없다.

입국 시 입국심사-세관의 순서로 절차를 밟으며 입국 심사 시 EU와 비EU국을 구분하여 여권을 검사한다. 짐 검사는 신고할 물건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분하여 검사대를 설치해 놓았으나 보통 검사 없이 입국하고 있다. 입국에 따른 예방접종은 필요 없다. 최근 전시회 개최 시 전시품을 핸드 캐리하는 참가업체가 많아 짐에 따라 일반인들의 검색도 심해지기도 한다. 특히 주의사항은 담배에 대한 통관 시 검사가 철저하여 1보루 이상 소지 시 관세 대상임을 주지하기 바람.

(자료원: 주한 독일 대사관, 무역관 보유자료)

5. 환율/환전

화폐단위는 유로 (Euro)로서 약칭은 EUR이며, 1유로는 100 센트이다. 지폐에는 5, 10, 20,

50, 100, 200, 500 액권이 있으며, 이중에서 10, 20, 50유로 지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0유로 및 500 유로 지폐는 대부분 상점에서 잘 받지 않는다. 주화에는 1, 2, 5, 10, 50 센트가 있다. 2002.1.1부터 유로화가 공용화폐로 전면 도입,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 마르크화는 2002. 2. 28까지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기존 마르크화를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은 독일 연방은행이나 주정부은행에서 유로화로 환전할 수 있고 특히 독일의 경우 미국달러가 통용되지 않으며 환전시 환전수수료가 매우 비싸 미리 유로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06년 6월8일 현재 1 유로화당 달러환율은 1.2854이다.

2003년도 유로화 대 달러 월별 평균환율

월	평균환율
1월	1.0622
2월	1.0773
3월	1.0807
4월	1.0848
5월	1.1582
6월	1.1663
7월	1.1372
8월	1.1139
9월	1.1222
10월	1.1692
11월	1.1702
12월	1.2286

2004년도 유로화 대 달러 월별 평균환율

월	평균환율
1월	1.2613
2월	1.2646
3월	1.2262
4월	1.1985
5월	1.2007
6월	1.2138
7월	1.2266
8월	1.2176
9월	1.2218
10월	1.2490
11월	1.2991
12월	1.3408

2005년도 유로화의 대 달러 월별 평균환율

월	평균환율
1월	1.3119
2월	1.3014
3월	1.3201
4월	1.2938
5월	1.2694
6월	1.2165
7월	1.2037
8월	1.2292
9월	1.2256
10월	1.2015
11월	1.1785
12월	1.1856

2006년도 유로화의 대 달러 월별 평균환율

월	평균환율
1월	1.2103
2월	1.1938
3월	1.2020
4월	1.2271
5월	1.2744
6월	1.2630
7월	1.2653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또는 거리의 환전소에서 할 수 있으나 정식 은행을 통해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공항도착 시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다. 일부 은행에서는 100불 이상의 고액권에 대해서는 환전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환전한 현지화가 부족할 경우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율에서 유리하다.

(자료원: 독일 연방은행(www.bundesbank.de), 무역관 자체조사)

6. 물가정보

□ 도시 : 프랑크푸르트(독일)			- 환율 : US\$1 = 0.8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618.93	7.1	구두(1켤레, 소가죽)	116.94
1.2	넥타이(1개, 실크100%)	57.33	7.2	치약(150g, 1개)	4.63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139.23	7.3	칫솔(1개)	2.28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9.36	7.4	면도기(1세트)	9.69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228.5	7.5	건전지(1세트, 1.5V AA)	2.88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15.21	7.6	화장지(1통, 300매)	4.73
1.7	청바지(Levi's)	105.3	7.7	비누(1개)	0.99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19.87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92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7	8.2	볼펜(12개)	3.22
2.3	닭고기(1KG, 생닭)	8.57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7.35
2.4	쌀(1KG, Short Grain)	3.94	8.4	공CD(1통, 12개입, 700MB)	9.81
2.5	밀가루(1KG)	1.46	8.5	휴대폰(범용형)	263.25
2.6	설탕(1KG, 백설탕)	1.56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11.64
2.7	계란(10개)	2.34	8.7	인터넷가설비 (1회최초, 1회설치)	116.94
2.8	감자(1KG, 현지산)	1.79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23.38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1.34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5,740
3.1	고추장(1Kg)	7.31	9.2	엔진오일(1L)	14.04
3.2	된장(1Kg)	4.17	9.3	휘발유(1L)	1.46
3.3	라면(1개)	0.99	9.4	자동차등록비(2,000cc)	42.1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 등)	9.71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462.5
3.5	불고기(1인분, 200g)	18.72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23.4	10.1	지하철(1구간)	1.98
3.7	김치찌개(1인분)	17.55	10.2	시내버스(1구간)	1.98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2.57
4.1	햄버거(1개)	3.21	10.4	택시(추가요금/Km)	1.75
4.2	피자(1판)	15.56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87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70.14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4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29.17
4.5	담배(수입산, 1갑)	5.14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3.48
4.6	위스키(1병, 750ml)	27.48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35
4.7	커피(1병, 175g)	3.58	11.5	국제전화 (현지-서울, 3분, 평상)	0.28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64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2,106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1.81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2,925	11.8	특급우편(DHL 1개, 1Kg이하, 현지-서울)	64.35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2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8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3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1.53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05

6.1	TV(29인치, 칼라, 범용)	351		
6.2	VTR(6헤드, 범용)	116.98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93.58		
6.4	전자레인지	93.6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817.83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936		

□ 도시 : 프랑크푸르트(독일)			- 환율 : US\$1 = 0.8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28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없음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3,334.5	18.2	상여금(월 급여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1,755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대비%, 연간)	40%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6,38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7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6,965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4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7,514.9	18.6	연간국경일	11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70.2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4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20,358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37.5시간
13.3	골프공(1타)	32.76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526.5	19.1	법정최저자금	29,250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3.4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5,265
13.6	영화관람료 1회 (개봉관, 성인최신)	9.36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7,02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3.75%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152.1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없음			
14.4	치과(스켈링, 1회)	117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4.99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63.18			
15.2	한국신문(1개월)	83.07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19.92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4.62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57.4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62.63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28.7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81.9			
16.5	조식 (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35.1			
16.6	조식 (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3.4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2,925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2,106			

7. 교통/통신

가. 교통

1) 우리나라와의 교통

서울 - 프랑크푸르트간 대한항공이 주 7회, 아시아나 항공이 주 4회, Lufthansa가 주 7회 Non-Stop 직항로로 각각 운항되고 있다.

Frankfurt → 인천

기 편	일 시	출발요일	도착시간(익일)
LH 712	17:55	매일	11:25+1
KE 906	19:45	매일	13:00+1
OZ 542	19:00	월, 수, 금, 일	12:15+1

인천 → Frankfurt

기 편	일 시	출발요일	출발시간(당일)
LH 713	14:00	매일	18:35
KE 905	13:35	매일	17:35
OZ 541	12:40	월, 수, 금, 일	17:00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면 동 공항에서 독일 각지로 항공편, 기차편으로 각각 연결되며 대한항공은 Frankfurt 공항 제2청사 착발, 아시아나 항공과 Lufthansa는 Frankfurt 공항 제1청사에서 착발한다.

이외에도 독일의 이웃 국가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리, 암스터담 등 제3국을 경유하게 되며, 시간은 약 5~6시간 정도 더 소모된다.

주요 직항 및 3국 경유 항공사 리스트

항공사	연락처 (한국내)	홈페이지
Korean Airlines 대한 항공	032-742-2620	http://kr.koreanair.com
Asiana Airlines 아시아나 항공	032-744-2132~3	http://flyasiana.com
Lufthansa 루프트한자 항공	032-744-3400	www.lufthansa.com
KLM 네덜란드 항공	032-744-6700~1	www.klm.co.kr
Air France 프랑스 항공	02-3483 1033	www.airfrance.co.kr

2) 국내교통

□ 철도

독일의 각 도시가 95년 민영화된 연방철도 주식회사 (DB AG)의 철도로 연결된다. ICE, IC 등이 주요도시를 운행하며, 철도요금은 한국의 약 3-4배이다. 만원인 경우가 전무하며, 언제나 즉시 구입이 가능하며, 좌석표가 아니다. 좌석은 별도로 예약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저렴한 주말 티켓(Schoenes Wochenende Ticket) 한 장으로 저렴하게 준급행급 이하의 모든 열차 (RE, RB, SE, S)를 단독 또는 공동(최고 5명까지)으로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은 27시간 (토요일 또는 일요일 0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이다.

가격은 인터넷 또는 티켓 자판기에서 구입할 경우 한 장에 30유로이며, 역전 창구에서 구입할 경우 32유로이다. 때에 따라 기차 안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나(30유로 플러스10%=33유로), 최근 들어 많은 지역에서 기차 내에서 탑승권 구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 지역의 경우 기차표 없이 탑승하면 불법으로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차표를 미리 구입(적어도 3일전에는 구입해야 함)거나 Surf & Rail 등 인터넷으로 예약할 경우 기차표가 25%-50%까지도 할인된다.

□ 자동차

독일은 전체구간의 약 50%가 속도제한 없는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통해 각 지역이 연결되며, 1일 약 150~200유로로 2,000cc급 자동차를 보험료를 포함하여 렌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오면 되며, 신용카드가 있어야만 렌트가 가능하다. 독일의 고속도로에는 톨게이트비가 없다.

□ 택시

택시는 기차역 앞 등에는 항상 대기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콜택시이므로 전화로 주문해야 한다. 이 외에 도시 여기저기 택시 대기 구역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있는 택시는 항상 사용할 수 있다.

기본 요금은 2 유로부터 3.80유로까지 차이가 있으며 거리에 시간을 더한 병산제를 사용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공항에서 시내중심지까지 약30유로가 나온다. 승차정원은 4명이고, 팁을 줄 경우 약 50센트 정도 짐을 택시 뒷 트렁크에 실은 경우 약 1유로 정도 지불하면 된다. 영수증은 요구 시 발급해 준다.

주요 도시 콜택시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베를린	(030) 21 01 01
프랑크푸르트	(069) 73 30 30
함부르크	(040) 604 7001
뮌헨	(089) 21610 / (089) 19410
뒤셀도르프	(0211) 21 21 21

나. 통신

1) 국제통신

한국으로 국제 전화하려면 국제전화 코드인 00을 돌린 후 국가번호 + 지역번호 + 가입자 번호를 돌리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3460-7141을 걸 경우 00-82-2-3460-7141) 한편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도 가능한 바, 이 경우에는 0130 800 082를 돌리면 한국의 교환이 직접 나와 전화를 연결해 준다. 한국으로의 전화요금은 한국보다 비싼 편이므로 한국에서 국제전화 카드를 사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최근 인터넷전화로 1분당 10~15센트로 저렴한 번호(예: 01081,01051)등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람(공중전화나 핸드폰으로는 불가능) # 사용법 01081+0082(한국)+2(서울)+3460+7114(KOTRA)

2) 국내통신

시내 한 통화에 20센트이며, 전화를 거는 방법은 한국과 동일하다. 호텔에서 전화할 경우 다소 비싼 편이며 동전 전화기보다는 카드전화기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전화카드를 구입, 사용하면 편리하다. 전화카드는 우체국 및 가판대, 담배가게에서 구입 가능하며, 20, 30, 50유로짜리 전화카드가 있다. 최근 핸드폰의 대중화로 공중전화 부스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나, 공항, 주요 역, 대형유통점 등에는 대부분 비치되어 있다.

다. 우편

1) 국내

□ 편지

(단위: 유로)

구 분	가 격
우편엽서	0.45
일반 규격 편지(최대 무게: 20g) 최소 크기: 140mm x 90 mm/최대 크기: 235mm x 125mm x 5mm	0.55
중간 규격 편지(가능 무게: 21g ~ 50g) 최소 크기: 100mm x 70mm/최대 크기> 235mm x 125mm x 10mm	0.90
대형 규격 편지 최소 크기: 100mm x 70mm/최대 크기: 353mm x 250mm x 20mm 무게: 50g 이하	1.45
50g< ~ 2000g	2.20

□ 소포

독일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는 최대 무게는 일반적으로 20kg이다. 보내는 소포가 직육면체 일 경우 최소 크기는 15cm x 11cm x 1cm이며 최대 크기는 120cm x 60cm x 60cm 이다. 원통 모양일 경우 최대 무게 5kg, 최소 규격 길이 15cm, 지름 5cm이며 최대 규격은 길이 150cm에 지름은 15cm이다.

무게	가격
5kg 이하	7.00 유로
5kg< ~ 10kg이하	10.50 유로
10kg< ~ 20kg 이하	14.00 유로

2) 국제

□ 편지

(단위: 유로)

구 분	유럽	유럽을 제외한 국제 육로 편지	유럽을 제외한 국제 항공편 편지
우편엽서	0.65	1.00	1.00
일반 규격 편지(최대 무게: 20g) 최소 크기: 140mm x 90 mm 최대 크기: 235mm x 125mm x 5mm	0.70	1.70	1.70
중간 규격 편지(가능 무게: 21g ~ 50g) 최소 크기: 100mm x 70mm 최대 크기> 235mm x 125mm x 10mm	1.00	2.00	2.00
대형 규격 편지 최소 크기: 100mm x 70mm 최대 크기: 353mm x 250mm x 20mm 무게: 50g 이하	1.90	3.00	3.00
50g< ~ 100g이하	2.50	4.00	4.00
100g< ~ 500g이하	4.50	6.00	8.00
500g< ~ 1000g이하	6.00	8.00	12.00
1000g< ~ 2000g이하	14.00	14.00	28.00

□ 소포

국제 소포에 대한 무게 및 규격 규정은 국내 소포와 동일하다.

(단위: 유로)

무게	지역별 가격			
	1	2	3	4
5kg 이하	17.00	30.00	32.00	37.00
5kg< ~ 10kg이하	22.00	35.00	42.00	52.00
10kg< ~ 20kg이하	32.00	45.00	62.00	82.00

주: 지역1은 EU 및 스위스, 지역 2는 나머지 유럽 국가, 지역3은 북미, 북아프리카, 근동, 지역 4는 나머지 국가 (한국은 지역 4에 속함)

라. 특사 운송회사

연락처

회사명	연락처	홈페이지
DHL	01805-3452255	www.dhl.de
UPS	0800-8826630	www.ups.de
FedEx	0800-123 0800	www.fedex.com

위의 전화번호는 독일 내 고객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로, 독일 어디서나 이 연락처로 전화 하면 보내고자 하는 문서 또는 소포를 받으러 온다. 단지, 때에 따라서 1시간에서 4시간 이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점을 문의하여 그곳에 가서 직접 보낼 수도 있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8. 호텔/식당

가. 호텔

호텔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으로는 Deutsche Zentrale fuer Tourismus (Beethovenstr. 69, 60325 Frankfurt)가 있으며 전화번호는 49-(0)69-75720, 팩스번호는 49-(0)69-751056 이다. 기타 각 자치단체 단위의 관광청 (Verkehrsamt)에서도 호텔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있다. 인터넷으로는 www.hrs.de (Hotel Reservation System), 또는 www.hotel.de를 통하여 저렴 하게 예약 할 수 있다.

- 5성급 호텔 가격대: 싱글 130-180 유로, 트윈/더블 180-280 유로
- 4성급 호텔 가격대: 싱글 90-140 유로, 트윈/더블 120-170 유로
- 3성급 호텔 가격대: 싱글 69-90 유로, 트윈/더블 90- 130 유로

대부분의 호텔은 주요 국제전시회 및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시기에는 상기 일반 요금이 아닌 특별요금을 적용하여 평소 보다 약 1.5~2배 비싼 금액을 청구하며, 호텔사정도 여의치 않아, 출장자 계획 수립 시 출장지역의 주요 전시회 개최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텔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프랑크푸르트지역			
Frankfurter Hof	Am Kaiserplatz	069-21502	별5
Arabella Grand	Friedberger Str. 32	069-29810	별5
Intercontinental	Wilhelm-Leuschner-Str43	069-26050	별5
Hilton Frankfurt	Hochstrasse 4	069-1338000	별5
Sheraton Frankfurt	Hugo-Eck 15	069-69770	별5
Maritim	Theodor-Heuss-Allee 3	069-610631	별4
Moevenpick	Wiesenuhuettenplatz 28	069-227370	별4
Excelsior	Mannheimer Str. 7-9	069-2560801	별3

Intercity	Poststrasse 8	069-273910	별3
Mercator	Mercator Str. 38	069-490691	중급
Monopol	Mannheimer Str. 11-13	069-227370	중급
Attache	Kolnerstr. 10	069-730282	중급
Shilla	Kennedyallee 61	069-6312460	중급
함부르크 지역			
Vier Jahreszeiten	Neuer Jungfernstieg 9	040-34943181	별5
Elysee Hotel Hamburg	Rothenbaumchaussee 10	040-41412-0	별5
Dorint Am Alten Wall	Alter Wall 40	040-369500	별5
Europaeischer Hof	Kirchenallee 45	040-248248	별5
InterContinental	Fontenay 10	040-41420	별5
Madison Residenz	Schaarsteinweg 4	040-376660	별4
Hotel Residenz Hafen	Seewartenstr. 9	040-31119-0	별4
Continental Hotel	Kirchenallee 37	040-284430	별3
Ambassador Hotel	Heidenkampsweg 34	040-2388230	별3
Hotel Berlin	Borgfelderstr. 1-9	040-251640	별3
원헨 지역			
Continental	Max-Joseph-Str. 5	089-551570	별5
Bayerischer Hof	Promenadeplatz	089-21200	별4
Vier Jahreszeiten	Maximilianstr.	089-230390	별3
Excelsior	Schuetzenstr. 11	089-551370	별3
Mercure Muenchen-Orbis	Karl-Marx-Ring 87	089-390550	별4
Admiral	Kohlstrasse 9	089-216350	별4
Crowne Plaza	Leopoldstrasse 194	089-381790	별4
베를린 지역			
Adlon Berlin	Unter den Linden 77	2261-1111	별 5+
The Regent Berlin	Charlottenstr. 49	030-20 33 8	별 5+
Grand Hotel Esplanade	Loetzowufer 15	030-25478 0	별 5+
Grand Hyatt Berlin	Marlene-Dietrich-Pl.2	030-2553-1234	별 5+
Hotel Palace Berlin	Budapest Str 45	030-25020	별 5+
Kempinski Hotel Bristol	Kurfuestendamm 27	030-8843 40	별5
Inter-Continental	Budapester Str. 2	030-2602 0	별5
Ambassador	Bayreuther Str. 42	030-2190 20	별3
Schweizer Hof	Budapester Str. 25	030-2696 0	별4
Alsterhof Berlin	Augsburger Str. 5	030-212420	별4
Koeln 지역			
Altea Hotel Serinhof	Severinstr. 199	0221-20130	별5
Arcade Hotel	Neue Weyerstr. 4	0221-20960	별5
Domgarten	Domstr. 26	0221-120303	별3
Excelsior Hotel Ernst	Domplatz	0221-2701	별3
Flandrische Hof	Flandrischer Str. 3-5	0221-252095	별3
Novotel Koeln West	Horweller Str. 1	02234-5140	별3

나. 식당

독일음식은 종류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이로 인해 독일에는 이태리식, 그리스식, 터키식, 인도식, 중국식 등 다국적인 식당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은 식당은 이태리와 중국식 식당으로 가격 또한 저렴한 편이다. 최근 들어 뮌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대도시에서는 일식붐이 일고 있다.

독일에서 대표적인 음식은 소시지와 돼지족발 부위를 오븐에 구워서 요리한 Schweinehaxe이며 여기에 감자 샐러드, 찐 감자 등을 곁들여 먹는다.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주로 빵과 감자를 즐겨먹기 때문에 빵 종류가 다양하며 감자 조리방식 또한 튀김, 찜, 볶음 등 아주 다양하다.

한식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신라 (Shilla)	Kennedyallee 61, Frankfurt	069-636520
서울관(Seoul)	Toengesgasse 11, Frankfurt	069-233631
만나(Manna)	Hahnstr. 85, Frankfurt	069-6661880
아리랑(Arirang)	Muenchenerstr. 46, Frankfurt	069-24271778
불고기(Bulgogi)	Dreikoenigstr. 4, Frankfurt	069-66126678
한일관(Han-Il Kwan)	Marktplatz 1-2, Schwalbach	06196-85737
베를린		
서울관(Seoul kwan)	Kurfuerstendamm 165, Berlin	030-8812121
한일관(Hanil Kwan)	Schmiljanstr. 25, Berlin	030-8526262
호도리 (Hodori)	Beusselstr. 26, Berlin	030-396 2836
궁전(Gung Jeon)	Goebenstr. 16-17, Berlin	030-2153562
서울(Seoul)	bamberger Str. 49	030-213-4940
뮌헨		
한국관(Korea)	Leopoldstr. 120, Muenchen	089-348104
함부르크		
김치식당	Emilienstr. 22, Hamburg	040-493871
복식당	Schulterblatt 3, Hamburg	040-4306781

이태리식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Osteria-Enoteca	Arnoldshainer Strasse 2,	069-7892216
Casa Isoletta	Bleidenstrasse, 13, Frankfurt	069-284487
베를린		
Ana e Bruno	Sophie-Charlotten-Str. 101, Berlin	030-3257110
Trenta Sei	Mark-Graffenstr. 36, Berlin	030-20452630
Schell	Knesebeck Str. 22, Berlin	030-3128310
Via Condotti	Fasanenstr. 73, Berlin	030-88677897

뮌헨		
Galleria	Sparkassenstr. 2, Muenchen	089-297995
함부르크		
LA VITE	Heimhuderstr. 5, Hamburg	040-458401
Ristorante Palazzo	Rothenbaumchaussee185, Hamburg	040-4102277

독일식, 양식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Bistrot 77	Ziegelhuettenweg 1-3, Frankfurt	069-614040
Erno's Bistro	Liebigstrasse 15, Frankfurt	069-721997
Gargantua	Liebigstrasse 47, Frankfurt	069-720717
Humperdinck	Grueneburgweg 95, Frankfurt	069-97203154
Maingau	Schifferstr. 38, Frankfurt	069-609140
Tigerpalast-Restaurant	Heiligkreuzgasse 16-20, FfM	069-92002225
Weinhaus Brueckenkeller	Schuetzenstrasse 6, Frankfurt	069-2980070
Apfelwein Klaus	Meissengasse 10, Frankfurt	069-282864
뒤셀도르프		
An'ne Bell	Kaistrasse 16 a, Duesseldorf	0211-3006750
Savini	Hafen-Stromstrasse 47, D' dorf	0211-393931
VAU	Kaistrasse 16 a, Duesseldorf	0211-3006750
An'ne Bell	Hafen-Stromstrasse 47, D' dorf	0211-393931
베를린		
Alt Luxemburg	Windscheidstrasse 31, Berlin	030-3238730
Bamberger Reiter	Regensburger Strasse 7, Berlin	030-2184282
Dressler	Unter den Linden 39, Berlin	030-2044422
Alt Nuernberg	Europa Center, Berlin	030-2641397
Georgenbraeu	Spreeufer 4, Berlin	030-2424244
Schloss Glienicke-Remise	Jaegerstrasse 54-55, Berlin	030-2029730
뮌헨		
Savini	Muehlbaaurstr. 36, Muenchen	089-4704848
Acquarello	Promenadeplatz 2-6, Muenchen	089-2120993
Bayerischer Hof	Amalienstr. 89, Muenchen	089-281780
Bistro Terrine	Ismaniger Str. 85, Muenchen	089-985586
Bogenhauser Hof	Kapuzinerstr. 29, Muenchen	089-534043
Gasthaus Glockenbach	Schoenfeldstr. 22, Muenchen	089-266228
Halali	Karlsplatz 25, Muenchen	089-551360
Koenigshof	Rablstr. 10, Muenchen	089-4484477
Massimiliano	Am Tucherpark 7, Muenchen	089-38450
Muenchen Park Hilton	Neureutherstr. 15, Muenchen	089-2712406
함부르크		
Anno 1905	Holstenplatz 17, Hamburg	040-4392535
Friesenkeller	Jungfernstieg 7, Hamburg	040-35760620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9. 관공서 관행

가. 민원 처리기간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나 보통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공식적인 업무 역시 서면처리가 원칙이다.

나.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관공서의 업무처리는 원리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며 뇌물은 통용이 안된다. 그러나 비즈니스 런치 정도는 업무 진행에 순기능을 하며 지인을 통한 업무 추진도 일의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다.

다. 관공서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월, 화, 목요일은 09:00-18:00까지 근무하며 수, 금요일은 09:00-12:00까지 근무하나 민원업무 시간은 각 지역별 관공서별 차이가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수적이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10. 공휴일

독일 전국적으로 공휴일은 1년에 11일이며 기타 각주별로 별도의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같은 주 내에서도 천주교 및 개신교의 우세 정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휴일이 다른 경우가 있다. 여름방학은 대체로 6월 하순부터 7월말 ~ 8월초까지이며 각 주 별로 차이가 있다.

2006년도 독일 공휴일

일시	공휴일명	대상지역 (주별)
1.1	신년	독일 전역
1.6	주현절	Baden-Wuerttemberg, Bayern, Sachsen-Anhalt
4.14-17	부활절	독일 전역
5.1	노동절	독일 전역
5.25	예수승천일	독일 전역
6.5	성령강림절	독일 전역
6.15	성체축일	Baden-Wuerttemberg, Bayern, Hessen, Nordrhein 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Sachsen과 Thueringen의 특정 지역
8.15	성모승천일	Bayern의 특정 지역, Saarland
10.3	통일기념일	독일 전역
10.31	종교개혁일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ueringen
11.1	諸聖日	Baden-Wuerttemberg, Bayer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11.22	단식과기도의날(속죄의날)	Sachsen
12.25-26	성탄절	독일 전역

상기 휴일 이외에 부활절 주간(4월 중순), 여름 휴가철(7월-8월), 성탄절(12월 중순-하순)에는 대부분의 관공서, 은행, 기업이 휴가를 실시하므로 담당자와 접촉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간이다. 따라서 이 기간은 피해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일반 사항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시설 등의 발달로 특별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의복의 경우 쌀쌀한 날씨를 참조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한국과 같은 장마는 없으나 자주 비가 내리는 편으로 작은 우산을 소지하고 방독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여름에도 짧은 옷과 동시에 저녁 시간을 대비한 긴 옷(점퍼)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전제품의 경우 230V, 50Hz 기준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산 제품은 60Hz를 기준으로 생산되었기에 독일에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이 곳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가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산 전열기 등은 독일에서 사용할 때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여행을 위한 기본 여건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독일 전국 각지에 위치한 여행 안내소(Touristeninformationsbuero)와 안내 지도 등의 주변시설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특히 대도시를 여행할 때는 중앙역(Hauptbahnhof)의 안내소(Information)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 응급

여행 출발 시 비상 구급약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호텔 등에 요청하면 간단한 의약품도 구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일반 약국에서는 의사 처방이 없는 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 응급전화 : 112

2) 한국산 선물

이국적인 선물에 관심이 많으므로 고가의 선물보다는 한국적인 맛을 풍기는 전통제품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태극무늬의 부채, 전통도자기(반찬그릇 등 식기류) 문갑 등은 좋은 한국선물이 될 수 있다.

3) 외국인 금기사항

냄새가 많이 나는 생마늘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 중 정숙을 지키는 시간 (오전 8시 이전, 오후 1-3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소음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이 시간 중에는 세탁도 금하는 것이 좋다.

4) 종교생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독일은 현재 구교와 신교가 거의 반반으로 남쪽 지방은 구교가 우세하고 북부지방에서는 신교가 널리 퍼져 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이후 교회는 사적단체가 아닌 국가와 협력하는 독립적이며 공적인 법인성격을 띠고 있다. 교회는 각 신자들로부터 종교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 징수는 주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교회 구성원에서 탈퇴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히틀러 시대 신. 구교 공히 국가사회주의에 대항해 싸운 경력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도 평화와 군축, 외국인 및 고용문제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 최빈국을 위한 개발원조를 위해서도 교회가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의식주

독일인은 특히 住를 중요히 여겨 오래된 건물인데도 외관을 고집스럽게 보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부 실내장식은 매우 현대적이며 기능적으로 개축해 놓는다.

음식은 검은 빵과 감자, 치즈 등 검소하게 먹는데 저녁 식사도 불을 쓰지 않는 찬 음식(kalte Speise)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청결을 좋아하여 집 안팎을 열심히 쓸고 닦는 등 근면과 성실의 미덕을 갖고 있다.

6) 기질

19세기 후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300여 제후와 자치도시로 분열되어 있어서 다소 지역성이 강하고 보수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다소 고집스럽고 자기의 전통을 지키는 성향이 많으나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장인정신이 생활에 배어 있다.

7) 가족생활

핵가족 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은 출생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인들은 대부분 매우 가정적이며 공/사의 구분이 뚜렷하여 주말에 독일기업인을 행사에 초청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까운 독일인들끼리 친교의 차원에서 식당이나 자택으로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8) 좋아하는 운동. 문화

독일 내에는 75,000개 이상의 스포츠 연맹이 구성되어 있으며 2천 1백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독일 국민들의 최대 인기 스포츠는 축구로 많은 아마추어 클럽들이 있을 뿐 아니라 프로 축구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는 매우 많은 관람객이 몰리곤 한다. 80년 대 말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테니스도 슈테피 그라프, 보리스 베커 등의 국제적 스타탄생으로 국민적 스포츠로 각광 받았으나 최근에는 그리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다. 대중화는 되지 않았으나 최근 골프를 치는 독일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은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처럼 문화중심지로서의 대도시는 없으나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각 지역에 분산되어 발전하여 왔다. (철저한 지방 분권주의) 가령, 프랑크푸르트는 서적, 함부르크는 신문발행, 베를린은 오페라 및 연극공연 등으로 유명하다.

나. 위험지역

구 동독 지역은 혼자 여행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구 동독 지역에는 나찌 추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통독 직후 외국인 주택에 불을 지르는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15년 넘은 지금은 많은 개선된 편이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다. 팁 제도

독일에서는 미장원, 식당, 호텔 등 서비스분야에 팁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급/고급 식당의 경우 가격의 10%의 팁을 지불하며 이 외에는 50센트에서 5유로 사이의 팁을 지불하는 편이다. 호텔, 미장원에서 1유로에서 5유로 사이의 팁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장원은 예약제가 많으며 최근에는 예약 없이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아졌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12. 유용한 연락처

독일 주재 한국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사관	Schoeneberger Ufer 89-91, 10785 Berlin	030-260650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Eschersheimer Landstr. 327, 60329 FfM	069-9567520
재독한인연합회(서성빈)	Christian Lassen Str. 10a, 53117 Bonn	0228-9676680
재독한인간호협회(백성자)	Hauptstr. 392, 65760 Eschborn	0234-496066
재독과학기술자협회(김재금)	Heidhauserstr. 197, 45239 Essen	0201-1832644
재독 대한체육회(이유환)	An der Maarbruecke 49, 44793 Bochum	0234-684420

독일 주재 KOTRA 무역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Mainzer Landstr. 27-31, 60329 Ffm	069-2429920
베를린무역관	Friedrichstr.95 P.O.Box 11, 10117 Berlin	030-20962637
뮌헨무역관	Tal 12, 80331 Muenchen	089-24242630
함부르크무역관	Ludwig-Erhard-Str.20, 20459 Hamburg	040-3405740

콜택시

지역	전화번호
베를린	(030)-210101
프랑크푸르트	(069)-733030
뮌헨	(089)-21610 / (089)-19410
함부르크	(040)-211 211 / (040)-311 311

현지 경제단체

기관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AUMA 박람회 위원회	030-240000	www.auma.de
BDI 독일공업협회	0221-370800	www.bdi-online.de
BGA 도매 및 무역업협회	0228-260040	www.bga-online.de
DGB 독일노조연맹	0221-43010	www.dgb.de
DIHT 독일상공회의소	0228-1040	www.diht.de
DIN 독일규격원	030-26010	www.din.de
Gesamttextil 섬유공업협회	06196-9660	www.gesamttextil.de
HDE 독일소매업협회	0221-9365502	www.einzelhandel.de
VDA 독일자동차공업협회	089-570070	www.vda.de
VDE 독일전기규격협회	069-630330	www.vde.de
VDMA 독일기계공업협회	069-66030	www.vdma.de
ZHD 독일수공업협회	0228-5450	www.zhd.de
ZVEI 독일전기전자공업협회	069-63020	www.zvei.de

현지 은행 (본사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Deutsche Bundesbank	069-95661	www.bundesbank.de
Hessische Landesbank	069-913201	www.helabe.de
Landesbank Stuttgart	0711-1240	www.lgbank.de
Nord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0511-3601	www.nlb.de
West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0211-82601	www.wlb.de
Deutsche Genossenschaftsbank	069-744701	www.dgbank.de
Commerzbank AG	069-13621	www.commerzbank.de
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	069-74310	www.kfw.de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13. 관광명소

가. 관광명소

1) 개황

보리수의 노래, 라인강의 옛성, 로렐라이 언덕, 그리고 괴테와 헤르만 헷세의 시가 있는 나라, 슈베르트의 가곡과 베토벤의 심포니가 흐르고 칸트와 헤겔의 철학이 싹튼 나라, 신성 로마제국을 비롯한 종교개혁과 히틀러의 야망이 명멸한 나라, 전후의 눈부신 부흥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창조한 나라, 40여 년간의 동서독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한 독일은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역사, 그리고 풍요로운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가진 나라이다.

2) 베를린

독일 제1의 도시이며 수도이다. 1894년 건축된 네오 로마네스크양식의 카이저 빌헬름 교회는 2차 대전시 파괴되어 폐허만 남아 있으나 보존되고 있으며 도시 내 제국의회의사당 (Reichstag), 전승기념탑, 6월 17일 거리, 샤를텐부르크궁전 등이 구경할 만하다. 그 외 브란덴부르크문, 쿠담거리가 관광명소이며 인근 포츠담 지역에는 체찰리엔호프 궁전과 쌍수 시 궁전이 유명하다.

3)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맨하튼이라 할 수 있으며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이다. 1749년 괴테가 태어난 생가와 박물관이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세기 초 완성된 교회로 1948년 독일의 1회 의회를 개최한 파울교회가 역시 시내에 있다. 뢰머광장에 자리잡은 구 시청건물과 13세기 건축되어 신성로마제국 대관식이 거행되던 카이저 돔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시내 중심 한가운데 자리잡은 중앙위병초소는 현재 식당으로 사용 중이다. 하이델베르크 성이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 거리, 로렐라이가 1시간 20분 정도 거리로 하루 여행코스가 가능하다.

4) 함부르크

베를린(347만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인구(171만명)를 보유한 독일 제2의 도시로서 독일 최대 무역항이다. 주요 관광지로는 시청청사, 성미하엘 교회, 알스터 호수로서 시청청사는 탑 높이가 112미터나 되는 네오 르네상스식 대 건축물이며, 성 미하엘 교회는 18세기 중반 건축된 바로크풍의 교회로서 132미터 전망대가 있다. 알스터 호수는 450에이커의 인공 호수로 Jungfernstieg는 쇼핑, 비즈니스 중심지이다.

5) 하이델베르크

관광도시이자 교육도시이다. 독일 낭만파 시인들이 사랑하던 도시로서 고딕양식부터 바로크 양식까지 다양한 건물이 있는 하이델베르크성에는 성 지하에 큰 포도주통과 약사박물관 (Apotheken-museum)이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독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대학으로 3만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학생감옥으로도 유명하다. 그 외 구시가지의 Hauptstrasse를 중심으로 한 성령교회, 기사의 집, 시청 등이 명소이다.

6) 뮌헨

독일 제3의 도시로서 맥주와 예술의 도시이다. 1488년 완공된 프라우엔 교회는 높이 99m의 탑 2개가 있으며 뮌헨의 상징적 교회이다. 마리엔 광장과 신시청은 금빛 성모상과 오전 11시, 12시에 움직이는 인형이 있는 Glockenspiel 시계로 유명하다.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한 님펜부르크성은 시내 서북쪽 5km에 위치하며 바이에른가의 여름 궁전으로 사용되었다. 시청부근 Hofbraeuhaus는 궁중맥주주조창의 의미로 1,000명 이상이 들어가 술 있다. 또한 이곳은 히틀러가 회동장소로 사용했던 술집으로도 유명하다. 매년 9월 셋째 토요일 정오에서 16일간 개최되는 10월 축제(Oktoberfest)에는 전세계 약 600만명 이상 인파가 몰려드는 유명한 축제이다.

7) 라인강

영어로는 Rhine, 독일어로는 Rhein으로 표기되며 본류의 길이 약 1,320km, 유역 면적 15만 9,610km², 하구 삼각주 부분을 합친 면적 22만 4,400km²에 달하는 독일의 동맥과도 같은 강이다.

알프스 산지에서 발원하여 유럽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을 관류하여, 북해로 흘러든다. 본류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여러 나라를 거치며 운하에 의해서 지중해, 흑해, 발트해 등과 연결된다. 그 중 독일을 흐르는 부분이 가장 길어 독일의 상징이라고 한다.

독일 빙겐 지방의 북서쪽 협곡 부분을 중부라인이라고 하며 특히 빙겐과 코블렌츠와의 사이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잇달아 나타나는 고성(古城)과 포도원을 비롯하여 하이네의 시로 유명한 로렐라이 바위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관광코스이다.

라인강은 이른바 국제하천으로서 항행의 자유가 선언되었고(1868), 본류, 지류 연안의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어 교통량이 증대되고 있다.

나. 주요 쇼핑 센터

쇼핑 센터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베를린			
KADEWE (Kaufhaus des Westens) 베를린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음.	Tauentzienstr. 21-24, 10789 Berlin	030-21210	월- 금: 10:00~20:00 토요일: 9:30~20:00
Arkaden am Potsdamer Platz	Potsdamer Platz	-	월- 토: 10:00~20:00
B5 Designer Outlet Center (Aigner, Alba Moda, Doce & Gabbana 등 각종 디자이너 아울렛 매장)	Alter Spandauer Weg 1, 14641 Wustermark (베를린 근교임)	033234-9040	월- 토: 10:00~19:00 12월24일/12월31일: 10:00~14:00
Galeries Lafayette	Friedrichstr. 76-78 (Ecke Franzoesische Str.), 10117 Berlin	030-2094 80	월- 토: 10:00~20:00
고급 브랜드 상점이 즐비하게 있는 거리,	Kuer fuerstendamm	-	월- 토: 10:00~20:00 /상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프랑크푸르트			
Galeria Kaufhof	Zeil 116-126, 60313 Frankfurt	069- 2191 0	월- 금: 9:30~20:00 토요일: 9:30~20:00
Zeilgalerie	Zeil 112-114, 60313 Frankfurt am Main	069-9207 340	월- 토: 10:00~20:00
고급 브랜드 상점이 즐비하게 있는 거리	Goethestr.	-	월- 토: 10:00~20:00 상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함부르크			
Hanse Viertel (이곳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Arkaden 쇼핑센터가 있음)	Grosse Bleichen과 Poststrasse 사이	-	월- 토: 10:00~20:00
Alstertal-Einkaufszentrum	Heegbarg 31, 22391 Hamburg	040-611677 0	월- 토: 10:00~20:00
Alsterhaus 함부르크에서 가장 고급스럽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백화점	Jungfernstieg 16-20, 20354 Hamburg	040-359 010	월- 토: 10:00~20:00
뮌헨			
Fuenf Hoefe	Theatinerstr., Maffeistr., Kardinal Faulhaber str. 그리고 Salvatorstr. 사이의 파사주와 호프	-	월- 토: 10:00~20:00
Schrannenhalle (쇼핑하면서 문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	Viktualienmarkt 15, 80331 Muenchen	089-5181818	Schrannenhalle는 매일 24시간 열려 있으나 그 안에 있는 상점은 기타 상점 영업 시간 과 같음
고급 브랜드 상점이 즐비하게 있는 거리	Maximilianstr.	-	월-토: 10:00~20:00/ 상점마다 약간의 차이 가 있을 수 있음

다. 특산물

1) 맥주와 소시지

독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산물은 맥주와 소시지일 것이다. 독일에는 약 1364개의 맥주 양조장이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맥주 상표는 5000가지가 넘는다. 대부분 도시마다 도시를 대표하는 맥주가 있으며 알디 등 식품 디스타운터들이 OEM으로 생산하는 무명 브랜드 종류도 있다.

소시지 종류 또한 1,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소시지도 마찬가지로 도시를 대표하는 Frankfurter Wurst, Nuernberger 등이 있다.

2) 유명 브랜드

Zwillinge(쌍둥이 칼), Fissler (압력 밥솥), WMF(수프, 포크, 압력 밥솥 등) 그리고 Meissen (마이센 자기 그릇) 등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독일 부엌용 제품 유명 브랜드이다, 쌍둥이표의 칼은 평생 상용할 수 있다고 하며, 칼뿐만이 아니라 가위, 각종 냄비, 손톱 깎기 등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되고 있다.

여성 의류 및 가방 브랜드로는 Aigner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Boss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s' Oliver, Esprit, Mexx, Gery Weber 등 브랜드가 잘 알려져 있다.

가전 및 전자제품에서는 Bosch, Miele, Braun 그리고 Siemens가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이며 선물용으로는 부엌 가전제품 또는 Braun의 남성 면도기 등이 선호되고 있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독일의 대외 무역을 관리하는 법으로는 대외경제법(Aussenwirtschaftsgesetz, AWG)과 대외경제법 시행령(Aussenwirtschaftsgesetz, AWV)이 있다.

대외경제법은 다음과 같이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일반 규정
- 제2장 : 상품 수출 (제한, 신고, 허가 등)
- 제3장 : 상품 수입 (제한, 허가 등)
- 제4장 : 기타 상품 교역 (중계무역 등)
- 제5장 : 서비스 교역
- 제6장 : 자본 교역 (제한, 신고 등)
- 제7장 : 지불 거래
- 제8장 : 과태료
- 제9장 : 경과 규정

< RoHS 규정 소개 >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RoHS 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Restriction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전기 및 전자 장비 내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에 대한 제한)

전기전자 제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며 특히 제품의 평균 사용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시점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개인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문제로 이를 직시하여야 하는 시점이 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RoHS규정을 제정, 이를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같은 시점에 발효된 WEEE 규정(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 전자 제품의 파기에 관한 규정)과 함께 동 제품군 생산업체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RoHS 규정은 납, 수은, 카드뮴, 크롬(6+)- 중금속과 브롬계 난연제 pbb와 pbde를 전기/전자장비 제품생산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 및 전자 장비 내 특정유해물질의 사용에 대한 제한(RoHS) 제4조 제1항으로부터 예외 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해당항목, 동 RoHS의 부속서).

- 램프당 5mg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 형광 램프내 수은
- 일반적 목적의 막대형 형광램프내 수은중에 아래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할로포스페이트(halophosphate) 10mg
- 평균 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triphosphate with normal lifetime) 5mg
- 긴 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triphosphate with long lifetime) 8mg
- 특수 목적을 가진 막대형 형광램프 내 수은

- 기타 램프내 수은에 대해서는 이 부속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다
- 음극선관, 전기부품과 형광튜브 유리내의 납
- 중량 기준 최대 0.35% 납이 함유된 철, 0.4% 납이 함유된 알루미늄, 4% 납이 함유된 구리합금에서 합금요소로서의 납
- 고온에서 용융하는 땀납에 함유된 납(즉, 85%이상의 납이 함유된 주석)
-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에 함유된 납(2010년까지 면제)
-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장치의 땀납에 함유된 납
- 전자 세라믹 파트에 함유된 납(예, 압전기 장치)
- 특정 유해물질과 조제품의 이용과 매매 제한에 관련한 법령 76/769/EEC를 개정한 법령91/338/EEC에 의해 금지된 해당항목을 제외한 카드뮴 도금
- 흡수냉각장치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방식제인 6가 크롬

제7조(2)에 언급된 과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 Deca BDE
- 특수 목적의 막대형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
-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신호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장치의 땀납에 함유된 납 (면제에 대해 특정 시한을 정하기 위함)
- 백열전구

< 참조자료 >

-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http://europa.eu.int/eur-lex/lex/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2L0095:EN:HTML>
 - http://www.eu.int/eur-lex/pr i/en/oj/dat/2003/l_037/l_03720030213en00190023.pdf

16. 수입규제제도

가. 개황

독일은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로 일부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제한이 거의 없으며 기타 쿼터 및 덤핑제도 등은 EU의 결정에 따른다.

수입관리는 대외경제법 ([AWG](#)), 대외경제법 시행령 ([AWV](#)) 및 AWG의 제10조 1항의 부속서로 매년 말 발간되는 수입목록서 (Einfuhrliste)에 따른다.

EU 역내거주자는 물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EU 역내 비거주자도 수입행위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가 10유로 이하 (제품가격 80유로선)인 제품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유럽 역내 단일 시장이 실현된 1993년 1월 1일부터 EU 회원국간 상품 교역에 대해서는 세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한편 관세, 수입 매출세, 담배,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자세, 광물유세 등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EU 회원국이 아닌 제 3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 EU 공통 관세를 징수한다.

나. 서류 절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며, 필요서류는 신청서, 인보이스 원본, 선적 서류, 원산지 증명 등이다. 이 밖에 수입 승인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1988년부터 시행된 EU의 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150여 가지의 통관 서류를 단일화하여 통일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EU의 공동 관세규정 (Codex)에 의거한 물품 분류 및 그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수입규제 및 제한 대상 품목

수입 규제 및 제한 대상 품목은 크게 다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 공중 도덕, 질서, 안전 보호 (예 : 위조지폐, 무기, 포르노)
- 인류 및 동식물의 건강과 안전 보호 (종의 보호, 전염병 장비사선 보호)
- 문화 유산 및 역사적 그리고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보호(문화재 해외 반출 금지 조치 등)
- 기업 및 상업소유권 보호(원산지 위조, 저작권·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등)

수입 목록에 기재된 품목들 중에서는 아래의 품목들이 수입 승인 (Genehmigung) 및 기타 규제의 대상이 된다.

□ 수입승인 (Genehmigung)을 요하는 것

수입 목록 (Einfuhrliste)의 제 4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이 요구된 경우

- 수입 허가 (Lizenz)를 요하는 품목
 - 목록의 제 4컬럼에 "L"라는 코드가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허가 (License, Einfuhrlizenz)가 필요하다. 단, EU의 조적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수량 제한은 채택되지 않는다.
- 원산지 증명(Ursprungszeugnis)을 요하는 것 : 수입 목록의 컬럼 5에 "U"라는 코드가 있으면 c/o가 필요하다. 또 "UE" 표시품목에는 원산지 진술서(Ursprungserklaerung)가 필요하다.

<독일 수입목록 샘플>

04.06

- 47 -

Warennummer	Warenbezeichnung	Zuständigkeitsbereich	Genehmigungs- oder Lizenz-erfordernis	Bemerkungen
1	2	3	4	5
			4칼럼	5칼럼
0406 90 82	----- Camembert	53	L	EKM MO 19
0406 90 84	----- Brie	53	L	EKM MO 19
0406 90 85	----- Kefalograviera, Kasserl	53	L	EKM MO 19
	----- andere Käse, mit einem Wassergehalt in der fettfreien Käsemasse von:			
0406 90 86	----- mehr als 47 bis 52 GHT	53	L	EKM MO 19
0406 90 87	----- mehr als 52 bis 62 GHT	53	L	EKM MO 19
0406 90 88	----- mehr als 62 bis 72 GHT	53	L	EKM MO 19
0406 90 93	----- mehr als 72 GHT	53	L	EKM MO 19
0406 90 99	----- andere	53	L	EKM MO 19
	Vogeleier in der Schale, frisch, haltbar gemacht oder gekocht:			
	-- von Hausgeflügel:			
	-- Bruteier:			
0407 00 11	-- von Truthühnern oder Gänsen	53		EKM MO 11
0407 00 19	-- andere	53		EKM MO 11
0407 00 30	-- andere:			
	1. von Hühnern, frisch oder haltbar gemacht	53	6)	EKM MO 11
	2. andere	53		EKM MO 11
0407 00 90	-- andere	53		MO 2
	Vogeleier, nicht in der Schale, und Eigelb, frisch, getrocknet, in Wasser oder Dampf gekocht, geformt, gefroren oder anders haltbar gemacht, auch mit Zusatz von Zucker oder anderen Süßmitteln:			
	-- Eigelb:			
	-- getrocknet:			
0408 11 20	-- ungenießbar	53		MO 2
0408 11 80	-- anderes	53		EKM MO 11

□ 수입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수입제한(Beschränken), 감시(Ueberwachen) 또는 점검(Kontrolle)을 요하는 품목(컬럼 5에 표시됨)은 다음과 같다.

EU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O(Markt Organisation)로 표시되는 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ation oder Handelsregelung (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 거래법규)"의 적용을 받는 품목들인데 이들은 EU이사회 또는 집행위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감시 (EU회원국 전체가 또는 EU집행위의 승인하에 독일 단독으로, "UeD" 표시) 품목들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 (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감시 서류 (Ueberwachungsdokument)를 연방경제청(BAW, Eschborn 소재)이나 연방농산/식품청 (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을 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관청의 선택기준, 즉 BAW인지 연방농산식품청인지 여부는 칼럼 3에 명기되어 있다)

점검신고 ("EKM") 품목들은 BAW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관시에 수입 검사 신고 (Einfuhrkontrollmeldung)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수입 목록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들 : 규제품목

- 일반적 규제(3항목) : 국제조약, 협정(GATT 또는 EU의 Roma조약 등)에 의한 것
- 공공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11항목) : 은행권, 정부채권 등에 사용되는 종이, 무기, 폭발물, 핵물질, 방사성 물질 등
-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4항목) : 폐기물, 연료첨가용 연 및 이를 함유하는 물질, DDT, 유독물
- 건강보호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18항목) : 식용, 정육관계(9항목), 계란 및 그제품(2항목), 기타 식품(3항목), 마약, 전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알콜, 인산동물(13항목)
- 식물 (5항목)
- 공업 소유권의 보호(3항목) : 원산지의 허위신고 금지에 관한 Madrid 협정 (1925. 3. 21) 기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상동 Lisbon협정 (1958.10.31)에 저촉되는 경우 상표법(Markengesetz, 94. 10.25에 Warenzeichengesetz을 전면 개정)에 저촉되는 경우
- 농산물 시장 질서(Marketordnung과 관련) 유지대상 물품 (8항목)

다. 수입목록 (Einfuhrliste) 구입처

Bundesanzeiger VerlagsgmbH, Koeln <http://www.bundesanzeiger.de>

- 도서 주문 담당자 연락처
 - Ms. Andrea Linz
 - 전화 : (02 21) 9 76 68-361
 - 이메일 : andrea.linz@bundesanzeiger.de

17. 관세제도

가. 관세 제도 개요

독일은 EU 회원 국가로서 EU의 공동수입 규정에 따라 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3년 1월 1일부로 유럽 역내 단일 시장이 실현됨으로써 EU 및 EFTA 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타 나라에 대해서는 EU 공통 관세율을 적용한다.

EU 회원국 (25개국) 및 가입 연도

가입 연도	가입국
1958 (창립 멤버)	벨기에,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태리, 네덜란드
1973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1981	그리스
1986	포르투갈, 스페인
1995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2004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상품분류 체계는 HS Code 방식에 의한 품목 분류 (8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보이스 가격 1,000유로 이상의 수입은 관세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나. 관세율 종류

관세율 체계는 WTO 가맹국 및 최혜국대우 체결국에 적용하는 양허세율과 [LOME 협정국](#) 및 GSP 수혜국에 적용되는 특혜세율, 기타 이를 제외한 국가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로 되어 있다. 그리고 EU공동 차원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기능이 있다.

독일 세관은 EU의 관세 Codex (EU관보) 및 독일의 관세 행정법에 근거,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입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아래 5. 항의 수입 허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로메 협정 (Lome Convention)

아프리카 토고의 수도인 로메(Lome)에서 1976년 4월 EC와 [ACP](#) 회원국 (특히 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식민지)간에 체결된 경제 협정.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회원국의 농산물 및 공산물 대 EC 회원국 수출시 무관세 적용.

다. 독일의 수입 관세율 확인 방법

- 인터넷 접속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cgi-bin/tarchap?Lang=EN
 - TARIC-Code (HS-Code) 및 생산 국가를 입력하고 Duty rates를 선택하면 최신 관세율 정보 확인 가능
 - Tariff preference를 보고 수출국이 특정 그룹에 속해 있는지 확인 필요
 - Description을 선택하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확인 가능함

라. 관련기관

- 독일 관세청 : <http://www.zoll-d.de/index.html>
- 수입 허가 기관
 - 농산물: 독일연방 농산/식품청
BLE(Bu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 und Ernährung) <http://www.ble.de>
 - 기타상품: BAFA(Bundesamtes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http://www.bafa.de>

마. 참고 사이트

- 독일 관세청 보도자료 : http://www.zoll.de/f0_veroeffentlichungen/index.html
- EU의 특혜관세 공여국 및 내용 확인 : Präferenzen online
- EU 회원국과 역외국과의 무역통계 : http://ec.europa.eu/comm/trade/index_en.html
- 유럽연합 이해 : http://www.delkor.cec.eu.int/home/kr_index.html

18.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크 제도

1) CE Mark 개요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이 해당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후 이를 입증하는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만 한다. 이 선언은 제조업자 스스로가 하거나 혹은 해당 통지기관 (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테스트(conformity assessment oper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CE Mark는 제품의 안전과 사용자의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EU규정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표시이며 EU에서 제품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증명서(비자)’ 라고 할 수 있다. CE는 불어로 Communauté Européenne의 약자로 유럽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CE Mark 제도 의미는 아래와 같다.

- EU 역내 제품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통일
- EU내 물품이동 장애요소 제거
- EU 규정에 의한 국가간의 상이한 규정 대치
- 각국간의 테스트 인증서 인정

단, CE Mark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조건 등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다.

2) 대상품목

CE Mark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EU 규정). 제품의 제조 및 특성상 EU 규정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물건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유통되기 전에 CE-마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 50 ~ 100 볼트 전압을 사용하는 저전압 기기 (72/23/EEC)
- 프린터잉크 (87/404/EEC)
- 장난감 (88/378/EEC)
- 건축자재 (89/106/EEC)
-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적합성 (89/336/EEC)
- 개인보호장비 (89/686/EEC)
- 비자동 저울 (90/384/EEC)
- 능동 삽입용 의료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AIMD)

- 가스기기 (90/396/EEC)
- 유체 및 가스 연료 사용의 온수 보일러 (92/42/EEC)
- 민수용 폭약 (93/15/EEC)
- 의료기기 (93/42/EEC, MDD)
- 방폭제품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94/9/EC)
- 레크레이션 선박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94/25/EC)
- 승강기 (95/16/EC)
- 프린터 (97/23/EC)
- 산업용 기계류 (98/37/EC)
-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in vitro diagnostic product: 98/79/EC, IVDD)
- 무선기기와 텔레 커뮤니케이션 설비 (98/5/EC)
- 케이블카 (2000/9/EC)
- 측량기기 (2004/22/EC)

3) CE 마크 취득 절차

제조업자, 대리인 혹은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4단계를 통해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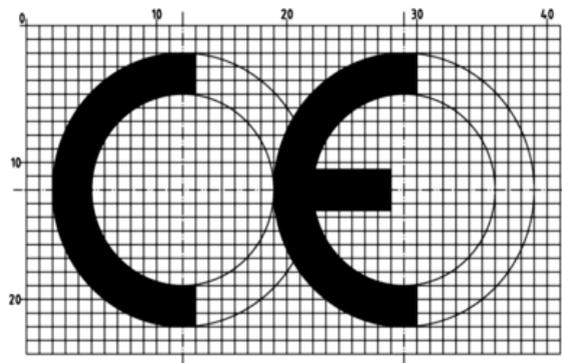
- 적합성 테스트 (conformity assessment) 실시
- 제조기술 파일 (technical constructional file) 제출
- 적합선언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 CE마크 부착

CE마크 취득을 위해 아래와 같은 8가지의 모듈 (module) 방식이 있다.

- 모듈 A (internal control of production)
 -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선언한다. 선언 후 적합선언서를 작성하고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한다.
- 모듈 B (EC type-examination)
 -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연구소(통지기관: notified body)는 형식 테스트(type -examination)를 실행하고 이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EU국가별 통지기관 리스트
 - http://europa.eu.int/comm/enterprise/newapproach/legislation/nb/notified_bodies.htm
- 모듈 C (conformity to type)
 - EU형식 테스트 확인서를 취득한 뒤에 (모듈B) 제조업자가 제품이 확인서에 기재된 형식과 일치한 지 또는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선언한다. 선언 후에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D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 제조업자가 모듈B에 의거, 제조공정이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품 제조 시 수시로 품질시스템 심사 (예: EN/ISO 9002)가 실시된다. 그런 다음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E (product quality assurance)
 - 제조업자가 품질시스템 심사 하에 (예: EN/ISO 9003) 제품을 생산하고 모듈 B에 의거해서 제품이 EU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확인한 후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F (product verification)
 - 제조업자가 모듈B에 의거해서 생산된 제품이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통지기관은 생산된 제품이 형식 테스트에서의 type과 일치함을 검사한다. 검사 후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G (unit verification)
 - 통지기관이 모든 제품에 대해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각 테스트마다 보고서가 작성된다. 테스트 후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H (full quality assurance)
 - 제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최소한EN/ISO 9001에 상응하는 품질시스템 검사를 실시한다.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지기관으로부터 감시하도록 한다. 제조업자는 자신 스스로의 책임 하에 제품이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확인 후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4) CE 마크 부착



- CE-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하여야 한다.
- CE-마크는 위와 같은 마크로 표시되어야 한다.
- CE-마크의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마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읽기 쉽게 그리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에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했다면 통지기관 인식번호 역시 CE-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번호의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있다.

5) 통용 지역

CE-마크는 EU국가와 EFTA국가에서 통용된다. (EFTA국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EFTA 국가이지만, 유럽 연합 회원국이 아니므로 CE 마크 의무국가는 아니다.)

나. 기타 인증 마크

독일 및 유럽에서 통용되는 인증마크에는 GS, VDE 그리고 BG-PRÜFZERT 등을 들 수 있다.

- GS (Geprüfte Sicherheit: 검증된 안전)
 - GS마크는 제품이 독일기기 및 제품안전에 관한 법(das Gerät-und Produktsicherheitsgesetz)이 요구하는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마크이다. GS마크는 일반적인 품질 인증서가 아니며 때문에 제품수명과 관련된 인증은 보장할 수 없다. GS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선 소위 GS-Stelle라는 검사기관 (예, VDE, LGA, TÜV, BG-PRÜFZERT 등)에서 type 테스트를 의뢰해야만 한다. 그밖에 GS-Stelle는 공장감시 등을 통해 제품을 계속적으로 컨트롤한다. 제품에 변경사항이 생길 시 제조업자는 GS-Stelle에 즉각적으로 보고해야하며 이에 맞는 조치가 GS-Stelle에서 취해진다 (새로운 테스트 실시 내지는 인증서 내용 추가변경 등). GS마크는 기술부품 내지는 소모성 완제품을 위해 발행될 수 있다(예, 기계, 공구, 장난감, 전자기기, 전등, 가전제품 또는 가구). GS마크는 CE마크처럼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인증이 아니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인증마크이다.
- VDE(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전기전자 IT 협회)
 - 1893년도에 설립된 독일 전기전자 IT협회는 전기전자 분야의 엔지니어들의 협회로써 이 분야 규정 및 스탠다드 제작에 노력하고 있다. 5개의 하위 협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IT협회, 에너지테크닉 협회, 독일 생명공학 기술협회, 마이크로테크닉 VDI/VDE 협회 그리고 측정 및 자동화 기술 VDI/VDE 협회이다. 자체적으로 VDE인증마크를 설정, 전기전자 및 IT분야 안전관련 인증을 대행하고 있다. VDE 인증마크는 독일 전기전자 제품뿐 아니라 기기 및 제품안전법에서 언급되는 제품도 포함하며 독일 의료기기법에서 언급되는 의료기기 역시 포함하고 있다. VDE인증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제품이 VDE 규정을 준수 했음은 물론 유럽 혹은 국제규정에 적합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 BG-PRÜFZERT (BerufsGenossenschaftliche Prüf- und Zertifizierungs-stelle: 검사 및 인증 직업연맹)
 - 1984년부터 검사 및 인증 직업연맹인 BG-PRÜFZERT는 소모성 완제품, 부품 및 부속품의 안전을 위한 자체적인 인증마크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BG-PRÜFZERT 인증마크를 위해서는 BG-PRÜFZERT (독일 내 19개소)에서의 제품검사가 필수적이다. 취득한 인증마크는 최고 5년간 유효하며 한번 연장이 가능하다. BG-PRÜFZERT는 특수한 용도를 별도로 구분해서 취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생상태만을 인증 받을 수 있다.

다. 참조자료

- Wikipedia 인터넷 사이트: <http://de.wikipedia.org/wiki/CE-Kennzeichnung>
- 기타 인증서 사이트, Wikipedia <http://www.hvbg.de/d/pages/index.html> 등

19. 지적재산권

독일상표법에 따라 특허권은 독일 원천 소재 독일 특허청의 결정에 따라 특허 명부에 등록되고 특허 관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특허 취득은 반드시 특허 출원에 의해 유료로 진행되는

특허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허 취득은 반드시 활용 목적이 뚜렷한 최초의 발명으로 제한된다. 외국인도 독일인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독일 내에 거주지가 없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독일 내에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독일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특허신청을 해야 하며 특허권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독일어로 작성되지 않은 특허 등의 출원도 제출일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이 경우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변호사에게 인증을 받거나 법원이 지정한 번역사에 의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 및 실용신안과 저작권의 차이는 특허 및 실용신안이 등록(registration)을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반면에 저작권은 등록 없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또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상업적 목적에 따라 제작되며 저작권은 이러한 특수 목적 이외에 더 큰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관련 국가기관이 있어 국가기관 차원에서 관리하지만, 저작권은 개인 스스로가 보호 및 권리 주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위 징수단체 (collecting societ)가 있어서 개인의 저작권 보호를 대행하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예를 들어서 독일음악 저작권보호협회(GEMA) 같은 협회가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별 개요

가. 산업재산권

1) 특허 (patent, Patent)

- 관련법: 특허법, Patentgesetz(§ § PatentG)
- 적용분야: 산업/공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발명, 모든 분야에서 사용가능.
- 보호기간: 20년까지 연장가능

□ 구비 서류

- 신청서 (Antrag auf Patenterteilung): [양식](#) (워드 문서)
 - 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에서 구할 수 있음.
 - * 특허신청 관련 각종 양식 : <http://www.dpma.de/formulare/patent.html>
- 기술명세서 (Beschreibung)
 - 기술명세서에는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서술과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킨 내용 혹은 발명을 통해 얻어지는 장점이 기술되어야 한다.
 - 발명 용도와 관련 도면 (1장 혹은 여러 장)
- 특허권주장 (Patentansprueche)
 - 본 발명이 어떻게 기존의 기술과 다른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정확히 특허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

- 발명자 (Erfinder) : 양식
- 요약서 (Zusammenfassung): 최대 150 자 이내
- 우선권주장 서류 (필요시)

□ 출원 비용

- 신청 비용 : 60 유로 (인터넷 신청시 50 유로)
- 조사 비용 : 250 유로
- 심사 비용 : 350 유로
- 특허권 유지비용 : 매년 70 유로

□ 특허권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

- 통상 2년 ~ 2년 6개월 소요
(단,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신청서와 출원 비용을 납부했을 경우)

□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 출원해야 하는지?

-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출원 가능함. 독일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자는 독일 국내 거주 변리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함.

□ 특허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할 있나?

- 뮌헨, 베를린 소재 특허사무소 및 각 지역 특허정보센터에서 공표된 특허정보 검색가능
- 독일특허청은 전세계의 특허 정보 3천 여만 건을 인터넷플랫폼 DEPATISNet
- <http://depatisnet.dpma.de> 을 통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http://ep.espacenet.com> : 유럽특허청 (EPO) 및 회원국들의 특허 정보 제공 사이트

2) 실용신안 (utility model, Gebrauchsmuster)

- 관련법: 실용신안법, Gebrauchsmustergesetz (§ § GebrMG)
- 적용분야 : 산업/공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발명, 기술 및 화학식은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없음.
- 보호기간: 기본 3년. 10년까지 연장가능

3) 의장 (design right, Geschmacksmuster)

- 1876 년이래 보호받은 권리로서, 1988 년 7 월 1 일부터는 독일 국내 및 국외의 신청자들이 독일특허 및 상표청 (DPMA)에 등록 가능해 짐.
- 관련법: 의장법, Geschmacksmustergesetz (§ § GeschmMG)
- 보호조건 : 새로운 동시에 독창성을 지녀야 함.
- 의장법 § 1 조 1 항에 의거 의장은 평면 혹은 입체 (대상 전체 혹은 일부), 특히 선, 윤곽, 색상, 형태, 표면 또는 제품의 재질이 포함됨. 의장법 § 1 조 2 항에 의거 산업 및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포함, 예를 들어 포장, 외형, 그래픽 심볼 혹은 글자도안.

- 방법: 의장등록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서명, 신청인 신상명세, 의장등록용 자료, 의장이 들어갈 제품 설명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 보호기간: 25년

4) 상표권 (Branding, Marken)

정신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서비스용 포장에 부착되는 상표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UR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독일상표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한 무역상대국에 대해 대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는 상품 등을 영업상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생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그 사용자 또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유형 또는 벌금이 과해지게 된다.

- 관련법: 상표법 Markengesetz (§ § MarkenG)
- 보호기간: 10년 (차후에 추가 등록 비용 납부로 계속 10년씩 연장가능)
- 등록방법: 신청서작성/제출. 기한은 평균적으로 10~12개월소요.
- „®“은 „등록했음“을 의미하며 등록된 제품에만 표시가능, 하지만 반드시 제품에 표시할 의무는 없다. TM은 Trademark의 약자로 영어권 나라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으며,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한다.

5) 기밀 (Secret, Geheimschutz)

- 관련법: 형법, Strafgesetz (§ 93 Abs.1 StGB)
- 적용범위: 국가기밀은 자국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 및 기기로 주로 방위기술
- 원자력기술, 증권 및 Security 서류 그리고 암호기술 등이 포함된다. 기밀은 특허 및 실용신안만 가능

나. 저작권 (copyright, Urheberrecht)

유효기간: 독일의 경우 저작권 소유자 사망후 70년까지

< 관련법 >

- Copyright Law (Urheberrechtsgesetz, UrhG)
- Publishing Law (Verlagsgesetz, VerlG)
- Copyright Administration Law (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UrhWahrnG)

<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 >

1. 독일특허 및 상표청 (DPMA)

- Deutsches Patent-und Markenamt
 - Add : Zweibrueckenstr. 12 D-80297 Muenchen Germany
 - Tel : 49-(0)89-2195-0
 - Fax : 49-(0)89-2195-2221
 - E-mail : info@dpma.de (특허 신청관련 각종 문의)
 - Web : http://www.dpma.de

2. 독일변리사협회

- Deutsche Patentanwaltskammer
 - Add : 29 D-80331 Muenchen Germany
 - Tel : 49-(0)89-2422-780
 - Fax : 49-(0)89-2422-7824
 - Web : <http://www.patentanwaltskammer.de>

3. 유럽특허청

- Europaeisches Patentamt
 - Add : Erhardstrasse 27 D-80331 Muenchen Germany
 - Tel : 49-(0)89-23990
 - Fax : 49-(0)89-2399-4465
 - Web :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

4. 음악 저작권협회 (GEMA)

: Gesellschaft fuer musikalische Auffuehrungs-und mechanische Vervielfaeltigungsrechte

- Web : www.gema.de

5. 미술 및 사진 저작권 협회

: Verwertungsgesellschaft Bild-Kunst (VG Bild-Kunst)

- Web : www.bildkunst.de

6. 문학 저작권 협회

: Verwertungsgesellschaft Wort (VG Wort)

- Web : www.vgwort.de

7. 예술 저작권 협회

: Gesellschaft zur Verwertung von Leistungsschutzrechten (GVL)

- Web : www.gvl.de

8. 음악사용 저작권협회

: Verwertungsgesellschaft Musikedition (VG Musikedition)

- Web : www.vg-musikedition.de

9. 지도 및 전자문서 저작권 협회

: Gesellschaft fuer kartographische Abdruck-und elektronische Vervielfaeltigungsrechte (GEKA)

- Web : www.geka-online.de

< 유용한 사이트 >

- 독일연방법원 인터넷 법조문 열람 사이트: <http://bundesrecht.juris.de/index.html>
- 자란트 대학 사이트
- <http://remus-hochschule.jura.uni-saarland.de/urheberrecht/index.html>
- 위키사전: <http://de.wikipedia.org/wiki/Verwertungsgesellschaft>

20. 소비자보호제도**가. 개 황**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규는 대부분 불공정거래 규제법 (UWG,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가격의 표기와 관련된 규정은 물론이고 개정 시간 관련규정, 소비자 현혹 광고나 비교 광고의 금지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 약관을 작게 표기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제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관련 기구에 감독권을 주고 있다.

독일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민간단체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활동보다는 법규에 따른 소매업 규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음식이나 약품 등과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이들 규정에 의거하여 잘못된 제품의 반품이나 기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절차 등은 국내 제조업체나 수입품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소비자는 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문판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독일의 가장 오랜 소비자보호법은 1516년 바이에른 공국 빌헬름 4세 (Wilhelm IV)가 공표한 맥주순수법(Reinheitsgebot)이다. 이 법은 맥주 제조시 어떤 화학물질도 첨가하지 않고 홉(Hopfen), 맥아(Malz), 물(Wasser)만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효모(Hefe)는 나중에 추가되었다.

나.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단체**1) 독일소비자보호/생필품안전청**

(BVL, Bundesamt fue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 웹사이트 : <http://www.bvl.bund.de>
- 독일은 식품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해 문제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바렌테스트 재단(Stiftung Warentest)

- 1964년 독일 의회 발의로 설립된 소비자보호단체 바렌테스트재단(Stiftung Warentest)은 소비자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각종 소비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 및 주의사항을 자체 정기 간행물(Test, FinanzTest) 및 홈페이지 <http://www.stiftung-warentest.de/online>를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EU 소비자 보호법의 10가지 기본 원칙>

- ① 무엇이든, 어디서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
 - EU 회원국 정부는 타 EU회원국에서 구입한 제품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단 무기, 음란 물 등은 예외.
- ② 구입 물품이 작동하지 않으면 반환할 수 있다
 - 구매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제품은 반환 또는 수리 요구 가능
- ③ 음식 및 소비제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성
 - EU 식품 안전법은 식품 생산, 가공, 첨가제, 판매 등에 대해 규정 문제 제품 발견 시, 관련 당국에 신고할 법적 의무 지님.
- ④ 소비자가 섭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 EU 식품 포장법은 식품 원료, 첨가제, 색소 등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
 - 유전자변형 식품 여부 및 유전자 식품을 원료로 사용했는지도 표시해야 함.
- ⑤ 소비자와의 공정 계약
 - 깨알 같은 글씨로 기재된 예치금 환불 불가와 같은 불공정 계약 내용 금지.
- ⑥ 소비자의 구매의사가 바뀔 수도 있다
 - 방문 판매 계약의 경우 구매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 인터넷, 우편, 전화 등으로 물품 구매 시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취소 가능.
 - 일부 금융 계약의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 ⑦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를 용이케 한다
 - EU 법은 kilo, liter 등의 단위 가격을 표시,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 대출, 신용카드의 경우에 월 납부금이 아닌 연 이자율 (%)을 표기해야 함.
- ⑧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광고 금지. EU법은 우편, 인터넷, 전화판매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자, 제품, 비용, 세금, 배달비용, 배달기간에 대해 고지 의무 지님.
- ⑨ 소비자는 여행 중에도 보호를 받는다
 - 패키지 여행의 경우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 (여행자)는 손해 배상 청구 가능.

⑩ 국가간의 불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돕는다.

- EU 소비자 보호 센터망 (EU Consumer Centers Network)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홍보하고 타 회원국 제품 구매에 따른 분쟁 발생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가이드 제공.

다. 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법

독일은 1990년 1월 1일부터 제조물 책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1985년 7월 25일부터 발효된 EU의 제조물 책임법에 기초하고 있다. 동 법은 제품, 피해, 결함에 대한 정의, 입증 책임, 소멸시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독일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Law) 개요>

- * 관련 규정 : EU Directive on Product Liability (85/374/EEC),
EU Directive on Product Liability (1999/34/EC)

1) 목적

- 제품(Product) 결함(defect)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damage)에 대해 제조자에게 책임(Liability) 부과

2) 제품 (Product) : 서비스를 제외한 물리적 특성을 지닌 제품.

- 완제품은 물론 원료와 부품이 제품에 포함됨. 농산물 (육류, 시리얼, 과일, 채소)은 EU의 새 지침 (1999/34/EC)에 따라 포함되었음.

3) 제조자 (Producer)

- 완제품, 원료, 부품 생산자
- 제품에 이름, 상호 등으로 생산자로 표기된 자
- 제조자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제품 공급자
- 제품 수입자

4) 피해 (Damage)

- 신체적인 피해 (사망 또는 부상)
- 물질적인 손해
- * 계약을 통해 제조물 책임에서 면제되거나, 책임 범위를 축소할 수 없음.

5) 피해 입증 책임

- 피해를 입은 자가 제품 결함, 피해의 존재, 그리고 제품 결함과 피해와의 원인 관계를 설명해야 함.

6) 손해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Recovery of Damages) : 3년

- 손해배상 청구 기간 기산점은 사용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결함 그리고 생산자를 인지한 날 또는 인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부터 계산하여 3년간임.

7) 제조자 책임 시한 (Time Limit) : 10년 (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예외)

- 제조자는 제품을 시장에 반입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조물 책임으로부터 면제됨.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 BAFA(독일경제 및 수출관리청, Bundesamt fue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 BAFA는 제3국으로부터 유럽연합으로 유입되는 상품을 통제하고, 유럽연합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허가 및 통제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import licences) 및 감시문(surveillance documents)을 작성/발표한다.
- 홈페이지: <http://www.bafa.de>

□ BFAI(Bundesagentur fuer Aussenwirtschaft, 독일 연방 대외무역공사)

- 무역진흥사업 연구, 조사 사업, 비즈니스 미팅, 투자관련 정보, 관세정보 제공 1955년 설립, 독일연방 산업, 노동부 산하
- 홈페이지: www.bfai.de
 - 주소: Agrippstr 87-93, 50676 Koeln
 - tel: +49-(0)221-20570, fax: +49-(0)221-2057212
 - E-Mail: info@bfai.de

□ fArM(Bundesinstituts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영문 기관명: Federal Institute for Drugs and Medical Devices)

- 독일 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료 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검사, 심사기관
- 홈페이지: www.bfarm.de

□ Federal Agency for Agriculture and Food(독일농업 및 식품청): <http://www.ble.de>

□ 독일 세관: <http://www.zoll.de>

□ 독일통계청: <http://www.destat.de>

22. 시장 특성

가. 시장특성

독일은 2005년말 기준으로 총 GDP가 2조 2,440유로로 미국, 일본에 이어 제 3위의 경제대국이다. 시장특성을 살펴보면 독일은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독일업체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한번 신뢰가 형성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규 거래선 발굴이 어려우나 일단 거래가 트이면 장기적으로 거래가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여 가능하면 낮은 가격의 좋은 제품을 찾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디자인, 포장 등 비가격 요인 또한 중요시한다. 독일인들은 엄격한 계획성과 합리적 사고방식이 생활 습관으로 배어 있어 총동 구매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거의 모든 거래를 문서 위주로 행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별도의 구매 시즌은 존재하지 않으나 크리스마스, 대 바겐세일 기간 중에 의류 및 가정용품의 경우 연간 구매의 70-80%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유통 업체들도 이 시즌에 대비하여 연간 물품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상들은 연말, 연초 또는 구매시즌 전에 독일에서 개최되는 산업별 주요 박람회에서 수입대상 품목을 선정, 연간 구매계획을 확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적으로 소비재의 경우 독일내 수입품의 70% 이상이 관련 박람회를 통해 구매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인들은 높은 국민소득과 잘 구축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상당히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고 따라서 여가생활 또한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독일정부의 정책기조가 기업가 중심으로 전환되고 특히 통일 이후 일반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면서 일반 서민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빈부의 격차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노령층의 증가 및 근로자수의 감소 등으로 노후 지급되는 연금이 감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중소기업 유통업체와의 M&A 지속으로 유통업체의 대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 대형 유통 업체들은 전국적 유통망을 가지고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경제의 지방 분권화가 철저히 이루어져 있어 지역별 세일즈 대행업자를 통한 판매활동 또한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다.

나. 현지의 문화관습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은 현재 구교와 신교가 거의 반반으로 남부지방은 구교가 강하고 북부지방은 신교가 널리 퍼져 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이후 교회는 사적 단체가 아닌 국가와 협력하는 독립적이며 공적인 법인 성격을 띠고 있다. 교회는 각 신자들로부터 종교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 징수는 주 혹은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한다. 교회 구성원에서 탈퇴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독일인들은 의식주 중에서 특히 주를 중요시 여겨 오래된 건물인데도 외관을 원래의 모양대로 보존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부 실내장식은 매우 현대적이며 기능적으로 꾸며져 있다. 음식은 검은 빵과 감자, 치즈 등 검소하게 먹는데 저녁식사도 불을 쓰지 않는 Kalte Speise로 때우는 예가 많다.

독일은 19세기 후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300여 제후와 자치도시로 분열되어 있어 지역성이 강하고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다소 고집스럽고 자기의 전통을 지키려는 성향이 많으나 자기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장인정신이 생활가운데 배어 있다.

관공서의 일처리 또한 원리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지켜지며 뇌물은 통용이 안된다. 그러나 간단한 이국적인 선물은 허용되며 한국산으로는 태극무늬의 부채, 전통도자기, 문갑 등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런치 정도는 업무진행에 순기능을 하며 아는 사람을 통한 업무추진도 일의 처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수입 관행

대부분의 대규모 수입은 L/C 베이스로 이루어지나 상호간 신뢰가 확실할 경우에는 D/A, D/P, T/T거래도 행해지고 있다.

이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한국 업체들의 경우 계약조건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바이어들은 계약 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한다. 한국업체의 경우 계약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계약조항과 다른 선적 등으로 클레임을 당하거나 수출 대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전시회 참가

- 해외전시회 참가는 바이어와 얼굴을 맞대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현지 시장 동향, 신기술 동향 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바이어발굴 방법중의 하나이다.
- 해외전시회정보는 KOTRA 운영 한국전시포탈, 독일 전시협회 (AUMA), 한국전시산업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한국전시포탈 : <http://www.exportal.or.kr>
- * 독일전시협회 : <http://www.auma.de>
-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http://www.kei.or.kr>

나. 시장개척단 참가

- KOTRA,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은 해외시장 개척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해외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해준다. KOTRA 100여개 해외무역관에서 사전에 관련 바이어를 접촉, 단체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토록 지원해주므로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마케팅 방법이다.

다. KOTRA 해외조사대행 이용

- 해외조사대행이란 KOTRA의 해외조직망을 통하여, 고객이 요청하는 유망 바이어정보는 물론 관련 제품의 해외시장정보 (수출입통계, 유통구조, 시장동향 등)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이다. 거래선 발굴조사는 현지 수입상의 유선상으로 표명하는 수입 관심도와 현지 시장성(marketability)을 개괄적으로 조사해주는 [관심바이어조사]와 해외무역관 직원이 고객을 대신하여 1차 상담까지 대행해주는 [관심바이어상담] 등 2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OTRA 홈페이지의 조사대행 안내 사이트를 방문 알아볼 수 있다.

라. 수출상품 전문카탈로그 광고 게재

- Korea Trade, Korea Trading Post, Buyers Guide 등 수출상품 전문 카탈로그에 자사 제품 광고를 게재, 홍보 신규 거래선을 발굴할 수 있다.
 - Korea Trade : KOTRA 발간 수출상품 전문 카탈로그로 전세계 100여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배포(http://www.kotra.or.kr/main/kor_trade/kor_trade.jsp)
 - Buyers Guide : 바이어스가이드사 발간 수출상품 전문 카탈로그 (http://www.buyersguide.co.kr/bg/sub02_1.html)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전문 검색 사이트 이용

Kompass 등 기업정보 제공 전문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e-비즈니스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바이어를 검색할 수 있다.

해외 시장 개척 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업의 신용 상황은 고정되어 있지않고 늘 변하므로 신용정보 제공 기관의 특정기업에 대한 신용 정보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정보 활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 WLW : <http://www.wlw.com> 유럽 15개국 40만 여 개사 정보 검색 가능
- EuroPages <http://www.europages.com>
- KOMPASS : <http://de.kompass.com>
- 독일 Yellow Pages <http://www.gelbseiten.de>
- Firmenwissen : <http://www.firmenwissen.de> (유료 회원제)
- * 기업 신용정보 제공기관
- 크레디트레폼 (Kreditreform) <http://www.kreditreform.de>
- Dun & Bradstreet <http://dbgermany.dnb.com/English>

<독일 함부르크 소재 기업 정보 검색 방법>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독일어로 되어 있지만 인터넷 사전 (독일어-영어)을 이용, 큰 어려움 없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단, 한가지 한국과 거래하고 잇는 기업 정보를 검색할 경우에는 반드시 Sudkorea라고 띄어 쓰지 않고 입력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에러메시지가 뜨거나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뜬다.

<기업 정보 검색 방법 및 순서>

1. 함부르크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hk24.de>를 접속한다.
2. 초기 화면 상단에 있는 Firmen (기업) 클릭
3. Datenbank Hamburger Unternehmen (함부르크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클릭

4. hier (이 곳)클릭
5.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빨리 찾기(Schnellsuche)를 선택후 검색창에 회사명이나 상품명 등을 입력한 후에 Suchen (찾기) 버튼을 누른다.
 - Komfortsuche(확장검색)를 선택 후 기업형태, 산업분야 등의 코드 입력 후 Suchen (찾기) 버튼을 누른다.
 - Laendersuche(국가명으로 찾기) 선택 후 국가명을 입력한 다음 Suchen(찾기) 버튼을 누른다.
 - Warensuche(상품명으로 찾기) 선택 후 상품명을 입력한 후 Suchen (찾기) 버튼을 누른다.

<독일어 영어 사전 사이트 접속 방법>

- www.leo.org 사이트에 접속
- Deutsch - Englisches Wörterbuch를 클릭

나. 전시회 사이트 방문

독일 전시회 참가 업체 목록을 해당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전시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거나 자사제품 관련 수입 업체를 소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http://www.auma.de> (독일전시협회 사이트)
- <http://www.fkm.de> (각종 전시회 통계정보 제공)

다. 독일 이트레이드 센터 (e-trade-center) 활용

KOTRA에서 운영하는 Buykorea와 같이 독일에도 수출입업체를 위한 이트레이드 센터가 있다. 이트레이드 센터에서는 독일 기업정보, 전시정보는 물론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트레이드 센터에서는 관심 독일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무료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잠재 고객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12개 협력 기관 데이터 베이스를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다. 이트레이드 센터는 2001년 독일 상공회의소, 독일 상공회의소 연합, 외국 독일 상공회의소의 통합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 되었으며 현재는 12개 관련 데이터 베이스 통합 검색이 가능하다.

인콰이어리가 협력 기관 어느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이 되더라도 e-trade-center에서 열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e-trade-center만 방문하면 된다. e-trade-center 웹사이트 화면은 검색, 인콰이어리 등록, 마켓 플레이스, 협력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콰이어리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웹사이트 접속
 - <http://www.e-trade-center.com>
- 화면 상단 E-TRADE-CENTER-ENTRY 버튼 클릭 후, 화면 하단의 For the questionnaire please click here! 버튼 클릭
- 데이터 입력 후 Forward 버튼 클릭하면 인콰이어리가 등록됨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효과적인 비즈니스 협상법

1) 완벽한 협상가

어느 유명한 독일 외교관은 훌륭한 협상가는 ‘세계 제조공의 인내심을 가지고 선입관이나 고정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고 말했다. 상대방과 논쟁이나 요구 사항으로 대립하지 말아야 한다. 협상 초반에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친밀감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하면 논쟁 가능성이 적은 스포츠, 오락, 비즈니스 이슈 등의 분야 최근 뉴스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2) 분명한 협상 목표를 세우고, 시간 계획을 세워라

‘어디를 가고 싶은지 모르면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는 속담처럼 협상에 임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 중요한 목표
- 협상 불가능한 내용
- 주고 받거나 양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사항 등

그리고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관심, 요구, 생각 (철학), 스타일, 지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3) 자신의 강점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상대방이 똑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강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

4) 적절한 타이밍 (순간)을 포착하라

자신이 주장할 내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주장을 얘기할 적절한 타이밍을 잘 포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5) 공정하고 객관적이어라

협상 시에는 냉정하고,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You are..” , “You have..” 로 시작되는 표현은 상대방이 공격 당하는 느낌을 받아 자신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협력심을 해치는 수동적인 자세와 경쟁심을 유발한다.

상대방이 자신을 자극하거나 모욕하면, 화제를 바꾸고 대화 주제 자체보다는 대화 분위기에 대해 얘기하라. 그리고 상대방이 소리치며 겁을 주려고 하거나 울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경우 최선의 대응 방법은 전혀 대꾸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잠시 휴식을 취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롭고 비 논쟁적인 화제 (스포츠 등)로 대화를 시작하라.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협상을 시작한다고 느끼면 천천히 5가지 세고 답변을 한다.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다른 방법은 해변의 아름다운 저녁놀과 같이 뭔가 유쾌한 일을 떠올리는 것이다.

6) 주의 깊게 듣고, 질문하고, 반복하고, 요약하라

협상하는 동안 오해와 애매모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다

- ① 상대방의 몸짓에 집중하고 말이 모두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바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귀 기울여 듣는다.
- ② 인내심을 가지고, 말을 적게 하고, 기다리는 것은 종종 협상 성공의 열쇠이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상황을 잘 파악하는데 시간을 줄 수 있다.
- ③ 상대방의 말을 자신이 이해한대로 해석하지 말고, 질문하라. ” 질문하는 사람이 리드한다 (The one who asks leads.).’ 는 독일의 옛 속담처럼 좋은 질문은 당신이 주의 깊게 듣고 있고, 상대방의 주장 동기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 자신의 주장을 시각화하라

자신의 주장을 구두로만 하지 않고, 차트, 그래프 등의 자료를 활용 시각화하라. 시각적인 도구 활용은 여러분의 주장과 계산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고 더 받아들이기 쉽게 만든다.

8) 지혜롭게 표현하라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I see this differently.)’ 보다는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군요. 이 사안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You are talking about a point that can be seen from many different angles. In this cas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과 같이 말하는 것이 좋다.

9) 나 (I) & 우리 (We)

자신의 확신을 주장할 때는 “I” 를, 회사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we (we have, we are, we think..)”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패나 부정적인 얘기는 ‘I am disappointed that..., I wonder why...’ 와 같이 “I” 를 사용하라.

10) 실패를 다루는 방법

협상은 끊임없는 주고받기 게임이다. 협상에서는 양보를 실패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협상은 “all or nothing, win or lose”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상에 임할 때는 “상대방을 패배시키거나, 상대방의 자존심을 손상케 한 사람은 누구든지 언젠가 복수할 기회를 노리는 적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 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1) 급한 협상

짧은 통보 기간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메일로 상대방에게 미팅 포커스, 아젠다 내용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은 협상 준비에 여유 시간을 갖고, 목표 지향적인 토론이 가능하게 된다.

12)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협상 막바지에는 토론된 내용을 요약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한다. 여러 명이 협상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플립 차트를 작성, 모두가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1대 1 협상의 경우에는 합의 내용을 서로 확인하는 메모가 적절하고, 추후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료원 : Business Etikette in Deutschland)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가. 계약내용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함.

대금 결제 방법 및 환율 변동에 대비해야

예를들어 수출 대금 결제조건이 DDP (Delivery Duty Paid)인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인도 의무를 짊어. 따라서 수출자가 관세, 현지 운송비, 통관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됨. 하지만 부가세 (2006년 5월 현재 16%, 2007년부터 19%로 인상)는 수입자가 선납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계약서 (Sales agreement) 작성이 부가세는 하주 (consignee)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좋음.

수출보험공사 <http://www.keic.or.kr> 에서 운영하는 ‘환변동보험제도’ 등을 잘 활용,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결제 위험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

나. 분쟁 발생을 대비해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함.

중재지는 협상력의 우위에 따라 수입자는 대부분 자국 중재지를 선호하나 제 3국으로 중재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중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사주재원 홈페이지를 방문,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 대한상사중재원 추천 중재조항 조문 >

□ Arbitration (중재지를 서울로 한 경우)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www.kcab.or.kr

27. 통관절차

가. 개황

- 독일은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로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제한이 거의 없으며 기타 쿼터 및 덤핑제도 등은 EU 의 결정에 따른다. 수입관리는 대외경제법 (AWG), 대외경제법 시행령(AWV) 및 AWG 의 제 10 조 1 항의 부속서로 매년 말 발간되는 수입 목록서(Einfuhrliste)에 따른다.
- 독일의 통관절차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며 필요서류는 신청서, 인보이스 원본,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Lieferantenerklaerung)이며 이 밖에 수입 승인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허가서가 필요하다. 1988 년부터 시행된 EU 의 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150 여 가지의 통관 서류를 단일화하여 통일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EU 의 공동 관세규정(Codex)에 의거한 물품 분류 및 그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수출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

1) 수입통관 시 구비서류

-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

2) 수입통관 절차

- 1 단계
 - 수하인(Consignee)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등록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송부.

- 2 단계
 - 통관 대행업체 (Forwarding company 가 주로 수행)는 선적서류 (Shipping Document)와 하주(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시스템에 등록 (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후 수입승인번호 (ATA No.)를 발급 받음.
- 3 단계
 - 보세구역 (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 반입.

3) 결제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 부담 범위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해상운임 (Ocean freight),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SC (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 (Custom's brokerage)
 - 관세(부가세 16%는 하주(Consignee)가 부담해야 함. DDP 조건의 수출 시 계약서(Sales Agreement)에 부가세는 Consignee 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규정해야 사후 분쟁 예방 가능. 2007년부터는 부가세가 19%로 인상될 예정이니 주의 요망.)
-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
 - 상기 DDP 조건 중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 수출통관

1) 1 단계: 수출 통관에 필요한 서류 준비

- 구비서류
 - 수출면장 (Ausfuhrhandelsbestaetigung)
 - EC 역내 (EX-1): EU 회원국에 수출 시 EX-1 양식 사용
 - EC 역외 (T-1): 스위스와 같이 EU 회원국이 아닌 경우 T-1 양식 사용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수출상품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수출품

2) 2 단계

- 상기 구비서류를 가지고 통관시스템(Dakosy 등)에 등록절차를 거친 후 ZAPP(B-number) 번호를 발급 받음.

3) 3 단계

- 수출품을 해상, 항공 편 등을 통해 운송

□ 전시품 통관

- 한국과 독일은 전시통관 관련 협정을 통하여,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CARNET ATA 를 통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단

현지 박람회 기간 중 대리점이나 바이어에게 샘플로 현지 처분하는 물품은 수입통관을 하여야만 한다. CARNET 면장에 대한 수수료 문의는 한국의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진행하면 된다.

다. 참고사이트

1) 독일 세관

○ <http://www.zoll.de>

2) 다코시 (DAKOSY)

○ <http://www.dakosy-direct.de>

3) 독일 관세율 정보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cgi-bin/tarchap?Lang=EN

○ 독일만의 별도의 관세율은 존재하지 않고, 1990년부터 EU와의 통합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U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아래의 관세 조회 사이트를 통하여, 상세품목에 대한 국가별 EU 지역 통합관세를 검색할 수 있다.

라. 수입승인 및 기타 규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

○ 수입목록에 기재된 품목 중, 아래의 품목들이 수입 승인(Genehmigung) 및 기타 규제의 대상이 된다.

- ① 수입승인(Genehmigung)을 요하는 것: 수입 리스트의 제 4 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이 요구된 경우
- ② 수입 License(Lizenz)을 요하는 것: 수입 목록의 제 4 컬럼에 "L"라는 코드가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License(Einfuhrlizenz)가 필요하다. 단, EU의 조직(organe)이 별도조치를(etwas anderes)를 실시하지 않는 한 수량제한은 채택 되지 않는다.
- ③ 원산지 증명(Ursprungszeugnis)을 요하는 것: 수입 목록의 컬럼 5에 "U"라는 코드가 있으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또 "UE" 표시품목에는 원산지진술서(Ursprungserklärung)가 필요하다.

마. 수입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 수입 제한(Beschaerfen), 감시(Ueberwachen) 또는 점검(Kontrolle)을 요하는 품목 (컬럼 5)은 다음과 같다.

- ① EU 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 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0" 표시 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ation oder Handelsregelung(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 거래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들은 EU 이사회 또는 집행위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 ② 감시(EU 회원국 전체가 또는 EU 집행위의 승인 하에 독일 단독으로) "UeD" 표시 품목들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 기타를 기재한 감시서류(Ueberwachungsdokument)를 연방경제청(BAW, Eschborn 소재)이나 연방농산 식품청(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을 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관청의 선택기준, 즉 BAW 인지 연방농산 식품청인지 여부는 칼럼 3에 명기되어 있다)
- ③ 점검신고 "EKM" 품목들은 BAW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관 시에 수입점검 신고(Einfuhrkontrollmeldung)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바. 수입목록 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들: 규제품목

- 일반적 규제(3 항목): 국제조약, 협정(GATT 또는 EU의 Roma 조약 등)에 의한 것
- 공공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11 항목): 은행권, 정부채권 등에 사용되는 종이, 무기, 폭발물, 핵물질, 방사성 물질 등
-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4 항목): 폐기물, 연료첨가용 연 및 이를 함유하는 물질, DDT, 유독물
- 건강보호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18 항목): 식용, 정육관계(9 항목), 계란 및 그제품(2 항목), 기타 식품(3 항목), 마약, 전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알콜, 인산동물(13 항목), 식물(5 항목)
- 공업소유권의 보호(3 항목): 원산지의 허위신고 금지에 관한 Madrid 협정(1925.3.21) 비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상동 Lisbon 협정(1958.10.31)에 저촉되는 경우, 상표법(Markengesetz, 94.10.25에 Warenzeichengesetz을 전면개정)에 저촉되는 경우, 농산물 시장 질서(Marketordnung과 관련) 유지대상 물품(8 항목)

사. 수입목록의 구입처

- Bundesanzeiger VerlagsgmbH, Koeln
 - Postfach 108006 50667 Koeln /Tel : (0221)20290, Fax : 2929278
- Bundesanzeiger VerlagsgmbH, Bonn
 - Postfach 1320 53175 Bonn /Tel : (0228)382080, Fax : 3820836
- Wilhelm Koehler Verlag
 - Brueckenkopf 2a 32372 Mindel /Tel : (0571)28031, Fax : 28021

아. ATLAS (Automatisiertes Tarif- und Lokales Zollabwicklungssystem) 개요

- 운영기관: 독일연방 재무부
 - 현재 전국 50여 개의 세관에서 운영 중
 - 홈페이지 : www.kost-atlas.de

- 성격: e 정부 구현(BundOnline 2005)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통관처리
 - 통관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
 - 상품분류 코드에 따라 관세 등 세율 자동 계산
 - 해당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중앙 데이터처리 서버에 직접 접속함으로써 시간과 노력 절약 효과
- 운영목적
 - 기존 분야별 통관 전산시스템의 통합: ALFA, DOUANE, SADAT, KOBRA 등을 ATLAS 로 통합
 - 전체 통관절차의 일원화
 - 주요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제 IT 프로젝트와의 통합
 - 국제무역 관련 정보교환 용이
- 사용방법
 - 사용 희망자는 동 시스템에 등록하여 ID를 부여 받은 후 사용
 - 사용료는 제품, 분야 등에 따라 다르며, 소프트웨어 비용이 별도
 - ID는 해당 본인과 대리인이 사용 가능
 - 전자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서명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참조

- : 독일의 경우, 공항 통관 시 출입국검사가 간소화되어 큰 문제는 없으나, 담배의 경우 철저히 통관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40유로상당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람. (1인 1보루 한정) 아울러 최근 테러 관련 보안검색이 강화되고, 조류 독감확산 방지를 위한 조류 육가공품 등의 검색이 강화되었음.

(자료원: 독일 관세청 홈페이지(www.zoll.de), 2006. 8))

28. 운송

가. 무역항

독일의 경우 북부독일지역의 일부가 바다와 접해있으며, 바다와 연결된 내륙의 길이는 400km정도이다. 최근 독일지역의 무역항은 독일이 수출 세계1위를 차지하고 무역규모가 증가 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추세에 있다.

- 함부르크
 - 독일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이며, 유럽 2 위의 물류항구인 동시에 세계 9 위의 컨테이너 항구이다. 과거 한자동맹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며, 연간 물동량은 2005년 기준 1억 2천만 톤에 달한다.
- 브레멘
 - 독일의 2대항구이며, 과거 한자동맹의 한 축을 형성하였던 항구도시이다. 브레멘 시는 브레멘 도시와 북부 30km 지점에 위치한 브레멘 항구로 나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연간물동량은 52백만 톤에 달한다.

- 빌헬름스하펜
 - 네덜란드 접경지역과 북해지역에 위치한 독일의 3 대항구이다. 2005 년 기준 연간 물동량은 45 백만 톤에 달한다.
- 그 밖의 무역항
 - 유럽의 동해(Ostsee)접경인 Rostock, Luebeck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내륙항인 Duisburg 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항구이다.

나. 공항

독일의 공항은 국제공항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뮌헨, 뒤셀도르프, 베를린,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쾰른 등 20여개의 공항이 있으며, 연간 승객 수는 1억 6천만 여명에 달한다. 특히 프랑크푸르트공항 및 프랑크푸르트 Hahn공항을 운영하는 독일의 최대 공항 운영사인 Fraport의 경우를 보면 해외진출에도 활발하다. 국제적인 순위로 본 독일의 공항은 승객 수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51백만명으로 세계 8위, 유럽 2위(영국의 히드로 1위)이며, 화물 운송량으로 본 공항순위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승객수로 본 독일의 공항(2005, 단위:명)			화물운송으로 본 독일의 공항(2005,단위:톤)		
1.	Frankfurt am Main	52,219,412	1.	Frankfurt	1,892,098
2.	München	28,619,427	2.	Köln/Bonn	650,949
3.	Düsseldorf	15,510,990	3.	München	208,662
4.	Berlin-Tegel	11,532,302	4.	Hahn	107,302
5.	Hamburg	10,676,016	5.	Düsseldorf	67,459
6.	Köln/Bonn	9,452,185	6.	Hamburg	24,990
7.	Stuttgart	9,405,887	7.	Stuttgart	17,305
8.	Hannover	5,637,385	8.	Berlin-Tegel	12,288
9.	Berlin-Schönefeld	5,075,172	9.	Leipzig/Halle	12,052
10.	Nürnberg	3,843,710	10.	Nürnberg	12,034
11.	Frankfurt-Hahn	3,076,823	11.	Berlin-Schönefeld	10,295
12.	Leipzig/Halle	2,122,233	12.	Hannover	6,551
13.	Dresden	1,728,901	13.	Erfurt	4,855
14.	Dortmund	1,742,911	14.	Bremen	776
15.	Dortmund	1,739,797	15.	Berlin-Tempelhof	573

다. 교통

독일의 교통망은 지하철, 버스, 전차, 기차, 항공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완벽에 가깝게 갖추어져 있으며 속도무제한으로 유명한Autobahn이라는 고속도로는 총 연장 20,000km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이나 2003년 11월부터 12톤 이상의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세를 적용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세 (LKW-Maut)는 1km당 평균 12.4센트 선이며, 고속도로 진입 시 설치된 센서와 화물차 운전석에 설치된 센서에 의해 자동 측정, 계산 후 일정 기간 내 일괄 납부하게 된다. 최근 독일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일반 승용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상태이나 일반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2006년 8월 현재 미 확정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는 지하철, 전차 및 버스를 이용하며, 시내에서는 택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거의 모든 택시는 콜택시이어서 어느 곳에서도 편리하게 전화로 부를 수 있다. 한편 철도역, 공항 및 시내 곳곳에 택시정거장이 있어 이곳에서는 대기해 있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요금은 시내가 1.25유로, 20km 이내가 3.25유로, 40km 이내가 5.90유로, 50km 이내가 8.50유로이다. 택시요금은 시내, 시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요금체계로 되어 있는데 기본요금이 2.25유로이며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3km까지는 1.48유로, 이 이후에는 1km당 1.33유로가 추가된다.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km당 1.48유로이다.

독일 철도망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으며 점차 고속전철인 ICE('이체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기차요금은 한국에 비하면 매우 비싼 편이다. 3개월 이상의 장기 비즈니스 여행자의 경우 한국에서 Eurorail Pass를 구입하거나, 독일 철도청의 25%~50% 연간 할인권인 Bahn Card(51.5유로~412유로)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독일 철도의 경우에도 30분 정도 연착하는 경우가 많아 출장 시 연착시간 30분 이상을 염두 해 놓는 것이 좋다.

라. 주요 운송사

1) SCHENKER

1872년 건립된 독일의 주요운송업체 중 하나이며, 총 32,00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매출액은 70억 유로에 달한다. 모기업은 Deutsche Bahn이다.

- 주소: Alfredstrasse 81, D 45130 ESSEN
- TEL: +49-0)20187810
- FAX: +49-0)20187818334
- HOMEPAGE/E MAIL: www.schenker.com, info@schenker.com

2) Deutsche Post

1994년 철도청에서 민영화되어 일반 물류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총 34만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은 300억 유로에 달하는 거대기업이며 DHL DANZAS등이 자회사로 소속되어 있다.

- 주소: D 53250 Bonn
- TEL: +49-0)2281820
- FAX: +49-0)2281827099
- HOMEPAGE/E MAIL: www.deutschepost.de, ir@deutschepost.de

3) DHL DANZAS

물류단일기업으로는 세계최대 기업으로 Deutsche Post의 자회사이다. 총 220개국에 174,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 주소: Suedallee, Frachtgebaeude Modul H, 85356 Muenchen
- TEL: +49-0)8997594000
- FAX: +49-0)8997594006
- HOMEPAGE/E MAIL: www.danzas.de , info@danzas.de

4) Hartrodt

독일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인 Hamburg에 소재한 운송업체로서, 1887년에 건립된 전통 있는 물류업체이다. 총 900여명의 직원이 연간 1억 유로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주소: Hoeherdamm 35, 20097 Hamburg
- TEL: +49-0)4023900
- FAX: +49-0)402390319
- HOMEPAGE/E MAIL: www.hartrodt.de , ah ham@hartrodt.de

마. 물류가격

물류가격은 운송사마다, 화물의 종류마다 상이하고 컨테이너 베이스 또는 LCL베이스에 따라 상이하여 별도의 가격을 예시할 수가 없다.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서 물류회사를 접촉하여 얻은 대략적인 가격은 아래와 같으나 연도별, 환율, 운송사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람.

- 20 피트 컨테이너
 - 독일에서 한국까지 컨테이너 운송료 : 900 유로에서 1300 유로 사이
 - DOOR TO DOOR 이삿짐 또는 상품 운송료 : 제세금 및 포장 등을 포함하는 경우 4000 ~ 6000 유로 사이이나 운송업체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자료원: www.db.de(독일철도청), EIU자료인용, WIKIPEDIA, KOMPASS 및 무역관 자체 수집 정보 (2006. 8))

29. 분쟁해결 절차

독일은 EU 가입국으로 단독으로는 무역분쟁을 발안할 수 없는 상태이며 마찬가지로 분쟁 해결 역시 브뤼셀의 EU 집행위를 통한 해결만이 가능하다.

EU 에서는 산업피해구제조치로서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불공정한 교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때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독일과 한국 개별국가별간의 분쟁해결은 사전 독일 측 움직임을 파악하여 각 협회나 대정부 관련 로비 정도에서 머무르는 수준이며 독일의 산업별 조합이나 단체, 또는 정부기관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빠른 정보입수가 필수적이다.

EU에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서는 국제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WTO 등의 국제기관에 제소가 바람직하며 이때에는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는 LAW FIRM과 해당산업기업과의 밀접한 정보교환을 통한 분쟁해결이 권장할 만하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정보(2006.8))

30. 유형별 분쟁사례

유럽공동체 EU 내에서는 개별국가별 분쟁이 아닌 EU 와 기타 국가간의 분쟁으로 전반적인 분쟁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6 년도 상반기 EU 는 반덤핑 7 건 (규제 중 5 건, 조사 중 2 건), 상계관세 1 건 등 총 8 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상품별 반덤핑규제 및 조사 중인 상품은 아래와 같다.

특히 독일조선업에서 제기한 한국의 조선업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관련 사항은 현재 조사중인 상태이다.

가. 반덤핑 규제품목 및 종료시기

- 칼라 TV 브라운관(전 규격): 2007 년 8 월/ 반덤핑 관세율: 15.1%(LG, 삼성제외)
- 3.5' 플로피 디스켓: 2006 년 2 월 17 일/ 반덤핑 관세율: 8.1%
 - 동 품목은 1992 년 9 월 18 일 조사가 개시되었고 현재 반덤핑 관세부과 종료됨.
- 철강제 관연결구류: 2005 년 8 월 19 일/ 반덤핑 관세율: 13.4-23.4%
- 폴리에스테르 합성 단섬유: 2010 년 3 월/ 반덤핑 관세율: 0-10.6%
- PET 칩(점착성 173mg/l 이상의 PET): 2005 년 12 월 1 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장/ 반덤핑관세율: 0-148.3%
- PET 필름: 2006 년 8 월/ 반덤핑 관세율: 0.0-13.4%

나. 반덤핑 조사 중인 상품

- 양문형 냉장고(400 리터 초과형): 잠정 반덤핑 관세율: 삼성 4.4%, 대우 9.1%, LG 14.3%

다. 상계관세 규제 중인 상품

- DRAM (Hynix) : (2006 년 3 월 부분중간 재심공고), 관세율 : 34.8%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무역관 자체정보 (2006 년 8 월))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1996 년부터 2005 년까지 최근 10 년간 독일에 투자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총 4,245 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미국, 베네룩스, 영국에 이어 세계 4 위외의 직접투자유입(Inward FDI) 국가임을 의미한다. 한동안 독일은 국제 경쟁력 저하로 투자매력을 상실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5 년 평균 1% 정도로 저성장을 기록하고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해외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 년 상반기 독일은 5 년 만에 최고 분기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경기회복세를 타고 있으며 독일 연방정부 관점에서는 1.6%, ifo 등 민간연구소는 2.0~2.2%로 5 년 만에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은 유럽 최대 소비시장인 동시에 유럽의 허브로서의 의미가 중요시되면서 최근 독일 내로의 해외투자 유입 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 년 Ernst & Young 의 직접투자 매력도 조사에서 독일은 선진국 중에는 미국에 이어 2 위, 전체 순위에서는 중국, 미국, 인도, 폴란드에 이어 5 위를 차지하는 등 독일의 투자 매력도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 Ernst & Young 조사 독일투자선호도 조사 1 위 지표

- 국내시장규모: 독일 1 위, 영국 2 위, 프랑스 3 위, 폴란드 4 위
 - 선정사유: 총 8300 만여 명의 세계 최고 수준의 부유층 인구와 유럽 최대 소비시장
- 물류: 독일 1 위, 프랑스 2 위, 영국 3 위, 네덜란드 4 위
 - 선정사유: EU 통합에 따라 총 4 억 5 천만 명의 유럽의 물류의 축이 동진, 독일이 유럽의 허브 역할, DHL, DB 등 세계 굴지의 물류회사 경비, 유럽 2 위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20 여 개의 국제공항, 총 연장 12,044km 의 Autobahn(고속도로)
- 기술습득도: 독일 1 위, 영국 2 위, 프랑스 3 위, 스칸디나비아 4 위
 - 선정사유: 전문기술보유 인력다수, 세분화된 전문자격증
- R&D: 독일 1 위, 영국 2 위, 프랑스 2 위, 스칸디나비아 4 위
 - 선정사유: 고도의 투자집중도 및 네트워크의 밀집성

동 보고서에서 독일은 노동경직성, 인건비 및 행정서비스 등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1996~2005 OECD 국가별 누적 FDI(유입액 기준)

(단위: 10 억 달러)

국 가	FDI 투자 유입액	전년 수치 (1995~2004)
미국	1539.7	1461.4
벨기에/룩셈부르크	948.8	868.4
영국	653.1	534.3
독일	424.5	375.5
프랑스	402.9	356.0
네덜란드	312.6	273.8
캐나다	228.3	206.6
스페인	224.6	184.0

자료원: Invest in Germany

독일의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현황

(단위: 10 억 달러)

	2002	2003	2004	2005
독일	53.6	29.2	-15.1	32.6

자료원: Invest in Germany

□ 외국기업의 대독일 투자

미국은 2005년 기준으로 독일에 총 1,200억 유로(한화 150조원)를 투자하고 총 85만 명의 독일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독일 Amcham에 따르면 독일 내 미국업체 중 매출규모로 가장 큰 업체는 GM과 FORD 미국자동차업체, 3위는 석유회사인 Exxon Mobil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GM의 경우 독일 OPEL사의 대주주로 2004년(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 반영) 총 143억 유로(한화 약 18조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2002년부터 미국기업 중 수위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FORD의 경우 총 138억 유로 매출로 2위, Exxon은 127억 유로로 3위, IBM이 70억 유로로 4위, 필립모리스가 65억 유로로 5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기업은 다른 어느 나라의 기업보다 독일 투자에 적극적이다.

미국업체들의 독일인 고용측면을 살펴보면 2004년 기준 맥도널드사가 총 4만 7천명, GM OPEL이 3만 7천명, 포드가 2만 6천명, IBM이 2만 6천명, 버거킹이 1만 5천 3백 명 등으로 미국의 투자기업을 통한 독일 내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크다.

최근 미국기업의 대규모 독일투자를 감행한 업체는 AMD사로 2006년 5월 29일 추가적인 25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AMD사의 대독일 누적투자금액은 100억 달러에 달한다.

영국기업의 대독일 투자 역시 매우 활발하다. 가장 대표적인 투자는 2000년도 영국의 Vodafone사의 독일 Mannesmann사 합병인수를 통한 투자 건이다. 이 당시 Vodafone사의 투자금액은 1,900억 유로에 달하여 세계 최대 투자건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Toshiba, Sony, Toyota, Mazda, 프랑스 Sanofi Aventis 등의 다국적기업의 대독일 투자가 활발하다.

(자료원: Invest in Germany,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자체정보 2006.08)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우리나라 기업의 대독일 투자는 1980년 이후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투자 실적은 총 212건, 11억 1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독일 투자 유형은 공장 등 제조업 기반인 그린필드형 투자보다는 현지 지사설립에 집중하고 있어 독일을 생산거점으로 보다는 판매거점으로서의 의미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의 독일투자는 기본적으로 현지 법인을 통한 판매망 구축 및 마케팅, 기술 또는 디자인 연구소 설립에 있다.

이와 같이 한국 기업의 대독일 투자가 판매 및 기술연구소 설립 등에 집중된 이유는 고임금과 높은 세제 등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현지에 우리나라 기업의 신규공장 설립은 베를린 등지의 일부 LCD 조립공장 외에는 최근 5년간 전무한 상태이다.

독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 SDI의 경우 고임금, 높은 사회보장세 및 마진 하락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베를린근근지역의 공장을 2007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며 EU 시장의 생산기지는 지속적으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 구 동구권 국가로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의 대독일 투자는 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금융, 의료기기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2006년 상반기 기준 3.5%이상(대우자동차 포함)을 기록하면서 독일지역 유럽법인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형태와 인원현황

	회사 수	본사파견 직원	현지 채용인원
공공기관	11	41	35
금융기관	5	14	33
프랑크푸르트 지역	55	238	715
뒤셀도르프 지역	13	50	219
함부르크 지역	9	35	575
베를린 지역	2	25	1,449
총 계	95	403	3,026

자료원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자체수집정보 2006

(자료원: 무역관 자체 수집정보, Invest Korea (2006.8))

33. 투자환경

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독일 정부 입장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모두 외국인 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2006년 5월 기준 10.8%(453만 명)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기업에 특별히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없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은 독일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동일한 법률과 규칙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다만 지방 경제개발 공사 등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및 노동 허가 취득에 유리한 정보 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독일의 투자 유치 활동은 독일 경제부 및 주정부, 상공회의소 등이 상호 연계하거나 독자적으로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제부 내에는 "외국 투자 정보 안내 센터"가 있고 각 주별 로는 주정부 또는 경제개발 공사나 관련 투자 진흥 기관들이 투자 유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연방 경제부는 지금까지 연방 정부, 주정부, 경제개발 공사 등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 되던 투자 유치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2003년 Invest Germany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투자 허가, 감독 기관

독일은 기업 투자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이 없으므로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허가, 감독 기관은 없다.

따라서 독일에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 관청의 기업과 (Gewerbeamt)에 정관을 작성하여 등록하면 된다. 기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기업과에서 지역 관할 법원(Amtsgericht)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으로도 등록해 준다. 그러나 금융, 보험 등의 업종에 따라서는 사전에 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행정조직은 연방 정부-주정부-지역 관청 (대도시는 시청) 구역 관청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투자나 기업 설립 등의 경우에는 구역 관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지역 관청의 관할 범위는 우리나라의 '면' 정도에 해당하며, 구역 관청의 관할 지역은 우리나라의 읍 단위 정도의 규모이다.

다. 투자 제한 분야

투자 관련 내국 기업과 외국 기업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으나 외국 기업의 투자 사전 승인 및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독과점 위반 여부
 - 시장독점을 막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독일기업 인수 및 투자 시에 전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는 Bundeskartellamt (독일 카르텔 연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박, 환경 오염, 국방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심사
 - 독일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방 및 금융, 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시에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제한 분야는 보험업, 은행업, 국방 및 안전관련 산업분야, 도박 등이다.

라. 조세 정책

독일의 조세 제도는 정당한 사회적 조세 부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독일의 기업 조세 부담률은 높은 편으로 KPMG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독일의 법인세율은 39.6%로 EU의 평균 31.7%를 훨씬 웃돌고 있을 뿐 아니라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유럽 평균 법인세는 1% 인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1.2% 인상되었다. 외국 기업들은 독일에서 법인세 포함 총 41-45%의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이태리의 41%, 벨기에의 40%, 프랑스의 36%, 네덜란드의 35%, 영국의 30%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독일의 간접세는 EU국가 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16% (부가가치세)로서 장기적으로는 EU 국가들간 부가가치세 세율이 조정되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5년 중기민당/기사당 연합은 공약으로 부가세 2%인상을 내세운만큼 조만간 부가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동독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보조금 특별 공제와 영업세 및 재산세 면제조치 등 다양한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구동독지역 5개 주에 대한 투자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독일 국내업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물론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는 경계할 수 있지만 이는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반감을 갖지는 않는다.

마. 노동관계

독일에 투자 진출할 경우 노동자들과의 관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독일의 노동법이나 노사 관계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 임금, 감봉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다른 나라와는 다른 관행이 있다. 특히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것이 원활한 노사관계를 이끌어 가는데 필수적이다.

바.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투자 기회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투자 기회는 없다. 독일에서의 투자는 임금, 조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독일 자체 시장의 규모뿐만 아니라 EU 시장, 동구권 진출 등 높은 이익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다.

(자료원: 독일 투자청 홈페이지 및 무역관 자체정보(www.invest-in-germany.de, 2006. 6))

사. 투자허가신청

투자대상지역 관할관청 기업과 (Gewerbeamt)에 투자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설립 정관 (Gesellschaftsvertrag) 및 공증서,
- 설립자의 신분 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업 허가서 및 사업 관련 자격증(기업과에서 확인 가능)
- 최소 납입 자본금 (25,000 유로) 증명서(유한책임 회사 이상의 규모로 법인 설립 시)

투자허가 신청과 동시 관할 법원(Handelsregistergericht 혹은 Amtsgericht)에 상업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 투자 신청 후 관할 기업과로부터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기관인 세무서(Finanzamt), 수공업자조합(Handwerkskammer), 산재보험조합(Berufsgenossenschaft), 주 통계청 (Statistische Landesamt), 상공회의소 (IHK) 등에 자동으로 통보가 이루어지나, 소요기간 단축이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직접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 법인 설립 신청

담당 기관은 투자대상지역 구역관청의 기업담당 부서(Gewerbeamt)이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설립 정관 (Gesellschaftsvertrag) 및 공증서

-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 등
- GmbH (유한책임회사) 이상 규모의 법인 설립 시에는 최소 납입 자본금(25,000 유로) 증명서

상업등기(Handelsregister)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구역관청의 기업과가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 관할 기관: 해당 지역 관할 법원 (Handelsregistergericht 혹은 Amtsgericht)
 - 등기가 완료되면 연방관보에 게재된다.
 - 법인 설립 시 기업과의 담당자에게 동 등기 필요 여부를 확인 필요
 - 주재원 사무소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동 등기가 불요

유관기관 통보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투자신청 후 관할 기업과로부터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의 각 기관들에게 통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소요기간 단축이나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서는 직접 통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무서 (Finanzamt), 산재보험조합 (Berufsgenossenschaft), 주정부 통계청 (Statistische Landesamt), 수공업자조합 (Handwerkskammer), 상공회의소 (IHK)

(자료원: 독일 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hk.de), 2006. 8))

34. 투자인센티브

독일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실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의 투자유치활동은 독일경제부 및 주정부, 상공회의소 등이 상호 연계하거나 각각 독자적으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제부 내에는 '외국투자정보 안내센터'가 있고 각 주 별로는 주정부 또는 경제개발공사나 관련 투자 진흥기관들이 투자유치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연방경제부는 지금까지 연방정부, 주정부, 경제개발공사 등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던 투자유치활동을 하나로 통합한 Invest in Germany를 운영 중이다.

독일연방정부의 투자관련 인센티브는 토지임차시의 조건완화, 인프라구축 및 각종서류 및 제세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주마다 여건이 상이하다.

가. 관련법규

독일에는 기업투자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이 없으므로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규는 없다.

그러나 구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보조금으로 제도에 대한 법령 INVZULG 2005를 통하여 동 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나. 투자우대제도

근본적으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적용을 하므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 우대제도는 없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중요성과 국내 투자 진흥을 위하여 독일연방정부는 2002년부터(2006년에도 유효) 40%대의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하였으며 지방경제개발공사 등에서는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관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및 노동허가 취득에 유리한 정보 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특히 구 동독 지역의 경우 투자 시 투자기업에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 기업의 투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EU에서는 동독지역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97억 유로의 경제개발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부분의 금액이 지역 인프라 구축과 투자지원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인 투자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 대상지역: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크렌부르크 포포멘,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주
 - 대기업 진출 시: 총 투자액의 최대 15% 지원
 - 중소기업 진출 시: 총 투자액의 최대 27.5% 지원
 - 부동산 취득 및 건물 신축 시: 총 투자액의 최대 15% 지원
- *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인센티브 패키지를 운영 중이며 혜택은 외투기업 및 독일기업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음
- 대기업 투자 시 보조금
 - 구 동독 지역에 공장 및 대규모 투자 시에 최고 35%, 서독지역에서는 최고 18%까지의 투자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

중소기업 독일 내 투자 시 보조금제도

(단위: %)

	구 동독 지역 투자 시	구 서독 지역 투자 시
인센티브	50%	28%
정부대출, 담보, 자본참가 형태의 보조금	25%	47%
기업의 실제투자금액	25%	25%

자료원: Invest in Germany

- 중소기업의 정의: 종업원 수 250 명 미만, 연간매출액 5 천만 유로 이하, 총 자산 4,300 만 유로 이하이며, 대기업의 지분참여가 25% 미만인 기업을 의미

(자료원: 독일 투자청 홈페이지 및 무역관 자체정보(www.invest-in-germany.de), KPMG 자료 인용 (2006. 8))

35. 타당성조사

독일은 외국인 기업을 내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별도의 투자진출 절차는 없다. 그러나 투자진출 시 유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현지생산제품의 시장성 철저 조사

- 목표시장의 정확한 정의
 - 현지 생산제품의 주 목표시장을 명확히 정의하여 가장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고 적합한 상품생산 계획을 통해 진출해야 한다.
- 제품판매 가능성 파악
 - 독일의 경우 기업 운영비용이나 생산비용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현지 생산계획 상품이 현지 독일산과 비슷한 수준에서 판매가 가능한지를 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장기적 판매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히 EU의 수입규제 회피 목적을 위한 현지 생산투자가 독일에서는 높은 생산비용으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나. 현지법인 설립, 운영 관련 법규의 숙지

- 회사형태별 관련 법규
 - 독일의 경우 회사설립 절차는 상당히 단순한 편이나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업종이나 형태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전파악은 절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 전문가를 선임,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사관련 법규
 - 독일의 노동자권의 보호규정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한국식으로 노무 관리를 이해하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생산투자나 현지인 채용이 많은 투자의 경우 노무관리 관련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 조세관련 제도
 -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독일의 조세제도는 사회주의 성격이 강해 잉여금에 대한 과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업손실 발생시 현지 금융 활용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다. 장기적 마스터플랜에 의한 현지화 전략 수립

- 장기시장 전략수립
 - 회사전체의 장기전략을 근간으로 현지 투자를 결정하되 현지 회사설립 후의 정상 운영이나 장기발전계획 등을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는 합리적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 현지화의 조기실현
 - 진출 초기에 한국형 중심의 회사운영 방식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현지화를 이행하는 것이 투자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는 경영단계 별로 현지인 고용확대로도 가능하나, 한국관리자들의 현지화가 보다 중요하다.

(자료원: 독일 투자청 홈페이지 및 무역관 자체정보(www.invest-in-germany.de), 2006. 8)

36. 투자 진출형태 및 진출절차

가. 지사설립

외국기업의 독일 지사 설립 시에 특별한 사전허가 절차는 없다. 지사는 영업 프로파일 없이도 비 독립적 형태 또는 독립적인 형태로 활동할 수 있다. 비독립적인 지사는 연락 사무소 또는 소형의 판매사무소이며 현지법인의 설립절차는 이와 달리 소정의 절차를 준수 해야 한다.

나. 현지법인

독일의 대표적인 법인은 크게 AG(주식회사), GmbH(유한주식회사)로 구분된다.

- 주식회사(AG: Aktiengesellschaft)
 - 독일 대기업다수가 선택하는 법인의 형태로서 최소자본금은 50,000유로이다. 현금으로 자본금을 예치할 시에는 총 자본금의 ¼만 예치하면 가능하다. 주식의 이동이 자유롭고 주식 상장이 용이한 형태의 법인이다.
- 유한주식회사(GmbH: Gesellschaft mit begrenzter Haftung)
 - 대부분의 독일 중소기업 및 일부 대기업이 선택하고 있는 형태이다. 최소 자본금은 25,000유로이며 현금 예치 시에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¼의 금액만 예치하면 된다. 동법인 형태의 장점은 자본금의 규모가 작고 이사진의 구성이 용이한 점이다. 최근 법인설립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10,000 유로로 낮추는 등의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다. 법인신청절차

신청기관은 투자대상지역의 관할관청의 기업과 (Gewerbeamt)이다.

법인설립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설립 정관 (Gesellschaftsvertrag) 및 공증서
-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 (필요시)
- 최소 납입 자본금(25,000유로) 증명서 (유한책임회사 이상 규모의 법인 설립 시)

상업등기(Handelsregister)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관할기관: 해당지역 관할 법원 (Handelsregistergericht 혹은 Amtsgericht)
- 등기가 완료되면 연방관보에 게재됨
- 투자 신청 시에는 기업과의 담당자에게 상업등기 필요여부 확인
- 주재원 사무소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상업등기 불필요

유관기관 통보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투자신청 후 관할 기업과로부터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의 각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나 소요기간 단축 및 정확성을 위해 직접 통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 세무서(Finanzamt), 산재보험조합(Berufsgenossenschaft), 주정부통계청(Statistische Landesamt), 수공업자조합 (Handwerkskammer), 상공회의소 (IHK)

라. 기능과 등록

독일에 설립된 외국모기업의 지사는 권한을 위임 받은 지사장을 선임한 후 모기업을 대신해 직접 거래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사의 활동은 모기업의 활동으로 간주된다.

외국기업의 지사는 관할지역의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신청은 모기업의 설립 인정서와 같은 몇 가지 서류가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공증을 받기 전 모기업 이사 전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서명을 한 경우 독일 주재 공관으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은 독일 기업과 동등한 자격과 요건으로 독일 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현지 법인장은 고용주(Arbeitgeber)가 된다.

지사와 법인은 공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독일 내에서 영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마. 자본구조

지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에 대한 요건은 없다. 그러나 본사와의 거래에는 과세 상의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종종 적정 자본금 수준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법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규모가 작은 지사는 주로 모기업의 판매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의 자본금 규모는 통상 10,000유로 수준이다.

현지 법인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25,000유로이다.

바. 지사경영

지사는 ‘법 인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사장 외에 별도 경영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노동자 협의회는 합자회사의 경우와 같이 관련 노동법 규정에 의거하여 인정되며 주로 회사 경영상의 조언을 구한다든가 직원들에게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 지사 설치 절차 및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영업행위
 - 본사를 대신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독자적인 영수증 발급 혹은 자금수령은 본사(모기업)가 직접 하여야 한다.

- 운영경비
 - 지사 운영경비는 본사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일부 지사의 경우에는 지출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 받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환급에 대한 법적 권리 존재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정되므로 변호사 자문을 구해 확인 할 필요가 있다.
- 직원비자
 - 2005년 비자협정 발효 후 원칙적으로 비자취득은 현지(독일 내) 외국인 청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오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파견직원 소득세 납부
 - 파견직원의 경우 현지에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02.10월 한-독 양국 정부에 의해 체결된 사회보장세 면제 협정에 의해 사회보장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등록절차
 - 지사설립 지역(지사 소재지) 시청에 신고(Gewerbeanmeldung) 의무가 있다. 신청서는 설립 예정 관할지역 소재 시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관련서류
 -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회사정관, 서울본사 등기부등본, 이사회 명단, 자본금, 회사소재지, 현지파견자 인적 사항 등이며, 공증이 필요하다.

사. 단독투자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자사보유 자본금을 100% 출자하여 법인을 투자하는 경우로 주식회사(AG, 최소 자본금은 50,000 유로) 또는 유한주식회사(GmbH, 최소 자본금은 25,000 유로)의 형태를 취한다.

아. 주식취득

독일기업의 주식을 일부 취득하는 방법(Aktienerwerb)으로 중장기적 금융투자 형태

자. 합작투자

대개 두 개 이상의 투자기업이 지분을 투자하고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합작투자 형태(Verschmelzung durch Neugruendung)이다. Hella Behr, Daimler Chrysler 등과 같이 투자 회사의 상호를 공동명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차. 합병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전체지분을 인수하면서 합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독일어로는 Verschmelzung durch Aufnahme라고 한다.

(자료원: KPMG, 무역관 자체정보(2006.8))

37. 입지선정

가. 투자진출지역의 신중한 결정

1) 투자진출 목적의 명확화

현지진출 목적을 정보수집용 연락사무소 설치, 상품의 판매유통, 현지생산 및 연구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지역, 투자규모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지역별 각종 투자지원 정책 및 혜택 비교조사

독일의 경우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각 지방 정부들의 투자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범위가 상이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도 지역별로 상이한 바, 이러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세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각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기관을 접촉하면 상세한 정보와 조언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나. 구 동독지역 투자 시 고려사항

구 동독 지역 투자 시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EU차원에서 지원되는 총 300억 유로 상당의 지원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 기업에는 취득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제공한다.

- 대상지역: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크렌부르크 포포멘,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주
- 대기업 진출 시: 총 투자액의 최대 15% 지원
- 중소기업 진출 시: 총 투자액의 최대 27.5% 지원
- 부동산 취득 및 건물 신축 시: 총 투자액의 최대 15% 지원

그러나 구 동독 지역의 인프라가 미흡하고 소비시장이 원거리에 있으며 폴란드, 체코에 비하여 임금이 높고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여 독일기업 역시 구 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니 투자결정시에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한 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구 동독지역의 투자 유망지는 Sachsen주의 Dresden으로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AMD가 2006년 5월 25억 달러 규모의 신규공장 투자를 결정하였다.

다. 독일의 각 지자체 별 특성

1) 바덴-뷔르템베르크

- 면 적: 35,752km²
- 인 구: 1,071 만 7 천명(외국인 128 만 1 천명 /12%)
- 수 도: 슈투트가르트
- 주요기관: 칼스루에에 독일 최고의 사법기관인 연방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 소재

- 주요산업
 - 자동차와 마이크로칩(Benz, Bosch, IBM), 정유산업(Karlsruhe), 버스 및 인쇄기계제조, 서비스산업 독일의 연방 주 가운데 최강의 경제수준 자랑
- 특기사항
 - 칼스루에의 핵연구소, 하이델베르크의 독일 암연구소, 다수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아홉 개의 종합대학 등이 있다.

2) 바이에른

- 면 적: 70,550km²
- 인 구: 1,244 만 3 천명(외국인 117 만 5 천명/9.4%)
- 수 도: 뮌헨
- 주요산업
 - 관광(알프스의 산악지대, 구름지대, 호수, 독일 최초의 국립공원), 자동차 및 항공기 제조, 전자 및 전기, 보험, 출판, 기계제조 및 완구산업(뉘렌베르크), 섬유 산업, 자동차산업(아우구스부르크), 농업, 맥주산업
- 특기사항: 독일 최대 면적의 주, 종합대학 및 다수의 전문대학 소재

3) 베를린

- 면 적: 883km²
- 인 구: 338 만 7 천명(외국인 45 만 4 천명/13.4%)
- 수 도: 베를린
- 주요기관: 연방의회, 연방행정부
- 주요산업: 기계제조, 식품 및 주류산업, 제약산업, 섬유산업
- 특기사항
 - 독일의 수도이자 유럽 문화의 중심, 수많은 극장과 박물관, 마이트너 원자물리학 연구소, 헤르츠 통신기술연구소, 프로이센 문화재단 소재

4) 브란덴부르크

- 면 적: 29,476km²
- 인 구: 256 만 7 천명(외국인 6 만 7 천명/2.6%)
- 수 도: 포츠담
- 주요산업
 - 농업, 강철, 갈탄, 기계제조 및 자동차산업(벤츠의 화물차조립공장), 전자공학, 기계산업
- 특기사항: 썬슈 시 공원의 건축물

5) 브레멘

- 면 적: 404km²
- 인 구: 66 만 3 천명 (외국인 8 만 4 천명/12.8%)
- 수 도: 브레멘
- 주요산업: 해상교통 및 조선, 항공 및 우주산업, 자동차산업
- 특기사항
 - 두 개의 도시(Bremen, Bremerhaven)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연방 주 구성, 면적과 인구 면에서 독일에서 가장 작은 주

6) 함부르크

- 면 적: 755km²
- 인 구: 173 만 4 천명(외국인 24 만 4 천명/14.1%)
- 수 도: 함부르크
- 주요기관: 세계각국의 영사관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도시
- 주요산업
 - 해외무역 및 교통의 중심지, 조선소, 정유소, 항공 및 우주산업, 전자산업, 정밀산업, 화학공업, 북부 독일 금융 및 서비스의 중심지, 언론도시
- 특기사항: 독일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 소재지

7) 헤센

- 면 적: 21,114 km²
- 인 구: 609 만 7 천명(외국인 69 만 4 천명/11.4%)
- 수 도: 비스바덴
- 주요기관: 유럽중앙은행(ECB, 프랑크푸르트), 연방은행 본점 (프랑크푸르트)
- 주요산업
 - 금융, 박람회 중심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중심지, 기계제조, 기관차 및 객화차제조, 자동차제조(Hoechst, Opel), 가죽산업(Offenbach), 광학산업(Wetzlar)
- 특기사항
 - 유럽 최대의 화물항공이자 두 번째로 큰 여객항공인 프랑크푸르트공항소재 괴테의 탄생지(프랑크푸르트), 대학도시(Marburg, Giessen)

8)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 면 적: 23,173km²
- 인 구: 171 만 9 천명(외국인 3 만 9 천명/2.3%)
- 수 도: 슈베린
- 주요산업: 농업, 목축업, 관광업
- 특기사항: 1,000 개의 호수를 가진 주

9) 니더작센

- 면 적: 47,616km²
- 인 구: 800 만 명(외국인 53 만 6 천명/6.7%)
- 수 도: 하노버
- 주요기관: 연방 물리기술 센터
- 주요산업: 식품업(베이컨, 꿀), 광산업(철광석, 천연가스), 박람회산업, 자동차산업(Volkswagen)
- 특기사항: 독일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주

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면 적: 34,082km²
- 인 구: 1,807 만 5 천명(외국인 196 만 4 천명/10.8%)
- 수 도: 뒤셀도르프
- 주요기관: 통독 전 연방공화국의 수도 소재지 (본)
- 주요산업: 에너지산업 (31 개 발전소 소재), 엔진, 소재산업, 양조
- 특기사항: 독일의 연방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유럽 최고의 인구 밀집지역

11) 라인란트-팔츠

- 면 적: 19,847km²
- 인 구: 406 만 1 천명(외국인 31 만 1 천명/7.7%)
- 수 도: 마인츠
- 주요산업: 화학산업 (BASF), 포도주
- 특기사항: 구텐베르트 인쇄박물관 소재

12) 자알란트

- 면 적: 2,568km²
- 인 구: 105 만 6 천명(외국인 8 만 8 천명/8.4%)
- 수 도: 자아브뤼켄
- 주요산업: 박람회산업, 유리와 도자기 제조, 기계, 금속가공업
- 특기사항: 종합대학 집중, 심포지움의 도시

13) 작센

- 면 적: 18,413km²
- 인 구: 429 만 6 천명(외국인 11 만 8 천명/2.8%)
- 수 도: 드레스덴
- 주요산업: 박람회산업, 도자기, 전자공업, 자동차(폭스바겐, 폴로), 출판산업(라이프짜히)
- 특기사항: 슈만 바그너 탄생주, 구동독주 중 가장 경제전망이 밝은 주

14) 작센-안할트

- 면 적: 20,446km²

- 인 구: 249 만 4 천명(외국인 4 만 7 천명/1.9%)
- 수 도: 막데부르크
- 주요산업: 농업(밀, 사탕무우, 채소), 화학공업
- 특기사항: 헨델의 출생지

15) 쉘레스비히-홀슈타인

- 면 적: 15,761km²
- 인 구: 282 만 8 천명(외국인 15 만 1 천명/5.3%)
- 수 도: 키일
- 주요산업: 관광업

16) 튀링엔

- 면 적: 16,171km²
- 인 구: 235 만 5 천명(외국인 4 만 7 천명/2.0%)
- 수 도: 에어후르트
- 주요산업
 - 공작기계, 정밀 및 광학(Jena, Zeiss), 자동차(Opel), 전기 및 전자(Bosch), 농업(보리, 밀, 감자, 사탕무, 과일)
- 특기사항
 - 다른 주에 비해 녹지가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독일의 녹색 심장(German Green heart -land)로 불리며, 문인들이 많이 살았다.

(자료원 : 독일연방 통계청, 무역관 자체자료 (www.destatis.de, 2006.8))

38. 공장설립

가. 개황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투자대상 지역 관할 관청 기업 담당부서(Gewerbeamt)에 투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시 구비서류

- 회사설립 정관 (Gesellschaftsvertrag) 및 공증서
-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 - 필요한 경우 기업과에서 확인 가능
- 최소 납입 자본금 (25,000 유로) 증명서 - 유한책임회사 이상 규모의 법인 설립 시

투자허가 신청과 동시 관할 법원(Handelsregistergericht 혹은 Amtsgericht)에 상업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 투자 신청 후 관할 지역 기업 담당 부서로부터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기관 세무서(Finanzamt), 산재보험 조합 (Berufsgeno -

ssenschaft), 주 통계청(Statistische Landesamt), 수공업자 조합(Handwerkskammer), 상공 회의소(IHK) 등에 자동으로 통보가 이루어지나 소요기간 단축이나 정확성을 위해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나. 부동산 취득

□ 부동산 취득절차

원 소유주와 매매계약 체결 - 매매대금지불-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관할지역 등기소(Grundbuchamt)의 등기부 대장에 등록함으로써 모든 절차는 완료된다.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내, 외국인의 구분이 없다.

다만, 취득대상 부동산의 법적 하자 및 행정 규제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에는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많고, 도시계획에 따라 부동산 사용목적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근거법률인 연방 건설법(Bundesbaugesetz)의 시행세칙은 각 기초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다. 건축 및 관련허가

□ 건축감독(Bauaufsicht)

헷센(Hessen)주의 경우 헷센 주 건설법(Hessische Bauordnung)을 통해 부지, 시공 등에 대한 일반조건(도로인접간격, 비상계단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 소방규정, 주차장 규정, 상가규정, 빌딩규정에 관한 시행령이 있다.

□ 담당 관청

헷센 주의 경우 37개의 기초 지자체청이 담당관청으로 있다. 프랑크푸르트 시에서는 시청 제4국인 도시계획국의 건축 감독과가 담당관청이다. 헷센주에는 상위 감독관청으로서 Darmstadt, Giessen 및 Kassel에 각각 1개의 정청이 있다. 정청은 지방 주와 기초 지자체 중간에 있는 기구로서 각각 1개의 구(Regierungsbezirk)를 관할하고 있다. 헷센주의 최고 감독기관은 주 정부 내무성 건설국이다.

□ 건축허가 신청

담당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서에는 설계도와 건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건물높이, 상하수도 영향, 대기오염, 대지 형질변경 등을 검토하며 연방 배출물 규제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및 사용 용도 시행령(Baunutzungsverordnung)을 적용, 검토한다. 관청은 필요 시 TUEV 검사를 의뢰한다.

건축계획 입안에서 허가까지는 최소 1년이 소요되며, 건축허가 절차 및 초기 투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임대공장 또는 지자체에 의해 기 조성된 공업 단지 또는 상공회의소의 창업보육단지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공장의 생산시설 설치허가: 건축허가와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헛센 주의 경우 담당관청은 건축허가 담당관청과 동일하다. 허가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6-9개월이 소요된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6. 8))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가. 독일 연방 외국인투자유치 위원회

(Office of the Federal Commissioner for Foreign Investment in Germany)

- 주소 : Markgrafenstrasse 34, 10117 Berlin Germany
- 전화 : +49 30 206 570, 팩스 : +49 30 206 57111
- 홈페이지 : www.fdin.de
- 기관개요 : 독일 내 투자를 위한 기업에 정보제공

나. 프랑크푸르트 경제개발 공사 (Wirtschaftsfoerderung Frankfurt)

- 주소 : Hanauer Landstr.182, 60314 Frankfurt/M, Germany
- 전화 : +49 69 212 36 209, 팩스 : +49 69 212 36 230
- 홈페이지 : www.frankfurt-business.de
- 기관개요 : 프랑크푸르트의 경제개발을 위한 기관으로 파트너 발굴도 함.

다. 바덴뷔르템베르크 국제경제협력청

(Baden-Wuerttemberg Agency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Ltd.(GWZ))

- 주소 : Willi-Bleicher-Str.19, 70174 Stuttgart, Germany
- 전화 : +49 711 22787, 팩스 : +49 711 22787
- 홈페이지 : www.bw-invest.de
- 기관개요 : 지방정부 투자담당 부서

라. 독일 산업투자 위원회(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GmbH(IIC))

- 주소 : Charlottenstr. 57, 10117 Berlin, Germany
- 전화 : +49 30 2094 5660, 팩스 : +49 30 2094 5666
- 홈페이지 : www.iic.de
- 기관개요 : 외국인투자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마. Invest in Germany

- 주소: Anna-Louisa-Karsch-Strasse 2, 10178 Berlin
- 전화: +49-(0)30-20657-0, 팩스: +49-(0)30-20657-111
- E-Mail: office@invest-in-germany.com
- 홈페이지: www.invest-in-germany.de

(자료원: 각 부처 홈페이지 (2006.8))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가. **Clifford & Chance** : 총 19 개국 28 개 지점, 법인설립 및 M&A, 회계 및 인력관리

- 담당자 : Dr. Christoph Witte
- 주소 : Postfach 32 01 25, 40416 Düsseldorf, Deutschland
- Tel: +49 (0)211 4355 5779
- Email : christoph.witte@cliffordchance.com

- 담당자 : Nicole Engesser Means
- 주소 : Postfach 11 14 42, 60049 Frankfurt am Main
- Tel: +49 (0)69 7199 4280
- Email : nicole.engessermeans@cliffordchance.com

나. **Baker & Mckenzie** : 1962 년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실 개설, 각종 상업관련 법률상담 및 대행업무 진행

- 주소 : Bethmannstrasse 50-54, 60311 Frankfurt/Main, Deutschland
- Tel: +49 (0) 69 29 90 8 0
- Fax: +49 (0) 69 29 90 8 108

다. **White & Case**: 총 25 개국 38 개 지점, 법인설립 및 M&A, 회계 및 인력관리

- 주소 : Bockenheimer Landstraße 20, 60323 Frankfurt, Deutschland
- Tel: +49 69 2 99 94 0
- Fax: +49 69 2 99 94 1444
- Email : frankfurt@whitecase.com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6. 8))

라. 독일 내 해외투자관련 유관기관

기관명	프랑크푸르트 경제개발공사		
주소	Wirtschaftsförderung Frankfurt GmbH Hanauer Landstr. 182D-60314 Frankfurt am Main, Germany		
전화	+49 69 212 36 209	팩스	+49-69-2123-6230
Web-site	www.frankfurt-business.de	e-mail	Mr. Stepf: ls@frankfurt-business.de
			Dr. Schwesinger: sw@frankfurt-business.de
기관개요	프랑크푸르트 투자 유치 및 산업 진흥기관		

기관명	Baden-Wuerttemberg Agency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Ltd.		
주소	Willi-Bleicher-Str. 19, D-70174 Stuttgart, Germany		
전화	+49-711-2-2787	팩스	+49-711-2-2787
Web-site	www.bw-invest.de	e-mail	gwz@gwz.de
기관개요	독일 바덴 뷔템베르그 국제경제 협력청-지방정부 투자담당부서		

기관명	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GmbH(IIC)		
주 소	Charlottenstrasse 57, D - 10117 Berlin, Germany		
전 화	+49-30-2094-5660	팩 스	+49-30-2094-5660
Web-site	www.iic.de		
기관개요	독일 산업투자위원회-외국인투자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관명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of Thuringen		
주 소	Mainzerhofstr. 12 - 99084 Erfurt, Germany		
전 화	+49-361-560-3486	팩 스	+49-361-560-3486
Web-site	www.invest-in-thuringen.org		
기관개요	독일 튀링겐 주 개발공사- 지방정부 투자담당부서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6. 8.))

41. 노무관리

독일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rbeitsgenehmigung(노동허가)와 Aufenthaltserlaubnis(체류허가)가 필수적이다. 독일인이 아니더라도 EU국가 출신 노동자들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허가가 필요 없으며, 단기간에 체류허가가 부여되는 특권이 주어지고 있는 반면, 타 국가 외국노동자들의 경우 신청절차 및 요구조건이 매우 복잡하다.

가. 독일의 노조

독일에서는 Kündigungsschutz(해고보호법)등과 같은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노동법이 있어, 고용인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담당기관으로는 산별 노조가 있으며, 개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DGB(Deutsche Gewerkschaftsbund)라는 독일노조연방이 최고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에는 IG METALL, VERDI, IG CHEMIE, IG BAU 등과 같은 산별 노조가 속해 있다. 근무조건 및 임금인상관련 노조협상은 각 산 별 노조가 경영자협회(BDA)의 각 분과와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소위 Tarifvertrag (의역: 산 별 노조협약)을 통하여 각 산업 별 분과의 임금 가이드 라인을 결정하고 있다.

독일의 개별기업 노조는 Gewerkschaft가 아닌 Betriebsrat로 불리고 있으며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Betriebsrat를 구성할 수 있다. 각 기업별 노조(Betriebsrat)는 자신의 협상에 유리한 산 별 노조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 독일최대 노조인 금속노조(IG METALL)가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5%로 설정하는 등 2006년 독일의 노조활동은 경기침체에 따른 온건한 협상에서 공격적인 협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근무시간

일반직장은 평일 08:00-17:00가 평균 근무시간으로 직장이나 개인에 따라서 좀더 일찍 시작하고 빨리 끝나는 경우도 많다. 금요일에는 평일보다 1-2시간 빨리 종료하는 것이 보통이다.

관공서는 08:00-12:00까지만 대민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요일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은행 개점시간은 08:30-13:00, 14:30-16:00이 일반적이거나 은행에 따라서 화요일, 목요일 오후 18:00까지 개점하는 곳도 있다.

상점들의 개폐점 시간은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일반상점은 2003.6.1일부터 평일과 토요일 모두 08:00-20:00로 변경, 연장되었다.(기존 토요일 개점시간 08:00-16:00) 작은 상점들은 폐점 시간보다 1-2시간 앞당겨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 단, 대도시의 중앙 역이나 공항 내의 슈퍼마켓, 상점, 그리고 주유소 간이매장은 개폐점 시간에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통 23시까지 영업을 하며, 대형 유통점의 경우에도 점점 개점시간을 늘려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제과점 역시 신선한 빵의 제공을 위해 일요일 오전 영업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독일 직장의 경우, 우리나라, 미국과 같이 일괄적인 노동법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 별 노조 별로 근무시간을 협상하고 있다. 독일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005년 12월 현재 36.2시간이다. 지난 몇 년간의 경제 침체 및 재정적자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연장되는 분위기이며 일부 주 가운데 특히 헷센 주의 공무원들은 주당 41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다. 인력

독일의 노동력은 매우 숙련된 기술 및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다른 국가의 기준으로 볼 때 독일 노동자의 훈련수준과 노동생산성은 매우 높다. 비교적 높은 실업률은 숙련된 기술력을 갖춘 노동력을 언제든지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라. 임금

2005년 독일통계청 연감 기준으로 독일 남성 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각각 3,127 유로, 2,483유로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급여에 큰 차이가 있는 편이다. 동성의 경우에도 제조업종 및 서비스업(금융, 보험, 무역업)관련 근로자의 편차가 심하여 제조업종의 일반 남성근로자 평균급여는 2,596유로인데 반하여 서비스업종의 평균 급여는 3,771유로로 훨씬 높은 편이다. 여성의 경우에도 직종에 따른 차이는 마찬가지이다. 평균적으로 영어를 말하고 쓸 줄 아는 경력을 갖춘 비서직의 경우 초봉이 월 2,000 유로 이상이며 중간 관리자와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은 처음부터 3,000 유로 이상부터 시작한다.

통독 이후에도 여전히 서독과 동독의 급여차이가 존재한다. 중간 관리자급의 사무직원들은 평균 월 5,000유로에서 6,000유로 정도를 받고 있는데 동부 독일의 경우 중간급 이상의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은 서부독일의 80% 수준이다. 통독 전에는 구 동독 지역의 노동자는 구 서독 노동자 월급의 40% 정도를 받았으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협약에 따라 조만간 양 지역의 노동자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마. 상여금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연 100%이며 연말에 지급하므로 13번째 급여라는 통칭으로 불린다. 이 밖에 여름 휴가 기간에 휴가비(Urlaubsgeld)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2005년 경제난으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휴가비와 13번째 급여가 축소 또는 미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6년 들어 기업 수익 향상과 내수회복 등의 호재로 2006년 여름 휴가비와 13번째 급여가 동결된다는 정보는 입수된 바 없다.

바. 외국인의 고용

독일에서 일자리를 얻기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은 노동 및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 EU 국가의 국민은 직업에 관계없이 독일 내 거주허가서 한 장으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가는 그들을 독일시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처음에는 5년짜리 허가서를 발급해 주지만 이 기간이 종료되면 영구허가서를 발급해 준다.

EU 이외의 국가 출신 노동자는 독일로 입국하기 전에 본국 소재 독일 영사관에서 임시 체류 허가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선 3개월짜리를 발급해 주는데 입국 후부터는 1년 단위로 갱신해 준다. 노동허가는 고용주를 경유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며 발급된 노동허가는 통상 일년 동안 유효하다.

노동허가는 근로자와 고용주 양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고용관계가 변할 때는 재 신청 해야 한다. 노동허가는 현지 노동청에 신청하며 동 분야의 독일 국내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는 노동허가 취득이 어렵다.

독일의 노동관련 통계

지 수	2002	2003	2004	2005
고용인구(1,000명)	38,752	38,917	38,330	38,910
실업률(%)	9.8	10.5	10.6	11.2
월평균임금 (제조업)	2,396	2,460	2,507	2,542
임금상승률(2000년=100)	105.7	108.0	109.5	110.7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제조업)	38.2	38.0	37.9	37.9

참조: 2006년 7월 기준 실업률은 10.8%, 453만 여명의 실업자가 있음.

자료원: 연방 고용주협회 홈페이지(www.bda.online.de, 2006. 8)

독일노총 홈페이지 (www.dgb.de, 2006. 8)

독일연방통계청(www.dstatistics.de 2006.8),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42. 조세제도

독일은 연간 5만 유로 정도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미혼여부,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체소득의 평균적으로 35~50%의 직·간접세(소득세, 연금, 건강보험 등)를 지출하고 있으며, 관련 세제 별 개황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자 사회보장

독일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협상을 통해 합의된 임금 이외에도 법적으로 각종 사회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보장제도에 지불되는 비용은 임금 부대 비용이라고 불리며 독일 기업들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동 비용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로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각각 50%를 분담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Agenda 2010을 통해 실업급여 기간 단축, 실업수당과 연금제도의 통합,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의 재정 건전화는 물론 기업의 세부담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

나. 세제개황

독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며 각 주 공통으로 법인세, 영업세 (거래세), 재산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타 연방세로서 보험세, 담뱃세, 석유세 등이 간접세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주세로서는 자동차세 및 토지취득세가 있다. 그 외에도 관세 및 지자체세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의 배당여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또한 귀속방식이 적용된다. 법인세는 과세대상 소득의 최저 23.9%, 최고 53%이며, 주주배당금에 대해서는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2000년 7월 연방정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 단일하게 25%를 적용키로 하였다. 법인의 배당소득의 경우 예도 1/2만 과세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영업세의 경우도 일종의 법인세로 볼 수 있으며 각 주, 도시마다 영업세의 기준이 상이하며 차이가 있다.

한편,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Agenda 2010 정책에 의거, 소득세율 인하, 기업의 사회비용(연금, 실업급여 등) 절감 등이 정책으로 이미 도입되었거나 추후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독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개념으로 0%에서 최고 45%까지 차등 구분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가세의 경우, 2006년 상반기 기준 16%, 서적과 식료품(음료수 제외)은 7%이나 2007년 1월을 기점으로 부가세가 현행 16%에서 19%로 인상될 예정이다. 서적과 식료품에 부가되는 7%의 부가세는 변동이 없다.

다.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외국법인은 독일에서 유한 납세자로 간주되며 오로지 독일 원천소득에 근거하여 과세된다. 원천소득에 근거한 납세로 인해 배당금이나 로얄티와 같은 수동적인 소득으로 인한 세무책임이 국내 납부법인이 독일 세무당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자 소득세로 완전히 해결된다.

조세 협약이 적용되는 곳에는 세무 부담이 없이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동 사무소의 피고용인은 연락이나 기타 부수적인 기능에 업무의 영역을 엄격히 제한시켜야 하고, 잠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로 간주될만한 영업활동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6.8))

43. 외환관리

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은 1999년 1월부터 가입국에 대한 외환관리를 맡고 있어 독일 정부 별도의 외환관리 정책은 없다.

12개 Euro화 사용국의 외환관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주재하고 있는 ECB (European Central Bank)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총 12개국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협의체를 통하여 외환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유로화의 경우, 2006년 8월 23일 기준 1유로= 1.2782유로로 원화와 마찬가지로 달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로화의 달러대비 초 강세로 인하여 원화 환율대비 유로화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의 대 한국 수출도 경기회복과 함께 2/4분기 이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유로 대 달러화 환율

연도	기준월	환율
2002년	10월	1:1
2003년	1월	1:1.0589
2004년	1월	1:1.2613
2005년	1월	1:1.2614
2006년	1월	1:1.2069
2006년	8월 23일 기준	1:1.2782

자료원: KPMG, 무역관 자체수집정보 종합 2006년 8월

4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구하기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 희망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접촉하여 매물을 물색하는 것이 좋으며, 프랑크푸르트에는 영어소통이 가능한 독일 부동산 외에도 교포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소가 다수 있다.

한국 주재원 및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대부분 시내보다는 주변환경이 좋고 입주가 용이한 인근 위성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교외의 작은 도시들도 제반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이 불편하지는 않다. 단, 위성도시 가운데 택시, 승용차 이외의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철 노선이 근처에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 추천할 만하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근방 및 주변 교외에서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거나 비싸 집을 구하는데 수 주일에서 한두 달 이상 소요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독일 내 주택 임차료는 위치, 노후정도, 가구가 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데 대도시 인근의 경우에는 보통 1s/m당 15~20유로 수준을 보이고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방 4개 정도(거실 및 침실 3)가 필요한데 면적은 대략 110~120s/m 정도이고, 월 임차료는 관리비 일부가 포함되는 Warmmiete로 하면 1,600 - 2,300유로 수준이다.

대부분의 집은 중앙난방이 가능하지만 부엌설비가 없는 집이 많다. 집세는 매달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자동적으로 은행구좌에서 집세가 빠져나가는 Dauerauftrag이라는 제도를 선호한다.

2001년 9월부터 독일 주택 임대차 계약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기간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해지 통고일로부터 3개월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귀임시기가 되면 이 계약해지 기간을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입주 시 보통 월 임차료 3개월 분의 보증금을 Gesetzliche Mietkaution이라 명기된 예금통장에 입금, 주인에게 맡긴다. 보증금은 임차해약 또는 계약만료 시 돌려 받을 수 있으나, 통상 주인은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이 주택 또는 가구 등에 입힌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보상으로 손상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준다.

이 경우 한국과 다른 현지 관습을 이해 못하거나 손상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생겨 자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입주 시 가구상태, 주택상태를 주인과 면밀히 검사 후 서로 확인하도록 하며, 필요 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입자 공제 단체인 Deutscher Mieterbund에 가입해 두면 세입자의 권익 신장에 용이하다.

나. 행정절차

1) 거주신고 : Anmeldung

주거지가 정해지면 주재원 및 가족은 관할시청에 소정양식에 따라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이 주민등록 신고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본적, 가족관계(기혼여부), 종교관계, 취업여부 등 전반적인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된다. 이 신고서는 각 1부가 외국인 관서 등 상급관청에 송부되어 독일 생활 중 이 기록에 의하여 모든 권리 및 의무행사를 하게 됨으로 기록에 신중을 요한다. 특히 종교 관계란에 종교(기독교)가 있는 것으로 진술하면 소득세의 9% (헛센 주인 경우)를 종교세로 납부하게 됨으로 재삼 고려해야 한다.

2)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 : Aufenthaltserlaubnis & Arbeitsgenehmigung)

2005년 1월부터 한독 정부간 비자면제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비자는 한국 소재 주한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사전 취득하는 경우와 독일 현지의 외국인 청에서 발급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독일 현지 주거 외국인 청에 발급받으면 되나, 주재원의 경우 세금 및 임금관련 절차가 복잡하여 한국의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권장할 만한 하다.

체류허가는 외국인관청(Auslaenderamt)에서, 노동허가는 노동청(Arbeitsamt)에서 각각 관장한다. 주재원은 노동 허가를 근거로 주재원의 가족은 가족동거권 (Familienzusammenführung)을 근거로 체류허가를 받게 된다.

비자신청서(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는 27개 항목으로 체재 예정 기간, 체류지, 종사업무 내용, 수입원 등을 기입토록 되어 있다. 신청에서 허가증 교부까지의 기간은 업무내용, 신분, 체재지역, 신청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나 전혀 새로운 업무로 처음 들어가는 경우 2-4개월이 소요된다.

외국인이 피고용자로 독일에 체재할 경우 노동허가증이 필요한데 노동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독일 입국 후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노동청에 제출해서 취득할 수 있다. 노동허가증도 체류허가와 같이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한 데, 매년마다 노동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3) 세금카드 : Lohnsteuerkarte

독일에서 취업하는 모든 직장인은 거주지 관할시청으로부터 세금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이 세금 카드에 의하여 회사는 매월 직원의 소득세를 해당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관할시청은 매 연말경에 익년도 세금카드를 집주소로 우송해 주는데 행정적인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때에는 Einwohnermeldeamt에 가서 발급수속을 해야 한다.

다. 계좌개설

계좌를 개설할 경우 여권과 거주등록증(Anmeldungsbescheinigung)이 필요하다. 1일 현금 인출액은 1,000유로, 주(週) 3,000유로로 제한되어 있으며, 거액을 인출할 경우는 3일 전에 은행에 미리 통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인출해야 한다.

은행에 따라 계좌유지 수수료가 다소 틀리나 Deutsche Bank, Commerzbank, Dresdner Bank 등 큰 은행 중에서 사무실이나 자택 근처에 지점이 위치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할 때는 6개월이상 정규적으로 은행을 통한 수입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라. 전화 가설

전화가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거주지역의 전화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화번호는 새 번호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전 사람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전화가설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마다 상이하야 짧게는 3일에서 한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마. 비품구입

독일의 전기규격은 50Hz, 230V로 대부분의 한국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나, 모터가 들어간 일부 제품(세탁기, 냉장고, 헤어 드라이어 등)은 높은 전압으로 고장이 날 우려가 높다. 또한 TV와 비디오테이프는 우리나라의 NTSC방식과는 달리 PAL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양판점 또는 디스카운터 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디서 구입해도 신품의 경우 A/S에는 문제가 없다.

가구는 IKEA 등 대형가구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우선 카탈로그를 살펴본 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좋다. IKEA 가구는 중저가이나 조립식이므로 구입 후 본인이 직접 집에서 조립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조립을 의뢰해야 한다. IKEA에서 조립가구를 구입하면 4~5년간 사용한 후 폐기하기가 용이하다. 고급가구는 별도의 전문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조립가구의 3배 이상이다.

기타 가벼운 공기구 및 집안에 필요한 집기는 Baumarkt나 대형 양판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바. 생필품 조달

생필품은 체인점 (IDEA, Tengelmann, Aldi, Schlecker, Fegro, Real, Lidl, Minimal)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공산품 가격은 모두 정찰제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물가 차이가 있다. 규모가 큰 백화점이나 시내 대형 매장 외에는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Real, Metro, Fegro 등 Cash & Carry 대형 유통점에서는 일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Aldi, Lidl의 가격이 전반적인 타 슈퍼체인점에 비하여 15%정도 저렴한 편이나,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점이 단점이다. 대부분의 유통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녁 8시까지 개장하나, 일요일에는 독일의 상점개폐법(Ladenschlussgesetz)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사. 한국식품 조달여건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베를린, 뮌헨 등은 주재원 및 교포가 많아 한국식품점이 다수 있으며 인스턴트 식품, 생선, 채소, 떡, 식품회사 가공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웬만한 식품은 거의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한국 2-3배이다. (광성식품 : 069-733515, 한양유통 : 06101-542176, 한독식품 : 06171-54091)

한국인이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한국식품을 배달 판매하는 교포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한국식품점이 있는 곳으로 한번씩 쇼핑을 가서 구입하기도 한다.

아. 레저여건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축구장, 스포츠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좋다. 주말에 가까운 숲이나 공원에서 산책, 피크닉, 자전거 타기 등을 할 수 있으며, 캠핑 장소가 많아 캠핑하기에도 좋다.

지역마다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동호인 모임이 활발하여 모든 종목의 운동을 할 수 있다. 골프장도 다수 산재해 있으나 핸디캡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등 이용이 까다로운 골프장이 많으며, 예약이 필수적이다 요금은 18홀 기준으로 50 유로에서 80유로 선이며, 한국과는 달리 캐디서비스는 없으니 참조하기 바람.

여행시에도 각 지역마다 Camping장 시설이 잘되어 있어, 안내책자 및 지도를 사전에 준비하면 레저 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자. 치안상태

치안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주간외출과 야간 외출 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현지인들은 대부분 저녁 퇴근 후에는 외출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내는 편이다.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좀도둑이 많아져 단독주택 1층의 경우 문단속을 잘하는 것이 좋다.

신 나치주의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테러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주로 터키인들과 동구 난민들에 대한 것이었으며 현재는 별로 표면화 된 건은 없다. 그러나 2006년 들어 구 동독지역에서 외국인 구타사건이 빈번하고 있어 동독지역 출장 시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화재, 범죄, 응급환자 등 비상시 신고 전화번호는 전 독일 공통적으로 110번이다.

차. 병원이용방법

독일은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시설의 이용이 무료이다. 대개 공공 의료보험과 사설 의료보험으로 구분되며 주재원들의 경우, INTER와 같은 사설 의료보험이 유리하다. 의료보험의 가격은 미혼의 30대 남자의 경우 월 150유로수준이며, 30대 부부와 아이가 한 명인 경우에는 450유로 정도를 지불한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9로 전화하면 대개 5분내로 응급차가 도착한다. 병원은 대개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으로 구분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시에는 개인병원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독일 병원의 특징으로는 항생제 사용을 극히 자제하고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을 지참하여 약국에서 약을 수령한다. 처방 약의 비용은 대개 먼저 현금으로 계산하고 이후에 보험사에 청구한다.

단기 출장자의 경우에는 한국의 보험사에서 보증하는 여행자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현지 병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신용카드기기가 미 비치된 병원이 다수)로 선지불하고 귀국 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람.

카. 자동차구입

신차구입: 독일의 연간 자동차 신차시장의 규모는 230만대 수준이며, 신차의 경우 BENZ, BMW, VOLKSWAGEN, AUDI, OPEL 등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유통되므로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한다. 전반적인 가격은 독일의 가장 베스트셀러 모델인 GOLF의 경우 2000CC 기준으로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는 경우 22,000~23,000유로 수준이다. 한국의 NF쏘나타(2.4리터)의 경우 2006년 6월 현재 기본사양의 가격이 23,990유로이다.

중고차구입: 독일에서 중고차를 구입시에는 가격이 직거래보다는 다소 높으나, 1년 또는 2년의 중고차개런티를 부여하는 중고차전문매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독일의 중고차시장은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www.mobile.de, www.autosout24.de 와 같은 중고차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차종을 비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 교육

1) 인터내셔널 스쿨

독일 전역에 약 20여 개의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으나, 프랑크푸르트 등 한국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2개교만 있어 입학정원 초과로 입학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 입학 : 영어로 된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건강기록부도 함께 제출하면 좋음).
- 학업 : 1학년~5학년 (초등부), 6학년~12학년 (중.고등부)
- 학비 : 기부금 (입학 시 2,000 유로, 그 후 매년 1,500 유로를 납부, 누적액 5,000 유로) 등록금 500 유로 연간 12,000 - 16,000 유로의 수업료

2) 현지 교육체계

연령별 입학가능 현지학교의 종류

구분	나이	학년	졸업시험
Kindergarten	3~6		
Vorschule(Kindergarten)	5~6/7		
Grundschule	6~10	1~4	
Hauptschule	11~16	5~10	Hauptschule 졸업시험
Realschule	11~17	5~11	Mittlere Reife
Gymnasium (Type 1)	11~19	5~13	Abitur
Gymnasium (Type 2)	11~18	5~12	Fachabitur

구분	입학조건	최소수업학기	학위
Fachhochschule	Fachabitur 또는	6학기	Diplom 전공 (FH)
Hochschule,	Abitur 시험합격자	8학기	Diplom전공(U)
Universitaet, Akademie			M.A(교직이수자들에게는 학위가 없음)

- 입학: 독일어로 된 재학증명서(건강기록부 첨부하면 좋음)를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확인 받아 거주지역 학교에 신청하면 자리가 있을 시 쉽게 입학 가능하다
- 학비: 유치원은 월 100 유로 정도이나 Grundschule 부터 대학교육까지는 전액 무료이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6. 8))